

✓ 국어

수업 고민 사전

개념 설명부터
다양한 활동 제안까지

미리 보기

창비

▼ 목차

문학 011

문법 065

듣기·말하기 107

읽기·쓰기 139

국어과 학습 용어 목록

전체 400여 개의 국어과 학습 용어 가운데 이 책에 실린 60여 개의 학습 용어는 색자로 표시하였습니다.

ㄱ

- 가변어
- 가사**
- 가전체 문학
- 가치 논제**
- 갈등
- 갈등 조정
- 감상문
- 감상적 읽기
- 감정 이입
- 강의
- 개요
- 개인 인터넷 방송
- 객관적 상관물
- 객체 높임 표현**
- 거센소리되기**
- 건의문
- 게이트키퍼
- 게임 미디어
- 접문장**
- 접반침**
- 경기체가
- 고대 가요**
- 고대 국어
- 고려 속요
- 고전 수필
- 고쳐쓰기
- 공감각적 심상
- 공감하며 듣기
- 공공 언어
- 공손성의 원리**
- 과거 시제
- 관계언
- 관용 표현**
- 관형사
- 광고문
- 교착어
- 구
- 구개음화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 국어의 특성
- 근대 국어
- 글쓰기 과정
- 글의 구성 요소
- 글의 구성 원리
- 글의 구조**

- 글의 유형
- 글의 전개 방식
- 기녀 시조
- 기사문
- 기행문**

ㄴ

- ㄴ 첨가
- 남북한 언어
- 내면화
- 내방 가사
- 내용 생성
- 내용 조직
- 내재율
- 내재적 비평
- 논거
- 논설문
- 논제
- 논증
- 논증의 재구성
- 높임 표현**
- 뉴 미디어
- 능동 표현

능동적 독자

능동적 필자

다의어

단모음

단어의 의미 관계

단어의 의미 변화

단어의 중심적 의미

단어의 짜임

담화

담화의 응집성

대명사

대사

대응 표현

대조

대중 매체

대치

대화

독서

독자

독해

동사

동음이의어

동작상

된소리되기

두음 법칙

듣기 전략

디지털 매체

띄어쓰기

ㄹ 탈락

마인드맵

만화

말하기 불안

말하기 전략

매체 소통 맥락

매체 소통 문화

매체 소통 윤리

매체 언어

매체 유형

매체 자료 평가

매체 자료의 생산

매체 자료의 수용

매체 환경

매체의 변화

매체의 영향력

메시지

면담

면접

명령문

명사

모음

모음 조화

모음 탈락

목적어

몽유록계 소설

몽자류 소설

묘사

무가

문법 요소

문자 언어

문자 체계

문장 부호

문장 성분

문장의 짜임

문체

문체의 요소

문학의 갈래

미각적 심상

미디어 리터러시

미래시제

민담

민속극

민요

ㅂ

반대신문식 토론

반모음 첨가

반어

반의 관계

발음 기관

발표

발화

방언

배경

배경지식

병서

보고문

보어

보조 형용사

복선

복수 표준어

복합 감각적 심상

복합 양식

부사

부속 성분

부정 표현

분류

분석

분절 음운

분철

브레인스토밍

비교

비분절 음운

비선형적 읽기

비언어적 표현

비유

비음화

비판적 듣기

비판적 읽기

비평문

ㅅ

사건

사동 표현

사설시조

사실과의견

사실적 읽기

사잇소리 현상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사회·문화적 맥락

사회 방언

산문시

상대 높임 표현

상징

상징의 종류

상하관계

상호 교섭

상호 텍스트성

상황 맥락

새말

서간문

서사

서사시

서술어

서술자

서정시

선어말 어미

설

설득 전략

설명문

설화

성조

소설

소설의 구성 단계

소설의 구성 유형

소설의 서술 방식

소셜 미디어

수사

수필

수필의 종류

스토리보드

시

시각적 심상	애플리케이션	예측하기
시간 표현	양반 시조	완결성
시나리오	양방향적 소통	완곡어
시나리오의 구성단위	어간	외래어 표기법
시나리오의 구성 요소	어근	외재적 비평
시상	어미	외형률
시의 어조	어절	요약하기
시적 화자	어종	용언
시적 화자의 정서	어휘	운율
시적 화자의 태도	언어 예절	원탁 토의
시점	언어의 본질	웹 페이지
시제	언어의 사회성	유시시(UCC)
시조	언어의 자의성	유음화
신소설	언어의 특성	유의 관계
신체시	옛시조	유추
신화	여음구	은유법
심상	역설	음성 언어
쌍방향적 읽기	연결 어미	음운
쓰기 계획의 조정	연서자	음운 변동
쓰기 맥락	연설	음의 동화
쓰기 윤리	연설문	음절
	연시조	음절의 끝소리 규칙
	연음	응집성
약장	영상 매체	의문문
안내문	예상 독자	의미 구성 과정
안은문장	예시	의인법

이어진문장

절

질문하며 읽기

이중 모음

접사

인과

접속 표현

크

인물

정보의 유통 방식

차차 표기법

인쇄 매체

정서를 표현하는 글

창의적 읽기

인용 표현

정의

첨가

인터넷 매체

정형시

청각적 심상

읽기 방법

조사

청자

읽기의 과정

조음 방법

체언

조음 위치

초고

크

종결 어미

촉각적 심상

자기소개서

종결 표현

추론적 읽기

자료 수집

구성분

추론하며 듣기

자발적 독서

주어

축약

자서전

주제

출처

자아 성찰

주제 통합적 읽기

친교를 표현하는 글

자유 연상법

주체 높임 표현

친교적 화법

자유시

주체적 해석

자음

준언어적 표현

테

자음군 단순화

출입말

탈락

재현 방식

중세 국어

토론

전설

중심 내용

토의

전설 모음화

중의성

통일성

전성 어미

지시 표현

전자책

직유법

포

전지적 작가 시점

진로 탐색 독서

파생어

판소리	현재 시제
판소리계 소설	협력의 원리
패널 토의	협상
평서문	형용사
평시조	형태소
표준 발음법	호응
표준어	혼합 현실 미디어
표지	홀바침
표현 기법	화자
품사	활용
풍자	후각적 심상
피동 표현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
필자	희곡
	희곡의 구성 단계

중

ㅎ 탈락
한글 맞춤법
한글 소설
한글 자모
한문 소설
한시
합성어
해학
향가
향찰
현대 국어

단
화

가사

歌辭

연관 경기체가, 시조

가사란 고려 말 경기체가 쇠퇴하고 시조가 형성될 무렵 등장한 갈래로,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국문 시가로 평가된다. 3(4)·4조, 4음보의 연속체 운문으로 행수의 제한이 없으며, 마지막 행의 음수율이 시조와 일치하는 것을 정격 가사, 그렇지 않은 것을 변격 가사로 분류한다. 이밖에는 다른 형식적 제약이 없으며, 내용이나 소재의 제약도 없어 개인의 정서에서부터 건문의 기록까지 서정과 서사를 아우르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가사의 향유층과 내용은 창작 시기에 따라 구분된다. 조선 전기 가사의 주된 창작 계층은 사대부로, 자연에서의 은일(隱逸)과 강호(江湖)도, 연군, 유배, 기행, 역사 등을 제재로 하여 음풍농월, 연군의 정, 우국지정과 같은 관념적인 주제를 드러내는 작품이 주를 이룬다. 대표 작품으로 자연 속에서의 안빈낙도를 노래한 정극인의 「상춘곡(賞春曲)」, 강호가도와 임금에 대한 감사를 노래한 송순의 「면앙정가(俛仰亭歌)」, 귀양살이의 억울함을 노래한 조위의 「만분가(萬憤歌)」, 연군의 정을 노래한 정철의 「사미인곡(思美人曲)」, 「속미인곡(續美人曲)」, 관동 팔경 및 금강산 기행과 연군의 정을 노래한 정철의 「관동별곡(關東別曲)」 등이 있다.

조선 후기에는 창작 계층이 평민, 부녀자로 확대되면서 제재 또한 다양해졌다. 유배 가사, 기행 가사의 전통이 이어지면서도 전란의 아픔, 세태(현실) 비판, 남녀 간의 애정, 부녀자의 생활을 노래한 작품들이 등장하며 조선 전기 가사에 비해 장형화되었다. 조선 후기의 가사 작품들은 조선 전기 가사에 비해 예술성은 떨어지지만 당대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표 작품으로 유배 생활의 고통을 노래한 안조환의 「만언사(萬言詞)」, 일본 여행의 견문과 감상을 노래한 김인겸의 「일동장유가(日東壯遊歌)」, 임진왜란 후 적에 대한 분노와 우국충정을 노래한 박인로의 「선상탄(船上歎)」, 조선 후기 양반 사회를 비판하는 작자 미상의 「우부가(愚夫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인의 정한을 노래한 허난설헌의 「규원가(閨怨歌)」,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작자 미상의 「황계사(黃鷄詞)」 등이 있다.

수업 고민 이렇게 해결해요!

수업 고민

가사 해석,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결 방안

- 현대어 풀이와 연결하여 구절의 의미 추론하기
- 플래시 카드 게임 활용하기

일단 긴 데다가 의미를 알기 어려운 낱선 말들, 옛한글 표기까지 더해져 있기에 가사 작품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처럼 학생들이 느끼는 가사 해석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 주기 위해, 저는 수업을 시작할 때 가사 작품에서 한자어를 제외하고 학생들이 추론할 수 있는 단어에 빈칸을 뚫은 학습지를 제작하여 나눠 줍니다. 중세 국어도 현대 국어와 비슷한 부분이 많고 크게 달라지지 않은 단어들도 많다는 것을 안내하고, 고전 시가에 자주 나오는 단어들도 언급해 줍니다. 가사 문학에 나오는 단어들을 무조건 암기하기보다 문맥을 고려하

여 핵심 단어를 추론하면 충분히 줄거리를 파악할 수 있음을 주시시키며 자신감을 북돋아 주니, 꽤 많은 학생들이 작품의 일부분이라도 스스로 해석해 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작품의 핵심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는 플래시 카드 게임을 통해 문장별 해석 능력을 키워 주었습니다.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래시 카드 게임 사이트에 미리 가사의 어구와 해석을 입력해 놓고, 해석할 수 있는 어구와 해석할 수 없는 어구로 분류하여 게임을 진행하며 학생이 스스로 해석 정도를 점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게임 형식으로 가사를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가사 문학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작품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활동 어때요?

활동 내용

국어과와 역사과 통합으로 진행하는 가사 신문 발행

활동 방법

- ① 모둠별로 가사 신문에서 다룰 주제 선정하기(은일 가사, 유배 가사, 전쟁 가사, 기행 가사, 규방 가사, 평민 가사 등)
- ② 대표 작품을 선정하여 작가, 제재, 주제, 특징, 의의와 작품에 드러나는 당대의 사회상 및 역사적 배경 소개하기
- ③ 모둠별로 신문 공유하기

가사 문학을 비롯한 고전 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역사적 사실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역사 선생님께 종종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역사 선생님께 학생들이 가사의 내용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조사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더니, 한국사 시간에 배운 내용들이라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답하셨습니다. 가사 신문 제작은 가사가 가진 교술 갈래로서의 성격, 즉 당대의 역사나 현실, 세태 등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설명하는 특징이 신문의 특성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착안한 수업 방법입니다.

우선 학생들에게 광범위한 시기에 창작된 가사 작품 중에서 자신들의 관심사에 따라 주제와 작품을 선정하게 했습니다. 작품 선정 과정이나 가사 해석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는 교과서에서 학습한 작품을 추천해 주거나 빈칸을 뚫은 현대어 풀이 학습지를 제공하고, 어려운 단어의 뜻이나 어구의 해석 방법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은 신문에 다양한 사료를 제시하기도 하고, 작품 화자와의 가상 인터뷰를 통해 역사적 배경을 소개하기도 하는 등 기대 이상의 결과물을 보여 주었습니다. 내용별 대표 작품을 미리 간단히 소개하거나, 수업 시간에 다양한 가사 작품을 다룬 후에 신문을 제작한다면 더욱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 질문에는 이렇게!

Q 시조와 가사의 향유층이 동일한데 왜 두 가지 갈래가 모두 발달했나요?

A 사대부들은 평시조나 연시조로는 담아낼 수 없는 자신들의 정서를 좀 더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해 장형 시가를 필요로 했습니다. 가사의 형식적 요건에 따라 작품을 길게 써 내려가며 시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다가 시조의 종장처럼 마무리하여 정격 가사를 창작해 낸 것입니다. 가사는 조선 건국 이후 안정을 찾은 사대부들이 자신들의 경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 낸 새로운 문학 양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사와 시조 모두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운문 문학으로 작품의 길이 외에는 향유 계층도, 작품의 제재와 주제도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갈래가 함께 발달한 이유를 두 갈래의 형식상 차이인 '장형화'에 초점을 두어 설명해 주었고, SNS에 글을 올릴 때도 짧은 해시태그만 활용한 글, 자신의 감정을 담은 긴 글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비유적으로 부연하니 설명이 명쾌해지면서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였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한국가사문학관 누리집(www.gasa.go.kr)

한국가사문학관 누리집에는 가사 문학에 대한 설명부터 교과서 수록 가사, 해제본, 미해제본, 가사 연표, 전자책, 영상 및 음성 자료 등 가사 문학 관련 문화유산이 게재되어 있어 수행 평가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 김해임호고등학교 조혜영 선생님

고대 가요

古代歌謠

연관 원시 종합 예술

수업 고민 이렇게 해결해요!

수업 고민

고대 시가를 재미없고 어렵게 여기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런 학생들의 선입견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해결 방안

- 작품이 만들어진 시대 현실과 역사적 맥락을 충분히 이해시키기
-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입장에서 작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창작해 보기

고대 가요는 고대부터 삼국 시대 초기 즉 향가가 나오기 전까지의 노래를 일컫는 말로, 고전 시가의 초기 형식이다. 시와 노래, 무용 등이 합쳐진 원시 종합 예술이며 집단적 서사시에서 개인적 서정시 성격으로 발전한다. 구전되어 내려오다가 『삼국사기』, 『삼국유사』, 『악학궤범』 등에 한역으로 수록되어 각각의 배경 설화와 함께 전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가야국 초기의 아홉 추장인 구간과 그 백성들이 불렀다고 전해지는 「구지가」, 백수광부(白首狂夫) 아내가 부른 것으로 알려진 「공무도화가」, 유리왕의 「활조가」, 어느 행상인의 아내가 불렀다고 알려진 「정읍사」 등이 있다.

고전 문학이라고 하면 이해하기 어렵고 재미없다는 선입견을 갖는 학생이 많습니다. 이러한 선입견을 깨려면 우선, 학습 과정이 즐거워야 하고, 작품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품이 만들어진 시대에 대한 올바른 배경지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대 사람들의 정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재창작하며 작품 해석의 다양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활동도 의미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작품이 만들어진 시대의 특징에 대해 학생들이 미리 학습할 수 있도록 과제를 제시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구지가」를 공부한다면 가야의 건국 신화를 조사하게 하며 작품이 갖는 주술성에 대해 이해하게 합니다. 또한 신라 시대의 가요 「해가」를 통해 특정한 내용과 형식이 구전되어 왔다는 점과, 그러한 특징을 토대로 김선좌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구지가」, tvN에서 방영한 드라마 「구미호전1938」 1화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현대와 맞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줍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배경 설화의 내용이나 구조 등을 노래 또는 랩 형태로 현대적으로 변형해 보게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고대 가요를 깊이 이해하고 고대 가요에 담긴 인간의 정서가 어떻게 이어져 내려오고 다양하게 해석·변형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 어때요?

활동 내용

작품을 현대적으로 변형하여 영상 만들어 보기

활동 방법

- 고대 가요 「공무도하가」, 「황조가」, 「정음사」 학습하기
- 고대 가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다양한 사례 보여 주기
- 모둠별로 작품을 정하고, 배경 설정과 작품의 내용을 재해석하여 가사 만들기
- 가사에 어울리는 영상 제작하기

고대 가요를 학습한 후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창작해 보는 활동입니다. 작품 속에 나타나는 정서가 현대의 매체에서 다루어지는 방식을 살펴보고, 학생들이 고대 가요에 담긴 정서에 자신의 정서를 더해 영상 매체로 표현해 보게 합니다.

예를 들어 고구려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바람의 나라」와 그 OST 중 「황조가」, 가수 이상은의 「공무도하가」, 김훈의 소설 『공무도하』, 진모영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등을 통해서 고대 가요의 어떤 내용이 어떻게 변주되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었는지 함께 이야기해 봅니다. 이후 모둠별로 작품을 정하고, 배경 설정과 작품의 내용을 재해석하여 가사를 만듭니다. 그다음에는 표현하려는 의도와 의미가 잘 드러나게 스토리보드를 꼼꼼히 작성하게 하고, 영상 제작 과정 전체를 확인하며 평가합니다.

학생 질문에는 이렇게!

- Q** 고대에는 문자가 없었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 작품들을 배울 수 있나요?

A 고대에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고대 가요는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면서 춤과 이야기를 함께 즐기는 원시 종합 예술의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이렇게 구전되어 내려오던 것을 후대에 이르러 한자를 이용해 기록했고, 다시 국문으로 해석하여 배우는 것입니다.

문자가 없던 시기의 작품을 공부할 때 학생들이 곤란하는 질문입니다. 이때 구비 문학의 특징을 함께 학습하며,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 적는 향찰과 이두 등을 사용하게 된 배경과 그 표기법도 설명해 주면 좋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문학 교육을 위한 고전 시가 작품론』(염은열 외,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고대 가요부터 향가, 고려 가요, 악장, 시조 등의 고전 시가 원문과 쉽게 풀어 쓴 해석이 수록된 개론서입니다.

❖ 인천중학교 박진영 선생님

문체

文體

연관 글체

글에서 작가의 개성이 드러나는 문장의 특색을 문체라고 한다. 글투, 스타일이라고도 한다. 문장의 길이, 단어 선택, 수식의 사용 방법 등 문체를 이루는 요소는 다양하며, 작가 개인의 개성뿐만 아니라 작품의 장르나 시공간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문장의 수사적 특징에 따라 문체는 다음과 같은 종류로 나뉜다.

- 만연체(蔓衍體): 길이가 긴 문장을 주로 사용하여 반복, 부연 설명하여 자세하게 표현한다.
- 간결체(簡潔體): 길이가 짧은 문장을 주로 사용하여 내용을 깔끔하고 간명하게 표현한다.
- 우유체(優柔體): 부드럽고 온화하게 느껴지는 문장을 사용하여 우아한 느낌을 준다.
- 강건체(剛健體): 굳세고 정열적이며 호소력이 느껴지는 문체로, 강하고 장중한 느낌을 준다.
- 화려체(華麗體): 아름답게 꾸민 말과 리듬, 색채 등이 나타나며, 다양한 비유와 수식어를 사용하여 화려한 느낌을 준다.
- 건조체(乾燥體): 꾸미는 말 없이 전달할 내용만을 충실하게 쓴 문장으로 설명문, 기사문에서 많이 쓰인다.
- 문어체(文語體): 일상 대화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고 글의 문장에서 주로 쓰이는 어투의 문체이다.
- 구어체(口語體): 일상 대화에서 쓰이는 말투를 옮겨 와 담화 형식 그대로를 글의 문장으로 표현하는 문체이다.

수업 고민 이렇게 해결해요!

수업 고민

학생들이 문체의 특징을 배워도 실제 작품에서 어떤 문체가 사용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해결 방안

- 다양한 작품을 접하며 문체의 양상 파악하기
- 특정 작가의 개성적 문체가 잘 드러난 작품 읽기

문체는 글의 분위기와 개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내용 및 주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에 문체를 주제, 구성과 함께 소설의 3요소로 들고, 작가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장르인 수필을 공부할 때도 문체의 특징에 주목하는 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실제 작품에서 문체를 분별해 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체라고 명명하기보다는 문체의 특성이 잘 나타난 제재를 비교하며 글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돕고, 특정 작가의 문체가 잘 드러난 작품들을 비교하며 읽고 문장과 글의 느낌을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이런 활동 어때요?

활동 내용

다양한 문체로 짧은 글 쓰기

활동 방법

- ① 문체의 종류와 특징 학습하기
- ②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모둠원들이 다양한 문체로 짧은 글 쓰기
- ③ 모둠별로 발표하기
- ④ 같은 상황이 문체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느껴지는지 비교하기

우선 학생들이 글쓰기 자체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해 줍니다. 예를 들면 ‘보름달이 뜬 늦은 밤 기말고사 준비로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 ‘눈 내리는 설날 연휴에 기차를 타고 시골 할머니 댁으로 가는 상황’, ‘언니 옷을 몰래 입고 외출하려다 엘리베이터 1층에서 언니와 마주쳐 도망가는 상황’ 등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모둠별로 고르게 합니다. 그리고 모둠원들은 자신들이 고른 같은 상황에 대해 만연체-간결체, 우유체-강건체 등 대비를 이루는 문체로 각자 글을 씁니다. 이후 문체에 따라 비슷한 상황이 어떻게 다르게 표현되었는지 서로 발표하고 비교해 봅니다. 창작자의 입장에서 문체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활용하여 직접 글을 써 보면 문체의 효과와 기능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학생 질문에는 이렇게!

- Q** 이어진문장이 몇 줄 이상이 되어야 만연체라고 하고, 몇 글자 이하의 문장이어야 간결체라고 하나요?

A 만연체와 간결체를 구분하는 문장 길이나 글자 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만연체의 긴 문장은 대여섯 줄 또는 열 줄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한 문장만 보고 문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글을 이루고 있는 문장의 전체적인 특징을 살펴봐야 합니다.

❖ 안전중학교 박진영 선생님

민요

民謠

연관 속요

수업 고민 이렇게 해결해요!

수업 고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민요 수업 방식은 무엇일까요?

해결 방안

- 선후창 방식으로 함께 노래 불러 보기
- 노동요를 함께 부르며 일의 능률을 높이는 경험을 통해 민요의 기능 체험해 보기

이런 활동 어때요?

활동 내용

민요 뮤직비디오 만들기

활동 방법

- 1 현대식으로 변형된 민요로 동기 유발하기
- 2 민요 작품 설명하기
- 3 모듈별로 민요 재창작 후 뮤직비디오 제작하기
- 4 민요 뮤직비디오 상영회 열기

민요는 민중의 노래라는 뜻으로 민중들의 생활상과 체험, 정서를 담아 구전되는 노래를 말한다. 민요는 기능에 따라 노동요, 유희요, 의식요로 구분된다. 노동요는 노동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부르는 노래로 「방아 타령」, 「논매기 노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유희요는 놀이를 하면서 부르는 노래로 대표적인 예로 「강강술래」가 있다. 의식요는 제사 또는 종교 의식에서 부르는 노래로 「성주풀이 노래」, 「지신밟기 노래」 등이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요는 「아리랑」으로, 「정선 아리랑」, 「진도 아리랑」, 「밀양 아리랑」이 우리나라 3대 아리랑으로 손꼽힌다. 아리랑은 후렴구에 '아리랑'이나 '아리리' 같은 공통적 구절을 보여 주지만 한반도의 여러 지역에서 각기 다른 곡조와 가사로 발전하였으며, 약 60여 종의 아리랑이 전승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민요를 멀게 느끼는 학생들에게는 민요를 직접 불러 보고 그 기능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선창과 후창으로 이루어진 민요인 「옹헤야」를 메기는 소리와 받는 소리 두 파트로 나누어 학생들이 직접 불러 보게 합니다. '(선창자) 어절씨구, (후창자) 옹헤야 / (선창자) 잘도 한다, (후창자) 옹헤야'와 같이 민요를 함께 부르며 즉흥적으로 가사를 추가해 보기도 하면서 민요의 변형을 체험해 봅니다.

또는 우리 선조들은 「옹헤야」를 부르며 보리타작을 했다고 설명하면서 학급 청소 때 「옹헤야」를 불러 보자고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민요를 부르면 재미있게 일할 수 있으며 일의 능률도 높일 수 있음을 깨닫고 민요를 친근하게 느끼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민요 수업에서는 민요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요에 대한 시청각 자료 제시만으로는 대중가요에 익숙한 학생들의 흥미를 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스카이 하이의 「아리랑 애가」처럼 민요를 현대식으로 변형한 노래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리랑 애가」는 민요인 「아리랑」을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노래로, 랩과 드럼, 기타, 건반 등의 현대 서양 악기를 활용하기에 학생들이 흔히 듣는 대중가요 느낌이 물씬 나는 노래입니다. 이러한 노래를 통해 학생들이 민요를 보

다 친숙하게 느끼게 할 수 있으며,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후 민요에 대한 배경지식과 이론 학습, 대표 작품 감상을 진행한 후 모둠별로 민요를 현대식으로 재창작하도록 지도합니다. 요즘 유행하거나 학생들이 좋아하는 대중가요의 멜로디에 학습한 민요를 현대어로 번역하거나 학생들의 생활이나 고민을 담은 가사로 개사하여 뮤직비디오로 제작하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음구 등 해당 민요 작품의 핵심 특징은 유지할 수 있게 안내합니다. 뮤직비디오 제작이 끝나면 상영회를 열어 모둠별로 재창작한 민요 영상을 공유하며 서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수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학생 질문에는 이렇게!

Q 민요는 노래인데 왜 국어 시간에도 배우나요?

A 민요 가사에는 풍부한 시적 표현과 비유적 표현, 우리 선조들의 익살과 재치 등 다양한 문학적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지역의 지리적·문화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문화유산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민요는 음악 시간뿐만 아니라 국어 시간에도 귀한 학습 자료로 사용됩니다.

다소 엉뚱하고 짓궂은 질문이지만, 민요 수업의 목적 의식을 재점검해 보는 계기가 된 질문이었습니다. 더불어 민요가 단지 노래인 것만이 아니라 문학적·사회 문화적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알려 줌으로써 민요를 공부하는 이유를 납득시키고 학습 동기를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리랑 애가」(스카이 하이, 프리뷰, 2009)

민요 「아리랑」을 현대식으로 재창작한 노래입니다. 민요 수업을 시작할 때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또한 민요 개사 활동을 할 때 예시 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영원중학교 유주신 선생님

복선

伏線

연관 소설, 희곡

수업 고민 이렇게 해결해요!

수업 고민

학생들이 작품 속에서 스스로 복선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요

해결 방안

- 모듈별로 복선이 사용된 영화나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작품에서 복선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밑줄 그으며 읽은 후 모듈 원거리 비교하기

이런 활동 어때요?

활동 내용

영화를 통해 복선 파악하기

복선이란, 소설이나 희곡, 시나리오 등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독자에게 암시하는 것을 말한다. 복선을 제시하는 방법은 등장인물의 말, 시·공간적 배경 등의 분위기, 특정 소재 등으로 다양하다. 가령 이효석의 단편 소설 「메밀꽃 필 무렵」에서 모친의 친정이 봉평이라는 동이의 말은 동이가 허 생원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암시하며 복선의 기능을 한다. 또 다른 예로 현진건의 단편 소설 「운수 좋은 날」에서 작품의 시작부터 끝까지 추적추적 내리는 겨울비는 소설의 결말이 비극적일 것임을 암시하는 복선으로 볼 수 있다.

학생들이 복선의 개념을 쉽게 이해하지만 막상 작품에 서는 찾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 활동을 계획했습니다. 우선 모듈별로 자신이 보았던 영화, 드라마 중 기억에 남는 복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했습니다. 반드시 모든 모듈원이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으며, 한두 명의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면 다른 아이들은 경청하면서 복선이 어떤 방식으로 제시되는지 이해하게 했습니다. 교사가 최근에 인기 있었던 드라마나 영화 중에 복선이 사용된 작품의 제목을 제시해 주거나 복선이 사용된 사례를 들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후 모듈원끼리 이야기 나눈 내용을 패들렛 등을 통해 전체 학생들에게 공유하여 복선을 제시하는 방법이 다양함을 살펴보게 합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작품을 읽으며 복선이라고 생각한 부분에 밑줄을 긋도록 한 뒤 모듈원들과 밑줄의 내용을 비교해 보게 했습니다. 복선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소한 것들까지 밑줄을 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모듈원과의 대화를 통해 이를 분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활동은 모든 수행·지필 평가가 끝나고 방학을 하기 전,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자 할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영화를 보기 전 아이들에게 다양한 복선의 사례들을 보여 주며 복선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

활동 방법

- ① 여러 영화와 소설의 일부분을 보며 복선의 개념 파악하기
- ② 복선이 담긴 영화 한 편을 보고 찾아낸 내용 공유하기

학생 질문에는 이렇게!

- Q 책을 읽으면서 복선을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요. 제가 감상 능력이 부족한 걸까요?

다. 예를 들어 황순원의 단편 소설 「소나기」에서 나타난 복선과 그 의미에 대해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다음으로는 복선이 제시된 영화 한 편을 골라 아이들과 감상합니다. 저는 모듬별로 앉아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을 보며 복선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모듬 활동지에 적어 보게 하고, 감상이 끝난 뒤 모듬원과 토의를 통해 복선이라고 생각하는 요소 3가지를 추리게 했습니다. 모듬별로 추린 복선의 요소를 모아 놓으니 꽤 많은 요소가 나열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제시한 내용을 들으며 감탄하기도 하고, 복선인지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등 재미있는 학기 말 활동이 되었습니다.

A 복선은 작가가 독자에게 일어날 사건이나 결말을 암시해 주는 장치로, 독자가 글을 읽으며 사건의 전개 방향이나 결말을 유추하는 재미를 느끼게 하는 요소입니다. 복선을 잘 파악하면 사건에 몰입할 수 있지만, 복선을 알아채지 못했다고 해서 감상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복선을 쉽게 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찾기 아주 어렵게 숨겨 둘 때도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영화에서는 마치 복선인 것처럼 관객을 속이지만 사실 아무런 기능도 하지 않는 장치인 ‘맥거핀’이라는 요소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복선은 작가가 의도적으로 숨겨 두는 장치여서 다른 문학 기법들과는 달리 학생들이 한 번에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영화에서는 복선이 제시될 때 음악이나 카메라 기법 등으로 효과를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먼저 복선이 제시된 영화를 보며 이를 파악하는 연습을 한 뒤 소설을 읽으며 복선을 찾아보라고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 용인중학교 홍유진 선생님

비유

比喩

연관 상징

수업 고민 이렇게 해결해요!

수업 고민

비유 표현을 처음 설명할 때 어떤 점을 강조하는 게 좋을까요?

해결 방안

- 학생들에게 낯선 용어를 풀어서 설명해 주기
- 원관념과 보조 관념이 명확한 직유법, 은유법 위주로 예를 들고, 학생들에게 친숙한 대중가요의 가사 분석해 주기

표현하려는 대상인 원관념을 다른 대상인 보조 관념에 빗대어 나타내는 표현 방법을 비유라 한다. 비유 표현이 성립하려면 원관념과 보조 관념 간에 공통점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서 원관념은 '고양이의 털'이고 보조 관념은 '꽃가루'이며, 둘 사이에는 '부드럽다'는 공통점이 있기에 비유 표현이 성립한다. 비유 표현의 세부적인 유형에는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등이 있다. 비유를 사용하면 작가의 의도에 따라 대상이나 생각 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여 독자에게 더 깊은 인상을 남기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수업에서 비유 표현을 가르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원관념, 보조 관념,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등의 용어가 학생들에게 낯설다는 것입니다. 보통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게 되는 내용이라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용어의 한자 뜻(比喩 견줄 비, 깨우칠 유)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됩니다. 용어 풀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학생들이 비유 표현을 학습해 가는 과정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해 보이더라도 한 번 제대로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어려운 점은 비유 표현을 설명할 때 학생들에게 각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찾은 해결 방안은 본격적으로 시 작품을 감상하기 전에 직유법과 은유법이 사용된 대중가요의 가사를 분석해 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노래를 듣고 비유 표현을 찾는 데서 그치지 않고, 비유 표현의 원관념과 보조 관념을 분석해 주고 이를 통해 전달하려는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줍니다. 이처럼 시 문학과 대중가요는 연결되는 지점이 많기에 수업에 활용하면 유용합니다. 덧붙여 비유 표현이 사용된 대중가요를 추천받아 같이 듣자고 하면, 학생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런 활동 어때요?

활동 내용

비유로 자신을 표현하기

활동 방법

- 1 자신의 특성 나열하기
 - 친구, 가족, 선생님의 평소 피드백 확인하기
 - 자신에 대한 질문 일기에 답변하기
- 2 자신의 특성 중에 1~2개와 공통점이 있는 대상 찾기
- 3 비유 표현을 적용하여 문장 완성하기

저는 청소년기 아이들이 자아 개념을 확립해 나가는 것을 중시합니다. '나'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자아 개념이 올바르게 형성되어야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과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유 표현을 학습하는 과정도 학생들이 '나'에 대해 알아가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의도를 토대로 수업을 설계한 후, 먼저 학생들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나'의 특성 10가지를 나열해 보게 했습니다. 자아 개념은 자신에 대한 타인의 피드백으로도 형성되므로 특성을 적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에게는 평소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에게 '너는 이렇다'라고 들은 것을 적으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자신에 대해 깊게 고민해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이 과정은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립니다. 머리를 쥐어짜다가 저에게까지 "선생님 저 어때요?" 하고 질문하는 학생도 있는데, 그럴 경우는 평소 그 학생의 장점을 칭찬해 줄 좋은 기회로 삼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특성 10가지를 모두 쓰고 나면, 그 중에서 1~2개와 공통점이 있는 대상을 찾게 했습니다. 이때 교사 스스로가 자신의 특성과 공통점이 있는 대상을 예로 들어 주면 학생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제 특성을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다.'라고 언급한 후, 저를 '고슴도치'에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이런 설명이 선행되면 학생들이 비교적 쉽게 비유 표현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 수업은 비유 표현을 직접 만들어 보며 개념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고, 학생들이 지닌 자아상과 주변 환경, 인간 관계 양상 등을 엿볼 수 있어 학생들의 생활 지도에도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이등중학교 최백경 선생님

상징

象徴

연관 비유

추상적인 사물, 관념 또는 사상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것 혹은 그 사물을 상징이라 한다. 상징에는 원형적 상징, 관습적 상징, 개인적 상징이 있다. 원형적 상징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되풀이되며 이어져 온 보편적 상징이며, 시대를 초월한 반복성과 동일성을 지닌다는 특징이 있다. 물이 생명 혹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 불이 죽음이나 파괴 등을 상징하는 것이 원형적 상징의 예라고 할 수 있다. 관습적 상징은 일정한 문화권에서 오래 쓰인 결과 보편적 의미를 가지게 된 상징을 의미한다.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하고 소나무가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개인적 상징은 개인에 의해 만들어진 상징으로, 특정 작가나 작품에서만 드러나는 특수한 의미 관계를 나타낸다. 김춘수의 시 「꽃」에서 「꽃」이 의미 있는 대상을 상징하는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상징은 원관념과 보조 관념이 多:1의 관계를 갖는다. 원관념과 보조 관념이 표면에 드러나 1:1의 의미 관계를 맺는 비유와 달리, 상징은 하나의 보조 관념이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뜻이다.

수업 고민 이렇게 해결해요!

수업 고민

상징과 비유를 구분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해결 방안

- 예시를 활용하여 상징과 비유 구분하기
- 상징과 비유를 구분하기보다는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에 집중하기

이런 활동 어때요?

활동 내용

작품에 대한 감상을 상징으로 표현하기(음악·미술+국어)

활동 방법

- 1 작품 감상하기(음악 혹은 미술 작품)
- 2 감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상징물 떠올리기
- 3 상징을 사용하여 시 쓰기

상징에 관한 수업을 하고 나면 꼭 상징과 비유를 구분하지 못하겠다는 질문이 쏟아집니다. 그럴 때는 먼저 예를 활용하여 상징과 비유의 차이를 설명해 줍니다. 원관념과 보조 관념이 1:1로 대응되는 비유와 달리, 상징은 多:1의 의미 관계를 가지며 원관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알려 주고, 예시를 충분히 보여 주면 학생들이 두 개념을 잘 구분합니다.

또한 비유와 상징은 작가가 전달하려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 방법이므로 두 개념의 구분보다는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도합니다.

표현 방법과 관련된 수업을 할 때에는 비유나 상징 등을 사용하여 시를 써 보도록 지도하는데, 학생들은 전달하고자 하는 추상적인 개념이나 사상을 떠올리고 선택하는 일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럴 때에는 미술 또는 음악 작품을 제시하고 그것을 접하며 느낀 추상적인 감정들을 활용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느낀 바를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상징물을 떠올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게 합니다. 상징을 떠올리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에

④ 친구들과 돌려 읽고 참신성 평가하기

계는 이미지 카드를 마중물로 제시하여 도움을 줍니다. 여러 과정을 거쳐 자신의 감상을 가장 잘 드러내는 상징물을 선택하고, 이를 활용하여 짧은 시를 창작합니다. 창작한 시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돌려 읽으며 의미를 찾아보고, 해당 상징물의 참신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미술이나 음악 작품을 활용하기 때문에 해당 교과 선생님들과 협의하여 융합 수업으로 진행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 청량고등학교 조순정 선생님

서사

敘事

연관 내러티브

서사(敘事 차례 서, 일 사)를 한자의 의미 그대로 해석하면 사건이나 사실을 순서대로 펼쳐 놓는 것을 뜻한다. 즉 서술자가 사건의 전개 과정을 진술하고 전달하는 것으로, '이야기'라고 이해하면 쉽다. 문학에서 서사는 서술자가 사건의 전개 과정을 개연성 있게 전달하는 갈래로서 인물, 사건, 배경을 찾을 수 있고, 갈등 위주로 사건이 전개되며,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서정이 감정이나 정서에 집중하여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서사는 인물, 사건의 흐름, 배경에 집중하고 그것을 표현한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문학의 대표적 갈래는 소설이다. 요즘에는 영화, 드라마, 웹툰, 웹소설 등의 사건 전개를 평가할 때 '서사가 좋다' 혹은 '좋지 않다'라는 표현을 흔히 쓰는데, 이때의 서사는 정해진 시·공간 내에서 인과 관계로 이어지는 허구나 실제 사건들의 연속으로 '내러티브(narrative)'라고도 한다.

문학 외의 독서 영역에서도 설명 방법의 하나로 서사가 사용된다. 이때 활용되는 서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상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시간의 흐름을 중시하는 동태적 전개 방법에 해당한다.

수업 고민 이렇게 해결해요!

수업 고민

학생들에게 서정과 서사의 차이점을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좋을까요?

해결 방안

- 서사성이 드러나 있는 시에서 인물·사건·배경 찾기
- 서정시, 서사시의 예시에서 서정적 요소와 서사적 요소를 각각 찾고 공유하기

제 경험에 따르면 학생들이 서사라는 말 자체를 어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서술한다고 하면 소설 장르를 떠올릴 수 있고, 정서를 나타낸다고 하면 시를 떠올릴 수 있어서 서정 갈래와 서사 갈래를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시 수업을 진행하면서 시의 성격으로 '서사성'이 제시되었을 때,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시는 서정 갈래인데 왜 서사적 성격을 갖는지, 그러면 이 시는 서정 갈래가 아닌 것인지 물으며 혼란스러워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백석의 「고향」이나 김동환의 「국경의 밤」 같은 서사적 특성을 지닌 시를 보여 주고, 시에 나타나는 인물의 말과 행동, 사건, 시·공간적 배경을 직접 찾아보게 하면 좋습니다. 시에서 인물, 사건, 배경과 같은 서사적 요소를 찾아보게 하면 시에서 나타나는 서사성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에 나타난 이야기적 요소를 통해 시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특정한 정서라는 것을 알려 줌으로써, 시가 기본적으로 정서를 표현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서정 갈래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 어때요?

활동 내용

모둠 책 대화 나누기

활동 방법

- 1 모둠별로 3~4차시 동안 같은 소설 읽기
- 2 차시마다 인상 깊은 구절이나 중요한 내용을 메모하며 읽기
- 3 인물, 사건, 배경 등을 마인드맵으로 정리한 후 요약하기
- 4 간단한 질문부터 창의적인 질문까지 소설에 대한 다양한 질문 만들기
- 5 모둠 활동지를 통해 인상 깊은 부분, 자신이 정리한 소설의 전개 과정, 생각해 볼 만한 질문 등을 공유하기

저는 독서 교육 예산을 활용하여 같은 책을 여러 권 구매해 모둠원 3~4명이 같은 책을 읽고 모둠 안에서 대화를 나누는 활동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우선 설문 조사를 통해 5~6종류의 지정된 책 중에서 학생들이 읽고 싶은 책을 3지망까지 조사했고, 이를 바탕으로 대화를 나누기 적절한 인원인 3~4명으로 모둠을 구성했습니다. 이후 3~4차시 동안 지정된 책을 읽게 했고, 개별 독서 기록 활동지를 통해 간단한 내용을 메모함으로써 스스로 서사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단계별로 질문을 만들어 해당 작품을 심층적으로 탐구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학생들마다 읽는 속도가 다르므로 가급적 모두가 작품을 제대로 읽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차시를 할애하였고, 그럼에도 시간이 부족한 학생에게는 쉬는 시간, 점심시간, 방과 후에 읽을 것을 권했습니다. 인상 깊었던 점은 학생들이 읽는 작품을 흥미롭게 여겨서, 스포일러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친구들이 이미 읽은 부분의 내용을 묻지 않고 스스로 책을 끝까지 읽은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인상 깊은 구절이나 중요한 내용 메모, 소설 전개에 대한 요약과 정리, 다양한 층위의 질문 만들기 등의 개별 활동이 끝났다면, 같은 책을 읽었던 모둠원들끼리 모여서 읽은 작품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별 활동의 내용을 공유하고, 자신들이 만든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이야기 전개에서 마음에 들었던 부분,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부분, 인물의 캐릭터성에 대한 분석 등 작품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면서 교실이 떠들썩해질 만큼 활발하게 독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서 대화에 대한 감상평을 적어 보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활동이 재미있으며 비슷한 활동을 또 해 보고 싶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 밖에도 자신이 생각한 것과 다른 생각을 접할 수 있어서 좋았으며, 자신은 생각지도 못한 기상천외한 질문들이 나와 신기했다는 의견, 관점을 넓힐 수 있어 도움이 되었다는 감상 등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와 뿌듯함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활동은 서사 갈래, 특히 소설에

대한 흥미를 둘 수 있고, 스스로 이야기를 파악하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활동이 될 것입니다.

학생 질문에는 이렇게!

Q 문학 시간에 배우는 '서사'와 독서 시간에 배우는 '서사'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A 쓰임이 조금 다르지만 기본적인 의미는 같습니다. 둘 다 사건이나 상황을 서술하는 것을 말하는데, 문학에서는 서술자가 전달하는 이야기의 전개에 서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독서 영역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상황의 전개에 서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서사는 문학에서는 갈래 또는 갈래가 갖는 특징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독서 영역에서는 설명 방법으로 쓰입니다. 물론 각각의 영역에서 쓰임이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서사는 사건을 일정 흐름에 따라 서술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개념이라고 설명합니다.

❖ **항동중학교 주다연 선생님**

서사시

敘事詩

연관 극시

서사시는 주로 영웅적 인물의 행적이나 국가나 민족 등 특정 집단의 역사적 사건, 신화, 전설 등을 서술한 시로서 분량이 매우 긴 편이다. 여러 인물이 등장하여 일련의 사건을 겪는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되지만, 서사시 또한 서정 갈래의 하나로 함축성을 지닌 시적인 언어로 쓰인다.

수업 고민 이렇게 해결해요!

수업 고민

서사시 수업은 줄거리 파악에 중점을 두어야 할까요, 갈래상 특징을 알려 주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까요?

해결 방안

- 작품에 나타난 인물, 사건, 배경 파악하기
- 작품에 드러난 분위기와 정서 파악하기

서사시는 비교적 짧은 편인 서정시와 달리 이야기가 있기에 아이들도 시라고 느끼기보다는 한 편의 소설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교 수업에서는 문학적 기법보다 감상에 초점을 두고 수업을 하는 편이 나올 것 같아 우선 작품의 인물, 사건, 배경 파악을 주축으로 하는 작품 이해 및 감상을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했습니다. 이후 작품을 읽고 느낀 점을 공유해 보게 했더니 소설 같다는 반응보다는 인물의 정서와 분위기 묘사에 관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나아가도 아이들이 소설과 서사시가 무언가 다르다고 느낄 수 있어 고등학교 수준의 수업으로서는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김동환의 「국경의 밤」에는 남편을 걱정하는 ‘순이’의 심리와 일제 강점기라는 어두운 현실이 감탄사나 의성어 등 다양한 문학적 장치들을 통해 효과적으로 드러납니다. 사건의 전말을 전달하고자 하는 소설과는 달리 인물의 감정에 초점을 두는 것이 시이며, 서사시 또한 이러한 갈래적이라는 특성을 갖는다는 것을 체득하기만 해도 아이들에게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활동 어때요?

활동 내용

역사과와 융합 수업하기

현기영의 「순이 삼촌」을 읽다가 제주 4·3 사건을 다룬 문학 작품에 관심이 생겨 찾아보던 중에 이산하의 「한라산」이라는 서사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시의 형식을 빌려 무서운 진실을 우회적이고 함축적으로 드러낸 이 작품

활동 방법

- ❶ 이산하의 「한라산」에 나타난 사건과 인물의 감정 정리하기
- ❷ 작품의 배경이 된 제주 4·3 사건과 관련된 자료 조사하기
- ❸ 탐구 보고서 작성하고 발표하기

은 단순히 서사시로서의 가치뿐 아니라 역사 기록물로서도 의미 있는 자료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역사과와의 융합 수업을 기획했습니다.

역사 선생님과 협의한 후, 먼저 국어 시간을 활용해 모둠별로 이산하의 「한라산」에 나타난 사건을 작품의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고, 작품에 나타난 인물의 정서와 감정 등을 파악하게 했습니다. 이후 모둠 과제로 작품의 배경이 된 제주 4·3 사건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후 역사 수업 시간을 활용해 각 모둠의 보고서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역사 선생님께서 「한라산」에서 다루는 사건과 당시의 구체적 정황, 사건의 배경과 역사적 의미 등을 설명하면서 수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역사과와 융합 수업을 진행하면서 객관적 사료와 주관적 정서가 잘 드러난 문학 작품을 함께 활용하면 역사적 사건의 실상과 비극성 등을 전달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임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서사시의 창작 목적을 보다 확실히 체감하게 하여 국어과의 목적 또한 훌륭히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 질문에는 이렇게!

- Q 산문시와 서사시는 같은 건가요?

A 산문시는 형식적으로 줄글 형태로 되어 있는 시이고, 서사시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서사적인 전제가 있는 시를 가리킵니다. 둘을 구분하는 기준이 다르므로 둘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는 산문시이지만 서사시는 아닙니다.

❖ 광주인성고등학교 김선우 선생님

서술자

敘述者

연관 말하는 이, 보는 이

서술자는 소설 속에서 독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인물, 즉 말하는 이(또는 보는 이)를 의미한다. 작가는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거나 작품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가상의 서술자를 설정하여 사건을 전개한다. 소설가 김유정은 「동백꽃」에서 어수룩한 ‘나’를 서술자로 설정하여 해학적 웃음을 자아내고, 소설가 주요섭은 「사랑손님과 어머니」에서 두 인물의 사랑을 순수하게 그리기 위해 여섯 살 난 딸 옥희를 서술자로 내세운다.

한편 서술자의 위치, 서술자가 말하는 방식 등에 따라 시점이 달라지는데 서술자가 작품 속에 있으면 1인칭 시점, 작품 밖에 있으면 3인칭 시점에 해당한다. 1인칭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과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나뉜다. 서술자가 작품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면 1인칭 주인공 시점, 작품 속 부수적 인물로서 주인공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여 서술하면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분류한다. 3인칭 시점은 3인칭 관찰자 시점(작가 관찰자 시점)과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나뉜다. 작품 밖의 서술자가 소설의 사건 혹은 등장인물의 행동을 관찰하여 서술하면 3인칭 관찰자 시점, 작품 밖의 서술자가 전지전능한 신처럼 등장인물의 속마음을 훤히 들여다보듯 서술하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수업 고민 이렇게 해결해요!

수업 고민

서술자를 바꾸어 작품을 재구성하는 활동을 하고 싶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부담이 됩니다.

해결 방안

서술자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한 장면 위주로 바꾸어 쓰기

문학 작품 재구성 단원을 수업할 때 시간 부담이 적은 ‘화자 바꾸어 시 재구성하기’ 위주로 활동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활동은 시 위주로 구성하고 ‘서술자 바꾸어 소설 재구성하기’는 이미 패러디가 된 예시 작품들과 원 작품을 비교만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긴 분량 전체를 대상으로 서술자 바꾸기 활동을 하면 서술자 설정이 작품의 분위기 형성이나 주제 의식 전달에 미치는 영향을 훨씬 더 깊이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소설은 분량 때문에 바꾸어 쓰는 데 너무 긴 시간이 소요되어 많은 차시를 할애하게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생들의 흥미도 떨어집니다.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께는 서술자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한 장면을 골라 해당 장면의 일부만 바꾸어 쓰는 활동을 추천합니다. 긴 내용을 다룰 때보다 시간적 부담도 줄어들고, 재구성한 결과물 역시 길이가 길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끼리 돌려 읽고 상호 평가하기도 훨씬 용이하며, 활동에 대한 다양한 감상을 나누기에도 적합합니다.

이런 활동 어때요?

활동 내용

소설을 읽고 인물의 관점에서 기사문 작성하기

활동 방법

- ❶ 모둠별로 소설 한 편을 골라 함께 읽기
- ❷ 작품 속 등장인물 나열하기
- ❸ 등장인물 중에 한 사람을 골라 그 인물의 입장에서 기사문 작성하기
- ❹ 각자 작성한 기사문을 신문 형태로 모으기
- ❺ 기사문 읽고 비교하기
- ❻ 다른 인물이 작품의 서술자가 된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지 이야기 나누기

해당 단원을 학습할 때 학생들이 서술자를 찾아내는 것 자체에는 큰 어려움을 보이지 않는데, 서술자를 원작과 다르게 설정할 때 생기는 원작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말로 설명하기 힘들어합니다. 어떤 활동을 하면 아이들이 서술자의 역할을 더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한 학기 한 권 읽기’ 성취 기준과 연계하여 독후 활동의 일환으로 기사문을 작성하는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모둠별로 읽고 싶은 소설을 한 편씩 골라 읽은 후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생각나는 대로 나열합니다. 나열한 후에는 협의를 통해 각자 등장인물 한 사람을 골라 그 인물의 입장에서 기사문을 작성합니다. 이후 각자 작성한 기사문들을 신문 형태로 모아서 합칩니다. 모둠원과 함께 기사문을 읽으면서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인물들의 관점 차이를 파악합니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관점을 가진 인물들이 작품의 서술자가 된다면 작품의 내용이나 주제 의식 등이 어떻게 달라질지 이야기를 나누며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모둠원이 각자 다른 인물을 선택하여 기사문을 작성하기 때문에 특정 인물 한 명의 관점이 아니라 다양한 인물의 관점을 비교하며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각 인물들이 서술자가 되었을 때 작품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 폭넓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만족스러운 활동이었습니다.

❖ 청량고등학교 조순정 선생님

서정시

抒情詩

연관 정서

시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함축적이고 운율이 있는 언어로 형상화한 운문 문학이다. 시의 갈래를 내용에 따라 분류할 때 시인의 주관적인 정서를 담은 시를 서정시라고 한다. 개인의 감정과 사상 등 내면 세계의 내용을 주로 담았다는 점에서 집단의 경험이나 역사적인 사건을 다룬 서사시와는 구분된다. 여기서 '서정(抒情 풀 서, 뜻 정)'이란 말 그대로 '감정을 풀어내다'라는 의미이므로, 서정시를 감상할 때는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시어를 찾거나 화자가 처한 상황을 통해 감정을 추측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현대시가 서정시에 해당하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서정시로는 고구려의 유리왕이 지었다고 알려진 「황조가」가 있다.

수업 고민 이렇게 해결해요!

수업 고민

학생들이 스스로 시를 해석하는 경험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 방안

- 교사 자신만의 시 해석 틀 만들기
-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해석해 보기
- 모둠 구성원과 함께 시를 해석해 보고 학급 전체에 공유하기

시를 감상할 때 교사가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알려 주면 학생들은 시와 처음 만나는 소중한 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교사는 시를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 줄 뿐, 시어의 의미를 처음부터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교사 자신만의 시 해석 틀을 만들어 보세요. 화자의 상황·정서·태도 등으로 틀을 나누고, 개별 작품마다 시어의 상징적·비유적 의미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활동지의 내용을 추가합니다. 처음부터 틀만 주고 작품을 해석하게 하면 학생들은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먼저 쉬운 시를 골라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해석해 본 후, 모둠을 나눠 학생들끼리 해석해 보게 합니다. 이때 교사는 모둠을 돌아다니며 학생들의 다양한 반응을 수용하되,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한 학생은 다른 학생의 의견을 참고하여 다시 생각해 보도록 지도합니다.

모둠 구성원 중에서 기록자와 발표자를 정하여 기록자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모둠 친구들이 해석한 내용을 입력하고, 발표자는 활동이 끝난 후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설명합니다(구글 스프레드시트는 입력 내용이 실시간으로 반영되므로 활동 결과를 학급 전체에 공유할 때 효율적인 도구입니다). 발표를 통해 모둠별 해석을 공유하며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고, 왜 해석이 같고 다른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은 교과서는 학생들의 해석을 따라올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반칠환의 「나를 멈추

게 하는 것들』이라는 시로 위 활동을 진행했을 때, 2행의 '제비'와 관련하여 학생들은 제비의 특성을 조사하여 계절적 배경을 봄이라고 추측하거나, 제비는 무리 지어 생활하는데 왜 한두 마리밖에 없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외로움을 떠올리기도 하고, '어쩌다'라는 시어를 통해 예상치 못한 뜻밖의 상황일 수도 있겠다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풍성한 학생들의 해석과 달리 교과서에서는 '제비'를 '작고 보잘것없지만 곳곳이 살아가는 사물'이라고 해석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활동 어때요?

활동 내용

- 화자의 입장이 되어 일기 쓰기, 화자의 감정을 담은 노래 가사 짓기
- 비주얼 싱킹 활동, 시의 내용과 감정을 몸짓으로 표현하기(몸으로 말해요)

활동 방법

- 1 모둠별 시 해석하기
- 2 모둠별 시 해석 결과 공유하기,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하기
- 3 제시된 활동 진행하기(활동 개수에 따라 1~2차시)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시와 소설 중 어떤 것이 더 좋으냐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 대부분이 소설을 골랐고, 시는 해석하기 어려우며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들만이 즐길 수 있는 갈래라고 여겼습니다. 시에 대한 무거운 생각들을 가볍게 해 주기 위해서라도 시와 관련된 활동은 무엇보다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어의 의미를 곱씹으며 스스로의 해석을 표현하도록 다음과 같이 활동을 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글을 쓰는 활동입니다. 화자의 입장이 되어 시 속에 담긴 내용을 일기 형식으로 자유롭게 표현해 봅니다. 학생들은 일기를 쓰면서 화자의 상황과 감정에 대해 분석하고 공감하며 구절의 의미를 스스로 재구성하게 됩니다. 신경림의 「가난한 사랑 노래」로 일기 쓰기 활동을 진행했을 때, '오늘은 눈이 많이 내렸고, 달빛은 지나치게 새파랬고, 너는 나를 떠났다.'와 같은 아름다운 문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간단하게 노래 가사로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골라 작품 속 화자의 상황과 감정을 반영하여 개사를 합니다. 학급에 활발한 성향의 친구가 있다면 개사한 노래를 불러 보게 하는 것도 흥미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그림을 그리거나 몸으로 표현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비주얼 싱킹(visual thinking)'이란 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체계화하는 방법인데, 글쓰기 자체를 꺼리는

학생들이 많은 학급에서 활용하기 좋습니다. 시의 연이나 행별로 떠오르는 심상을 표현하거나 시의 주제를 담아 재구성해 보게 합니다. 좀 더 새로운 활동을 원한다면 시의 내용과 감정을 몸으로 표현하는 모둠 활동도 추천합니다. 이육사의 「청포도」로 ‘몸으로 말해요’를 진행했는데, 학생들은 스스로 소품을 준비하여 각 연에서 화자가 처한 상황과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했습니다. 이를 촬영하여 한편의 시 영상을 만들게 한다면 더 많은 차시의 모둠 활동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생 질문에는 이렇게!

Q 서정시에서 화자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화자의 감정을 어떻게 파악해야 하나요?

A 시에 감정을 드러내는 단어가 쓰였다면 화자의 감정을 파악하기 쉽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때는 화자가 처한 상황을 파악한 후 내가 화자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상상해 보면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화자가 누군가를 계속 기다리는 상황이라면 ‘그리움, 애절함, 안타까움’ 등의 감정을 느낄 수 있겠지요.

❖ 신목중학교 배정인 선생님

수필

隨筆

연관 경수필, 중수필

수필은 글쓰기가 일상 속에서 경험했던 일이나 그러한 과정에서 느낀 정서, 사색을 통한 성찰 등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쓴 산문 문학의 한 갈래이다. 수필의 가장 큰 특징은 형식의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수필은 소설, 희곡 등과 마찬가지로 산문 문학에 해당하지만 갈래적 형식에 맞추어 써야 하는 소설이나 희곡과 달리 형식적 제약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이러한 자유로운 형식에는 소설과 같은 서사적 형식이나 희곡과 같은 극적 형식도 포함되며, 일기나 편지, 대화 형식도 포함된다. 따라서 일기, 편지, 기행문 등도 수필의 한 형식으로 볼 수 있다.

수필은 그 소재나 주제에도 제약이 없어 생활 속의 신변잡기에서부터 사회 문제, 과학, 철학, 종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다. 수필은 그 소재와 주제에 따라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이야기들을 글감으로 하는 경수필과 사회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는 중수필로 나눌 수 있다. 경수필은 대개 신변잡기적인 특성을 보이고 문장 또한 가벼우며, 글쓴이 개인의 감정과 정서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중수필은 철학적인 사고나 현실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고, 지적이거나 사색적인 내용을 이성적인 문체와 논리적인 표현을 통해 담아냄으로써 논문과 유사한 형식을 보여 주기도 한다.

수업 고민 이렇게 해결해요!

수업 고민

수필을 쓸 때 자신이 깨닫거나 느낀 바를 쓰는 것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해결 방안

감정 카드나 감정 목록 활용하기

수필을 쓸 때는 본인이 깨달은 점이나 느낀 점을 구체적이고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데, 학생들은 '좋았다, 힘들었다'와 같이 단순하게 표현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자신이 느낀 바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감정 카드나 감정 목록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좋다'라는 감정도 세분화하면 유쾌함, 뿌듯함, 감동 등으로 다양하게 나눌 수 있죠. 감정 카드나 감정 목록을 활용해서 학생이 자신의 감정을 세분화해 파악하고, 이를 통해 깨달은 점이나 느낀 점 또한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학생들이 훨씬 더 좋은 수필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 어때요?

활동 내용

갈등 경험에 대한 수필 쓰기

활동 방법

- 1 본인의 외적 혹은 내적 갈등 떠올리며 마인드맵 작성하기

수필을 가르칠 때 좋은 수필들을 다양하게 읽히는 것도 좋지만, 적어도 한 번은 꼭 학생이 직접 수필을 써 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자유 주제를 주어도 좋지만 문학 속 갈등 개념과 연관시켜 자신의 갈등 경험을 수필로 쓰는 활동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삶은 외적이든 내적이든 갈등의 연속이며, 이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 ⑥ 작성한 마인드맵을 바탕으로 개요 작성하기
- ⑦ 작성한 개요를 바탕으로 수필 쓰기

다.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며 가장 인상 깊었던 갈등 경험 하나를 고르게 한 후 그것을 글감으로 삼아 갈등의 원인, 갈등의 진행, 갈등의 해결, 그 갈등을 겪으며 배운 점이나 느낀 점 등을 주요 내용으로 수필을 써 보게 합니다. 학생들은 수필을 쓰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고, 당시의 막연했던 느낌과 생각을 글로 정리하면서 깊은 깨달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학생 질문에는 이렇게!

- Q 떠오르는 경험이 없는데 수필을 어떻게 쓰죠?

A 수필에 쓸 경험은 꼭 특별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무엇이든 소재로 삼을 수 있답니다. 지금처럼 수필 쓰기 활동을 해야 하는데 수필로 쓸 만한 경험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자체도 글감이 될 수 있어요.

수필 쓰기 활동을 할 때 “수필에 쓸 만한 경험이 정말 없어요.”, “옛날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라고 하면서 수필 쓰는 것을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수필을 쓰는 것이 귀찮아서 대는 핑계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경험을 타인에게 진솔하게 보여 주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글감으로 삼을 만한 경험을 찾지 못하는 학생에게 저는 그 상황 자체를 글감으로 삼아서 수필을 써 보라고 조언한 적이 있습니다. 즉, 수필로 쓸 만한 경험을 도저히 찾지 못해서 수필을 못 쓰고 있는 상황 자체도 글감이 될 수 있음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무엇이든 소재로 삼을 수 있는 수필의 특성을 다시 한번 주지시킬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일간 이슬아 수필집』(이슬아, 해엄, 2018)

교과서에 나오는 수필들은 대부분 오래된 작품들이라 학생들의 흥미를 돋우기 쉽지 않습니다. 이 책은 많은 독자들에게 읽힌 수필로, 학생들이 수필 감상이나 창작에 관심을 갖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 **항동중학교 이혜인 선생님**

시 詩

연관 운문

수업 고민 이렇게 해결해요!

수업 고민

시 읽기를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아이들이 시를 재미있게 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 방안

- 학생 자신이 직접 고른 시집을 활용하기
- 관심과 흥미가 가는 시부터 읽기

이런 활동 어때요?

활동 내용

노래를 활용한 화자와 시인 탐구

활동 방법

- 1 작사는 같지만 가수가 다른 윤종신의 「좋니」와 민서의 「좋아」를 들으며 남녀 각각의 상황 생각해 보기

시는 문학의 한 장르로 마음이나 머릿속에 떠오르는 느낌을 함축적이고 운율이 있는 언어로 표현한 문학의 한 갈래이다. 일반적으로 드는 시의 3 요소는 운율(음악적 요소), 심상(회화적 요소), 주제(의미적 요소)이다. 운율은 소리의 반복, 글자 수의 반복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말의 가락, 심상은 감각적 표현에 의해 떠오르는 모습을 의미하고, 주제는 시인이 시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을 뜻한다.

시는 형식에 따라 정형시, 자유시, 산문시로, 내용에 따라 서정시, 서사시, 극시로 나눌 수 있다. 시 안에는 시인을 대신하여 시 속의 상황을 전달하는 '화자'가 존재하는데, 설정된 화자의 특징이나 성격이 드러난 경우와 숨어 있는 경우 등에 따라 작품의 분위기, 전반적인 정서와 태도 등이 달라진다.

3월, 중학교 국어 수업은 대부분 시 단원으로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아이들의 반응은 한결같습니다. 시를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시는 어렵고 지루하다……. 이런 반응을 조금이나마 긍정적으로 돌려 보기 위해 저는 자유 시집 읽기로 3월 첫 주를 시작합니다.

교사는 수업 시작 전 미리 학급 학생 수의 두 배 정도로 청소년 시집을 준비해 둡니다. 너무 어렵지 않고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과 비슷한 내용을 찾을 수 있는 시집으로 선별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흥미에 맞는 시집을 한 권씩 골라 훑어본 후 자신의 생활과 비슷한 면이 있는 시를 세 편씩 선정하고 그 이유를 적습니다. 그리고 그 시에 있는 표현을 활용하여 자기소개를 진행합니다. 서로가 선택한 시와 자기소개를 들으며 시와도, 학급 친구와도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항상 묻습니다. “화자와 시인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보게 하기 위해 학생들이 좋아하는 대중가요를 활용해 보았습니다. 먼저 윤종신의 「좋니」와 민서의 「좋아」를 들으며 같은 상황에 대하여 남녀가 어떤 입장인지 생각해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감상이 끝나고 난 후 두 곡의 작사가가 모두 윤종신임을 알려 주어 어떤 곡은 노래를 부르고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이 작사가와 일치하고, 어떤 곡은 불일치함을

- ⑥ 모둠별로 화자와 작사가가 같은 곡과 다른 곡 찾아보기
- ⑦ 질문에 대한 답변과 예시 발표하기

인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 모둠 활동을 통해 학생들도 각 곡의 분위기와 내용을 살펴보고 화자와 작사가가 같거나 다른 곡을 탐구하며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고 예시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 질문에는 이렇게!

- Q 선생님, 아무리 시를 읽어 봐도 운율이 안 느껴지는데요?

A 운율에는 글자 수나 음보가 반복되면서 운율이 겹으로 명확히 드러나는 외형률도 있지만, 시 안에서 은근하게 운율이 느껴지는 내재율도 있습니다. 겹으로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시를 천천히 소리 내어 읽으며 음미하다 보면 운율이 조금씩 느껴질 거예요. 짹짹과 함께 읽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시를 읽으며 “운율이 잘 느껴지죠?”라고 물었는데 아이들에게는 운율이 잘 와닿지 않았나 봅니다. 아이들의 대부분은 시를 산문 읽듯이 읽으며 내용만을 파악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운율을 가르칠 때는 늘 짹짹과 함께 천천히 다정한 목소리로 읽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짹짹의 목소리로 듣는 시는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랩 영상을 많이 보여 주는데, 또래가 노래하는 「고등 래퍼」 등의 프로그램을 보여 주며 어느 부분에서 라임을 맞추었는지 찾아보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운율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보니쌤과 함께하는 자신만만 프로젝트 수업 10』(구분희, 우리학교, 2020)

이 책에는 국어 교사 구분희 선생님이 국어 과목과 관련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한 경험담과 그때 사용한 수업 자료가 담겨 있습니다. 국어 활동 수업을 할 때 실재로 많이 참고했고, 특히 시 수업을 할 때는 5장 「시, 너를 알고 싶다」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 보았습니다.

❖ 휘경여자중학교 이주영 선생님

시의 어조

연관 어투, 시적 화자

시의 어조는 시 전반에서 나타나는 화자의 특징적 목소리, 즉 화자의 말투나 말씨를 말한다. 보통 문장의 종결 어미에서 어조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며, 시적 상황, 분위기, 정서, 화자의 태도 등을 통해서도 어조를 파악할 수 있다. 어조는 시에서 그 작품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하기도 하고 화자의 정서와 주제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화자의 정체성(어른, 어린이, 지식인, 노동자, 남성, 여성 등), 정서(영탄적, 걱정적, 그리움 등), 대상을 바라보는 태도(냉소적, 풍자적, 비판적, 해학적, 예찬적 등), 청자의 유무(독백적, 대화체)에 따라 다양한 어조가 나타날 수 있다. 다음은 시에서 자주 나타나는 어조와 그 특징이다.

- 관조적 어조: 화자가 대상에 대해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멀리서 거리감을 두고 바라보거나 관찰하는 말투
- 해학적 어조: 화자가 대상의 우습고 익살스러운 모습을 강조하여 웃음을 유발하게 하는 말투
- 풍자적 어조: 화자가 특정 대상이나 현실의 부정적인 모습, 모순 등을 간접적으로 공격하여 비웃으며 비판하고자 하는 말투
- 냉소적 어조: 화자가 대상을 씩씩맞은 태도로 차갑게 비웃고 업신여기는 말투
- 영탄적 어조: 기쁨, 슬픔, 감동 등의 감정을 강조하여 드러내는 말투
- 걱정적 어조: 화자가 강렬하고 격한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강하게 표출하는 말투
- 담담한 어조: 화자가 최대한 감정, 정서를 드러내지 않고 절제하여 상황만을 전달하는 말투
- 체념적 어조: 화자가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포기하고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는 말투
- 자조적 어조: 화자가 자신에 대해 비판하고 비웃는 듯한 말투
- 애상적 어조: 화자의 슬픔, 탄식,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말투
- 단정적 어조: 확신을 가지고 판단하여 단호함이 드러나는 말투

수업 고민 이렇게 해결해요!

수업 고민

어조의 느낌이 잘 안 느껴진다고 하거나 어조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해결 방안

- 학생들에게 여러 시를 제시해 주고 어조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공유하게 하기

시 수업에서 시의 갈래, 성격, 어조, 표현상의 특징 등을 정리할 때 '자조적, 냉소적'과 같은 어조를 언급하면 학생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은 대화처럼 말투를 들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조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묻기도 하고, 담담한 어조라고 했는데 자신은 잘 느껴지지 않는다거나 냉소, 관조 등 어조를 나타내는 단어가 너무 어렵다는 등 어조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물론 시 감상에는 주관적인 지점이 분명 존재하므로 그 작품에 나타난다고 지목되는 어조의

- 시에서 자주 활용되는 어휘를 포함하여 어조의 종류에 해당하는 어휘 정리하게 하기

느낌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교사가 나서서 그 작품에 그러한 어조가 나타난다고 보는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어조를 느낄 수 있는 요소를 간단히 설명해 주고, 학생들 스스로 머리를 맞대고 어조의 단서를 찾고 느껴 보게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문장의 종결 어미, 시적 상황, 태도 등에서 어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 후, 학생들에게 어조가 잘 드러나는 여러 개의 시를 제시해 줍니다. 이때는 모둠 활동을 하는 것이 특히 좋은데, 우선 어조가 느껴지는 부분을 개별적으로 찾고, 찾은 부분을 모둠원끼리 공유하게 합니다. 모둠원들이 각자 찾은 부분을 이유를 들어 이야기하다 보면 학생들은 어조를 느끼게 하는 시의 요소들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어조의 종류를 구분하는 어휘를 이해하기 어려워서 어조를 찾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려운 단어를 직접 찾아보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어조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시에서 자주 나오는 어휘를 정리하여 사전을 통해 그 뜻을 찾아보는 식으로 용어 정리를 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어 정리를 통해 어휘의 의미를 파악한 후에는 어조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시 작품들을 제시하여 어조를 파악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활동 어때요?

활동 내용

시 어조 바꾸기 모둠 활동 + 갤러리 워크 활동

활동 방법

- 1 어조가 특징적으로 잘 나타나는 시 작품을 모둠 개수만큼 준비하기
- 2 모둠 활동을 통해 시의 요소들을 수정하여 어조 바꾸기
- 3 이젤 패드를 활용하여 모둠별로

시의 어조를 바꾸어 작품을 재구성해 보는 활동은 시의 어조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우선 어조가 특징적으로 잘 나타나는 시 작품을 골라 모둠 개수만큼 준비합니다. 각 모둠에서 어조가 잘 드러나는 작품을 직접 찾아내는 것부터 시작해도 되지만, 학생들이 시 작품을 골라내기 힘들어하기도 하고, 모둠끼리 동일한 작품을 고를 수도 있기 때문에 교사가 작품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각 모둠에 작품을 배분한 후 모둠 활동을 통해 주어진 시에서 몇 가지 요소들을 수정하여 원작과 다른 어조로 바꾸어 보게 합니다. 이때 종결 어미, 시어, 시

전시하고 갤러리 워크를 통해 공유하기

- ④ 원작 시의 어조와 바꾼 시의 어조가 어떻게 다른지 집착 메모지를 통해 의견 듣기

구 표현 등의 변화에 따라 어조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학습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어조로 바꿀지 미리 정해 통일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어조를 바꾸었을 때 주제가 바뀔 수 있지만 소재나 핵심적인 상황 등은 그대로 유지시켜서 원작과 관계성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점을 함께 지도합니다.

모둠원들의 의견을 모아 재구성 작품을 완성시켰다면 이젤 패드에 원작 시와 재구성 시를 모두 큼직하게 적어 전시합니다. 갤러리 워크 시간을 통해 학급 전체 학생이 걸어 다니며 친구들이 창작한 작품을 감상하게 합니다. 이때 모든 학생들에게 집착 메모지를 나누어 주어 어조가 어떻게 바뀐 것 같은지, 어조 말고도 수정된 부분이 있는지 등을 자유롭게 써서 해당 작품에 붙이게 합니다. 작품을 창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크게 어려워하지도 않고, 모둠 활동이니 혼자 하는 것보다 더 수월하게 수정해 나갈 수 있으며, 몇 가지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또한 학급 전체 공유 과정에서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의견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즐거워합니다.

이 활동은 어조 학습 외에도 원작 시와 패러디 시 비교하기, 같은 대상에 대한 관점이 다른 시 찾아 비교하기 등 모둠 활동의 창작물이나 결과를 학급 전체에 공유하고자 할 때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 **항동중학교 주다연 선생님**

시조

時調

연관 평시조, 엷시조, 사설시조,
연시조

시조는 고려 시대 말부터 현재까지 창작되고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 시이다. 초장, 중장, 종장의 3장으로 구성되고, 각 장은 각각 두 부분씩 나뉘어 총 6구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각각의 장은 네 부분으로 끊어 읽는 4음보의 율격을 지닌다. 각 장이 열다섯 글자 정도로 제한되어 총 45자 내외여야 한다는 규칙도 있는데, 이 규칙은 엷시조, 사설시조 등 변형 형태가 나타나면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

초기 시조의 주된 작가층은 사대부였기 때문에 사대부의 위치에서 임금님을 연모하는 마음이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유교적 이념과 안빈낙도 등을 노래하는 작품이 많았다. 그러나 조선 중기에는 황진이나 홍량 등 유명한 기녀 작가들이 등장할 정도로 기녀들도 시조의 주요 창작층이 되었다. 또한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평민들도 활발하게 창작에 참여하면서, 사랑과 이별을 표현한 여성 작가의 시조나 서민 의식이 담긴 다양한 작품들이 다수 등장하여 시조의 주제를 풍부하게 만들었다. 이렇듯 시조는 작가층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주제와 소재가 활용되며, 짧고 정형적인 형식 속에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고전 문학의 대표적인 서정 갈래로 평가된다.

수업 고민 이렇게 해결해요!

수업 고민

시조의 내용 파악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해결 방안

- 옛말 읽는 방법과 규칙 알려 주기
- 소리 내어 읽어 보며 발음과 유사한 현대어 찾기

시조 수업을 진행하면서 부딪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학생들이 옛글로 쓰인 작품을 친숙하게 받아들일게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현대 시조를 제외하면 시조의 대부분은 과거에 쓰였기 때문에 작품에 사용되는 단어도, 단어의 뜻도 학생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지기 십상입니다. 짧은 세 줄짜리 시인데도 옛날 말을 외계어처럼 여겨 지레 겁을 먹고 해석을 시작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일단 시조를 크게 소리 내어 읽어 보게 합니다. 아래 아(·), 어두자음군(시, ㅁ 등), 순경음(병, 풍 등)과 같이 지금은 사라진 음운들을 읽는 방법과 이어적기 등 옛글의 표기 규칙을 설명한 뒤, 직접 소리를 내어 읽어 보게 하면 생각보다 잘 읽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한 번 더 소리 내어 읽게 하면서 비슷한 발음이 나는 현대어 단어를 찾아 교과서의 본문 옆에 적어 보게 하면, 학생들은 맥락을 고려해서 제법 현실성 있는 현대어 풀이를 만들어 내곤 합니다. 이렇게 지레 겁부터 먹던 시조 읽기에 도전해 보게 하면 향가나 고려 가요 등 옛글자로 쓰인 다른 시대의 작품에 대한 거부

감도 함께 완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 어때요?

활동 내용

시조 읽고 그림 그리기

활동 방법

- ❶ 3인 모둠을 구성하여 마음에 드는 시조 고르기
- ❷ 시조를 소리 내어 읽어 보기
- ❸ 직접 현대어로 풀이해 보기
- ❹ 풀이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림 그리기

이 활동은 학생들이 시조를 꼼꼼하게 해석할 수 있게 돕습니다. 3명씩 모둠을 구성하여 하나의 시조를 고르고 옛글 그대로 발음하며 소리 내어 읽어 보게 합니다. 초장, 중장, 종장을 한 명씩 맡아 현대어로 해석한 후 모둠원들의 결과물을 공유하면서 화자가 처한 상황과 화자의 정서를 잘 파악하였는지, 시상의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확인해 봅니다.

모둠원들의 해석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3컷 그림을 그려 다른 모둠에게 자신의 모듬이 해석한 시조를 설명하게 합니다. 이렇게 모듬 활동으로 시조 한 편을 해석하면, 서로 의견을 나누며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해석해 갈 수 있으므로 시조 해석에 자신감을 갖게 되고 작품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집니다. 또한 모듬별로 해석한 시조와 그림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작품을 접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 면목고등학교 류지연 선생님

연시조

聯時調

연관 평시조, 엮시조, 사설시조

수업 고민 이렇게 해결해요!

수업 고민

연시조의 모든 내용을 가르쳐야 할까요?

해결 방안

- 연시조의 흐름을 가르치기
- 작품 전체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수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기

이런 활동 어때요?

활동 내용

연시조 이어서 창작해 보기

활동 방법

- ① 스스로 연시조의 특징 파악하기
- ② 연시조의 내용과 특징 관련 수업

연시조는 시조의 한 종류로, 하나의 제목 아래 여러 수의 평시조를 엮어 나간 것이다. 3장 6구 45자 내외로 이루어지는 평시조 한 편에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다 담아내지 못할 때 이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여러 수의 평시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연형시조, 연작 시조라고도 한다.

연시조의 창작자들 대다수는 사대부였기 때문에 연시조는 충효와 같은 유교적 가치관이나 자연 속에서 학문에 정진하며 느끼는 흥취, 자연 속에서 안빈낙도하며 느끼는 만족감 등을 주제로 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맹사성의 「강호사시가」, 이황의 「도산십이곡」, 이이의 「고산구곡가」, 정철의 「훈민가」, 윤선도의 「만흥」과 「어부사시사」 등이 있다.

40수로 이루어진 윤선도의 「어부사시사」에 대해 설명하다 보니 작품의 전체 내용을 공부해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묻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부사시사」처럼 방대한 작품은 전체 작품을 가르치는 것도,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연시조는 작가가 전달하려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여러 수의 시조를 배치한 것이기 때문에, 시조 전체에 흐름이 있고, 그 안에서 각 수가 그 나름대로의 기능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황의 「도산십이곡」 같은 경우도 ‘인지’와 ‘언학’이라는 소재목을 붙여 6수씩 구분하여 전개하였고, 「어부사시사」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의 흐름에 따라 각 10수씩 40수가 전개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연시조를 가르칠 때는 작가의 창작 의도와 작품의 흐름을 파악한 후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나 시험에 자주 출제된 부분만 골라서 수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연시조에 대한 자기 주도 학습을 진행한 후, 자신의 상황을 반영한 연시조를 창작해 보게 하여 연시조의 내용과 형식상의 특징을 파악했는지 확인하는 수업입니다.

저는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를 다루면서 내용 측면에서는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 화자가 느끼는 만족감, 형식 측면에서는 연시조의 각 수는 초장, 중장, 종장

진행하기

- ③ 자신의 상황에 맞게 연시조 이어서 창작하기
- ④ 학급 구성원들과 공유하기

으로 이루어진 4음보 율격의 평시조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연시조의 내용과 특징과 관련된 수업을 진행한 후 연시조를 창작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우선 학생들에게 자신이 만족감을 느낄 만한 삶을 상상해 보라고 한 후, 이를 바탕으로 「어부사시사」의 형식과 동일한 시조를 한 수씩 창작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꿈꾸는 삶을 3장 6구 45자와 4음보라는 틀 안에 담아내는 것을 답답해하던 친구들도 많았지만, 작품을 계속 고쳐 쓰면서 함축의 묘미를 깨닫게 된다며 뿌듯해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렇게 시조 창작의 시간을 마무리한 후 각자의 시조를 공유하면서 서로가 꿈꾸는 삶의 모습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은 단지 시험을 위한 수업이 아니라 진짜로 문학을 즐길 수 있는 말랑말랑한 수업 시간이 되었다며 이 활동을 무척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면 우선 아이들이 고리타분하게 생각하는 시조라는 갈래를 각자가 꿈꾸는 미래의 꿈과 연관할 수 있어 시조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시조를 직접 창작해 보는 과정을 통해 그 형식을 확실히 이해하고 기억하게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에 더해 아이들 각자가 지닌 생각을 나누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자아의 표현과 인간의 상호 이해라는 문학의 궁극적 기능을 활용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문학 교육을 위한 고전 시가 작품론』(염은열 외,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

문학 수업에서 고전 시가를 어떻게 해석하고 출제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자습서 등에 제시된 각 구절의 해석을 연결하면 전체적으로는 논리적이지만 내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책은 유기적인 흐름이 느껴지는 해석을 제시하여 작품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연시조는 작품의 전문을 접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책에는 「강호사시가」, 「도산삼이곡」, 「고산구곡가」, 「훈민가」, 「만흥」의 전문이 실려 있습니다.

❖ 면목고등학교 류지연 선생님

전설

傳說

연관 설화, 신화, 민담

옛날부터 민간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전설이라고 한다. 전설은 집단에서 구전되는 이야기를 일컫는 설화의 한 갈래에 속하기 때문에 설화의 다른 갈래인 신화 또는 민담과 비교되는 경우가 많다. 전설의 가장 큰 특징은 이야기의 특정한 배경과 함께 구체적인 증거물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이는 포괄적인 증거물이 남는 신화, 추상적이거나 증거물이 없다시피 한 민담과 구별된다. 구체적인 증거물이 있기 때문에 전설은 증거물이 있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고, 전승자는 전설이 사실이라 믿으며 이야기를 전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설로는 「장자못 전설」을 들 수 있다. 「장자못 전설」은 시주를 부탁하는 스님을 문전박대하는 장자(큰 부자)를 부끄럽게 생각한 며느리가 장자 몰래 스님에게 시주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스님은 보답으로 장자의 집이 못으로 변할 때 며느리만큼은 구해 주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스님과의 약속을 어긴 며느리가 바위로 변하며 이야기가 끝난다. 「장자못 전설」은 여러 지역의 마을에서 못이나 바위 같은 증거물과 함께 전해지고 있다.

수업 고민 이렇게 해결해요!

수업 고민

단순한 지식 전달형 수업과는 다른 방식으로 전설의 특징을 수업하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해결 방안

- 설화의 다른 갈래들과 연계해 여러 설화를 담은 짧은 동영상 보여 주기
- 동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전설의 특징 스스로 탐구해 보기

전설을 수업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우선 신화나 민담과 비교하여 전설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후 구체적인 제재를 다룹니다. 두 수업 모두 학생들의 참여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전설의 특징을 가르칠 때 우선 여러 설화를 담은 동영상상을 보여 주는 편입니다. 신화, 전설, 민담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영상을 하나씩 보여 주면 딱 적당합니다. 이때 영상은 교과서에 있는 제재와 다른 내용을 추천합니다.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배경지식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청한 영상을 바탕으로 활동지를 채우게 합니다. 이때 활동지는 신화, 전설, 민담의 특성을 표로 정리한 내용인 경우가 많죠. 주인공, 배경, 증거물, 전승 범위 등 일반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활동지를 구성하면 됩니다. 물론 비계를 제공합니다. 정답들을 무작위로 섞어서 제시해 두고 적절한 것을 찾게 합니다. 예를 들어 ‘신성한 인물’, ‘비범한 인물’, ‘평범한 인물’과 같은 내용을 섞어서 제시하면, 학생들은 앞서 봤던 영상들을 떠올리며 전설의 ‘주인공’ 항목에 ‘비범한 인물’을 적는 식입니다.

활동지를 다 채운 뒤에는 교사가 정답을 일일이 불러주기보다 활동지를 다 채운 학생이 나와서 답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 의외로 학습 의욕을 불러일으킵니다. 평소

에 모둠 활동이나 도장판 활동 등을 하고 있다면 이럴 때 접목해도 좋습니다. 정답을 맞히면 소소한 보상을 주고, 틀렸다면 틀린 부분이 있으니 고쳐 보라고 지도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리로 돌아가서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어떤 답이 맞을지 서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정답을 찾아보려는 의욕을 불태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영상으로 접했던 이야기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여러 차례 돌이키며 학생 주도적인 사고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활동 어때요?

활동 내용

우리 학교(우리반) 전설 만들기

활동 방법

- ❶ 학교 안에서 전설의 소재인 ‘증거물’ 찾기
- ❷ 전설의 요소 정하기(반별로 상이할 수 있음)
- ❸ 모둠을 구성하여 증거물에 얽힌 전설 창작하기
- ❹ 모둠별로 이야기를 모아 완결된 하나의 전설 완성하기

비 오던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어 교무실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학생 하나가 어두운 복도 끝 교실을 가리키며 “저 교실 무섭지 않아요? 무슨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에 오래된 학교의 동상이나 정원에 얽힌 괴담 같은 소문이 있었던 옛날 생각이 나면서 수업에서 우리 학교의 전설을 직접 지어내 보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는 전설도 사실과 사람들의 상상이 결합하여 만들어져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니까요.

우리 학교 전설 만들기 수업은 ‘적용 학습’에 해당합니다. 즉, 전설이 무엇인지 배우는 전반적인 내용 학습을 마친 뒤 개별 전설 제제에 대한 수업까지 끝내고 진행하는 수업입니다. 우선 전설에 얽힌 ‘증거물’을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저학년의 경우에는 야외 수업 느낌으로 학교를 잠시 돌아다니며 증거물이 될 만한 것을 찾게 해도 재미있을 것입니다. 학교에 있는 돌상, 낡은 벤치, 쓰이지 않는 교실, 운동장 구석의 열리지 않는 쪽문 등 학교의 다양한 시설물들이 증거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모둠 활동으로 찾아낸 증거물에 대한 사연을 만듭니다. 수업 시간에 전달한 전설의 특징을 상기시키며 전설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잘 제시합니다. 학생들은 모둠별로 합의해서 전설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만들고, 그 조건에 맞는 요소를 각각의 모둠원이 맡아 창작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주인공은 영웅(비범한 인물)이어야 한다.’, ‘결말은 비극적이어야 한다.’, ‘이야기는 사실적이

이야 한다.'라는 요소들을 제시했다면, 교사는 각 모둠이 해당 요소를 갖추어 학교에서 찾은 증거물에 얽힌 전설을 만들게 합니다. 이때 가급적 모둠원이 제시된 요소를 하나씩 담당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첫 번째 모둠원이 '비범한 인물'을 만들어 낸다면, 두 번째 모둠원이 '비극적인 결말'을 지어내고, 세 번째 모둠원은 '사실적인 이야기'를 꾸미고, 네 번째 모둠원은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설정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대강 지어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모둠원끼리 합의해서 재미있게 연결하면 그럴듯한 전설이 완성됩니다. 큰 종이에 창작한 전설을 써 교실 벽에 붙이면 재미있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학생 질문에는 이렇게!

Q '전승자의 태도'가 무엇인가?
'전승자를 어디서 알 수 있죠?

A '전승자'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이므로 '전승자의 태도'란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이 가지는 태도를 뜻합니다. 우리는 보통 전승자의 태도를 교과서에 있는 글로 확인하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우리는 글로 읽으니 글 쓰이에 가깝지만)가 이 이야기를 어떤 자세로 전달하고 있는지 파악하면 됩니다. 전설의 경우 전승자는 이야기가 다소 터무니없을지라도 이를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가볍거나 우습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글에서 벗어나 전설이 구전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상상을 해야 더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동네에 있는 연못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말해 줄 때, 아주 진지하고 심각하게 이야기해 주었을 겁니다. 바로 이런 태도가 전승자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설은 말로 전해지는 이야기인데, 교실에서는 전설을 글로 접하다 보니 이것이 말로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자각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화의 본질을 상기시키며 '원래 목소리로 전해져 온 이야기를 글로 배울 때 수업에서 놓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전설의 본래성을 잃지 않고 수업에서 다룰 수 있을까?' 같은 고민을 품게 한 질문이었습니다.

❖ 불광중학교 이진우 선생님

전지적 작가 시점

全知的作家視點

연관 3인칭 시점, 서술자

서술자가 소설 바깥에 있음에도 각 인물의 감정이나 생각, 사건의 전말을 전지적인 신처럼 모두 알고 있는 듯 서술하는 방식을 말한다.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하면 독자가 인물의 감정이나 생각, 사건의 전말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 작품 내용을 잘못 해석할 여지가 낮아지지만, 독자의 상상력이나 추리력은 제한된다. 서술자가 소설 바깥에 있다는 것은 서술자가 작품 속 인물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를 3인칭 시점이라 한다. 3인칭 시점에는 전지적 작가 시점과 3인칭 관찰자 시점(작가 관찰자 시점)이 있다.

시점에 따라 '거리'가 생겨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는데, 거리란 서술자-인물, 서술자-독자, 독자-인물 사이의 관계가 심리적으로 가깝거나 먼 정도를 의미한다. 서술자가 인물에게, 독자가 인물과 서술자에게 많이 다가갈수록 거리가 가깝다. 전지적 작가 시점은 서술자가 각 인물의 감정이나 생각을 모두 알고, 아는 정보를 친절하게 독자에게 전달한다. 따라서 서술자-인물, 서술자-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 하지만 독자-인물 사이의 거리는 멀다. 서술자가 모든 것을 독자에게 전달하여 독자가 인물에게 다가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수업 고민 이렇게 해결해요!

수업 고민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시점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해결 방안

- 인터넷 서점 사이트의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하기
- 모둠별 논의를 통해 각 시점의 효과 생각해 보기

교사의 설명은 최소화하되 학생들이 각 시점의 특징이나 효과를 직접 찾고 이해하는 수업 방안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4개의 시점과 관련하여 예시 없이 최소한의 설명만 제공합니다. 서술자가 안에 있으면 1인칭, 밖에 있으면 3인칭, '나'의 이야기를 하면 1인칭 주인공 시점, '나'가 다른 사람을 관찰하면 1인칭 관찰자 시점, 등장인물 모두의 내면을 알고 있으면 전지적 작가 시점, 객관적인 관찰 사실만 드러나면 3인칭 관찰자 시점 정도요. 그리고 인터넷 서점 사이트의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여 소설 본문 10개를 예시로 제공했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과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된 작품은 많 습니다. 이왕이면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이 좋을 것 같아 이꽃님의 『당연하게도 나는 너를』, 황영미의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 이진 등이 쓴 『마이너스 스쿨』, 오하루의 『스카르』 등의 청소년 문학을 예로 들었습니다. 3인칭 관찰자 시점과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창작된 작품의 수가 적어 대표작인 『동행』과 『소나기』, 『달밤』과 『사랑손님과 어머니』를 예로 들었습니다. 분량은 미리보기 서비스 기준 3~4쪽 정도였는데, 충분하진 않지만 논

의할 만한 양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모듬을 4명으로 구성하여 모듬별로 각 작품의 시점을 찾고 시점별 효과를 정리하되, 효과는 독자 측면과 작가 측면에서 장단점을 정리해 보게 했습니다. 사실 시점별 효과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두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라고 한 것이 도움이 되었나 봅니다. 독자의 이해도, 작가의 전달 정도 등 기대 이상의 답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 덕분에 이후 김유정의 「동백꽃」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면서 작가가 1인칭 시점을 선택한 이유와 관련하여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체제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다양한 예시를 보고 친구들과 열띤 논의를 한 것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활동 어때요?

활동 내용

소설 「동백꽃」의 시점을 바꾸어 보고 각 시점별 효과 파악하기

활동 방법

- 1 점순이의 생각과 감정을 파악하고 점순이 시점으로 서술해 보기
- 2 '나'와 점순이의 시점 비교하기
- 3 전지적 작가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과 비교해 보기
- 4 작가가 '나'의 관점으로 서술한 이유 생각해 보기

학생들과 「동백꽃」의 본문을 함께 읽을 때 “아무리 관심을 끌고 싶었어도 그렇지, 아버지를 욕하는 게 말이 안 돼요!”라며 점순이를 이해할 수 없다는 학생이 대다수였습니다. 같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어도 ‘나’의 시점과 점순이의 시점으로 서술될 때 나타나는 효과가 각기 다를 것입니다. 서술자를 점순이로 바꾸어 표현해 보고 ‘나’가 서술자일 때와 비교해 보면 인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작가가 ‘나’를 서술자로 선택한 의도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나아가 전지적 작가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과도 비교해 본다면 작가의 의도가 더 선명해지면서 각 시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모듬을 구성하여 두 시간에 걸쳐 ‘나’가 감자를 거절하는 사건, 점순이가 인식하는 ‘나’, 닭싸움 사건 등 몇 개의 부분을 제시하고, 이를 점순이의 시점에서 서술해 보고 친구들과 공유한 후 각 시점을 비교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동백꽃」을 전지적 작가 시점과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서술한 자료와 원 작품을 비교하였습니다. 참고로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 전지적 작가 시점은 교과서에 수록된 예시를, 3인칭 관찰자 시점은 교사인 제가 간단하게 작성한 예시를 활용했습니다.

특히 서술자로 ‘나’를 선택한 이유와 관련하여 학생들은 ‘나’가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아 점순이의 시점에서는 독자들도 ‘나’의 마음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나’를 선택한 것 같다.’, ‘점순이의 입장에서 보니 점순이의 행동이 별로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나’의 시점에서는 ‘애가 미쳤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여 좀 더 재미있는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나’를 선택한 것 같다.’ 등 멋진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이런 활동 어때요?

활동 내용

영화·드라마 대본을 소설로 바꿔 보기

활동 방법

- ① 영화·드라마 작품 선정 후 소설로 바꿀 부분 정하기
- ② 모듈별로 시점 선택하기
- ③ 모듈별로 선택한 시점에 따라 소설 써 보기
- ④ 시점별로 나타나는 효과와 관련하여 이야기 나누기

문학 수업을 할 때면 대략 10명 중에 4명은 인물의 감정이나 생각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문학을 통해 우리는 타인을 이해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물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나리오나 희곡은 3인칭 관찰자 시점에 가깝습니다. 드러난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인물들이 처한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거친다면 타인에 대한 이해력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다만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감정 카드나 느낌말 목록 등을 활용하여 세세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하면 더욱 좋겠지요. 그리고 이를 소설로 바꿔 표현해 보면 각 시점의 효과를 이해할 수 있고,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면 왜 하필 그 주인공이었을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나리오나 희곡 본문은 중·고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 질문에는 이렇게!

- Q 「동백꽃」은 왜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볼 수 없나요?

A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된 소설은 일기,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서술된 소설은 인물 관찰 일기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동백꽃」의 서술자인 ‘나’는 점순이가 자신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 때문에 자신은 어떤 생각이 들었고 무슨 감정을 느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물 관찰 일기를 쓸 때는 상대방의 표정, 행동, 말 등 객

관적으로 드러난 정보 서술에 초점을 맞추지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로 인해 자신이 무엇을 느꼈는지 서술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지요. 1인칭 시점이므로 서술자의 생각이나 감정이 드러날 수는 있지만, 드러나는 비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동백꽃」의 등장인물은 ‘나’와 점순이 두 명뿐이고, 주요 사건이 둘의 갈등과 화해여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인지 1인칭 주인공 시점인지 헷갈린다는 학생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완벽한 설명이 될 수는 없지만 일기와 인물 관찰 일기에 빗대어 설명하니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동백꽃」의 주요 사건이 서술자와 점순이가 싸우는 내용이라 점순이에 대한 묘사가 많아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도 덧붙였어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의 대표작인 주요섭의 「사랑손님과 어머니」와 엮어서 수업하면 학생들이 1인칭 시점을 직접 비교하면서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시점의 힘』(샌드라 거스, 월북, 2022)

작가 지망생을 위한 책이지만 각 시점의 특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 시점이 드러내는 효과를 정리하여 학생들에게 설명할 때 활용하기 좋습니다.

❖ 원동중학교 권희송 선생님

정형시

定型詩

연관 시조

정형시에서 '정형(定型) 정할 정, 모형 형)'이란 '모형이 정해져 있다'라는 의미이다. 즉, 정형시는 형식과 규칙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시를 말한다. 정형시는 시의 구조, 시구, 리듬에 있어 정해진 형식의 제약을 받으며, 같은 소리가 나는 글자를 시구의 첫머리나 끝머리에 되풀이하여 쓰거나 글자 수를 일률적으로 맞추는 등 창작 언어의 특성에 따라 고유한 양식이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형시는 시조로, 그중에서도 평시조는 ① 3장(초장, 중장, 종장) 6구 45자 내외, ② 각 장은 4음보, ③ 종장의 첫 음보는 3음절이라는 3가지 기본 형식을 따르는데 예시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태산이 √ 높다 하되 √ 하늘 아래 √ 뉘이로다 [초장]
오르고 √ 또 오르면 √ 못 오를 리 √ 없건마는 [중장]
사람이 √ 제 아니 오르고 √ 뉘만 높다 √ 하더라 [종장]

— 양사언

이밖에도 평시조가 연재 형식으로 여러 개 모인 연시조와 조선 후기에 등장한, 초장과 종장의 형식 제약이 사라진 사설시조가 있다.

수업 고민 이렇게 해결해요!

수업 고민

아이들이 시조를 살아 있는 문학 갈래로 향유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 방안

- 학생들의 생활을 소재로 한 시조 짓기 대회 열기
- 온라인 도구를 활용한 공유 및 나눔 활동하기

문학 작품의 내용과 주제, 형식을 가르치면서도 어떻게 하면 현실에서 향유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합니다. 그런데 시조는 옛날에 쓰인 시이기에 아이들의 흥미를 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생활을 소재로 한 시조 짓기 대회를 열어 상품을 걸고 창작 활동을 진행합니다.

먼저 교과서에 나오는 시조의 내용과 형식을 가르치고 복잡하게 한 다음, 아이들에게 자신의 생활과 관련된 시조를 짓게 합니다. 너무 어려워한다면 학교 교칙에 대해 건의하거나 좋아하는 친구에게 고백하는 내용의 시조를 쓰라고 제안하면 조금 더 쉽고 의욕적으로 접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창작한 시조는 각 반 패들렛에 올리고 형식을 잘 지키면서도 내용이 참신한 시조 세 편에 '좋아요'를 누르는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세 명의 친구에게 우수 시조상을 수여하고 자신이 쓴 시조에 대한 해설을 발표하게 하며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이런 활동 어때요?

활동 내용

시조 탐구 프로젝트(국어+역사 융합 수업)

활동 방법

- ① 시조에 나오는 시대와 관련된 역사적 상황과 지식 습득하기(역사)
- ② 시조 내용으로 대본 만들기(국어)
- ③ 역할극을 통해 시조 속 상황으로 함께 들어가 보기(국어)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알쓸신잡 시즌 1: 쇼미더머니! 정몽주 vs 이방원 시조 배틀의 역사(8회)」(tvN, 2017. 7. 21.)

시조는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지어진 고유의 정형시로,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작품이 많아 역사 과목과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지닙니다. 그래서 국어와 역사 과목의 융합 수업으로 시조 탐구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먼저 역사 수업에서 고려 말부터 조선까지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생기는 혼란스러운 역사적 상황을 심도 있게 공부합니다. 그리고 국어 수업에서 정몽주의 「이 몸이 죽고 죽어~」와 이방원의 「이런들 어떠하며~」 등, 이 시기에 쓰인 시조들을 공부한 후 모둠별로 시조를 선택하여 각 인물의 입장에 맞게 시조 속 상황에 대한 대본을 작성합니다. 대본을 작성한 뒤 역할극을 통해 발표하고 시조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며 시조 탐구 프로젝트를 마무리합니다.

이방원과 정몽주의 시조를 가르칠 때 아이들에게 보여 주면 좋은 영상입니다. 김영하 작가가 해당 상황을 ‘시조 배틀’이라 칭하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줍니다.

❖ [휘경여자중학교 이주영 선생님](#)

직유법

直喩法

연관 비유

수업 고민 이렇게 해결해요!

수업 고민

직유법에 해당하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해결 방안

- 비유 표현의 정확한 개념 다시 상기시키기
- 다양한 문장(시, 노래 가사, 일상적인 표현 등)으로 예시 제시하기

이런 활동 어때요?

활동 내용

직유법을 적용한 협동 시 쓰기

활동 방법

- 1 모둠을 구성한 후 협동 시의 주제 제시하고 고르기
예) 학교, 우정, 이별 등
- 2 모둠원 각각이 주제에 맞게 직유 표현을 넣어 한두 행씩 쓰기

비유 표현 중 직유법은 ‘같이, -처럼, -듯이’ 등을 사용해서 원관념을 보조 관념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이다. 원관념과 보조 관념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말이 있으므로 다른 비유 표현에 비해 파악하기 쉽다. 예를 들어 ‘바다처럼 맑은 눈망울’에서 원관념은 ‘눈망울’이고 보조 관념은 ‘바다’이며, 둘 사이에 ‘맑은’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직유법이 사용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이, -처럼, -듯이’가 있어도 원관념과 보조 관념 사이의 유사한 특성이 없다면 직유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학생들 중 ‘-같이, -처럼, -듯이’만 있으면 무조건 직유법이 사용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질문하는 문장들 중에는 교사도 혼동하기 쉬운 경우가 꽤 있기에 이를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스러웠습니다. 제가 찾은 해결 방안은 기본으로 돌아가서 비유 표현의 조건인 ‘원관념, 보조 관념, 공통 특성’을 다시 상기시키고, 다양한 예문을 분석해 주는 것입니다. 먼저 학생들이 질문한 문장이 직유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정확하게 분석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특히 문장에 표현하려는 대상과 빗댄 대상이 모두 있는지, 둘 사이의 공통점이 있는지를 밑줄, ○, △ 등의 표시를 통해 명시적으로 분석해 줍니다. 그래도 다수의 학생이 직유법 판단에 혼란을 느낀다고 생각되면 다른 출판사 교과서의 학습 활동을 활동지로 제시하며 개념을 다시 설명하고는 합니다.

같은 교과 선생님들의 아이디어를 얻어 직유법을 사용한 협동 시 쓰기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규칙과 시간을 정해 두면 학생들이 직유법을 적용한 표현을 만들어 내기 위해 집중하기 때문에 수업의 밀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덧붙여, 여러 명이 모둠으로 협동 시를 쓰는 것도 좋지만 짝과 둘이서 번갈아 릴레이 협동 시를 쓰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를 완성한 후에는 교실 벽 곳곳에 학생들이 협동해

- ⑥ 한 편의 시가 되도록 흐름을 고려해 창작한 시행 배열하기
- ⑦ 교실 곳곳에 협동 시를 게시하고 갤러리 워크로 칭찬 스티커 붙이기

서 쓴 시를 게시하고 갤러리 워크 형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서로의 시를 읽고 칭찬 스티커를 붙이게 합니다. 이때 자신의 시는 제외하고 남의 시에만 칭찬 스티커를 붙이도록 지도해야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시간에 지도 학생들과 함께 시를 읽어 보면, 학생들이 우려와 달리 직유법을 적용한 시를 곧잘 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직유법이 다른 비유 표현에 비해 쉽기도 하고, 혼자 시를 쓰는 것에 비해 친구들과 협력해서 시 한 편을 창작하는 활동이기에 부담도 덜합니다. 마지막에는 칭찬 스티커를 가장 많이 받은 시를 쓴 학생들에게 작은 간식을 주는 방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학생 질문에는 이렇게!

- Q '햇팩 같은 친구'라는 직유법 표현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원관념과 보조 관념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A 원관념과 보조 관념의 개념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친구'의 어떤 특성에서 '햇팩'을 떠올리게 되었나요? '햇팩' 같이 따듯한 친구'처럼 그 특성을 함께 적어 원관념과 보조 관념의 공통 특성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수정해 보세요.

학생들이 직유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보통 직유법을 만드는 적용 활동 시간에 질문이 생깁니다. 표현하려는 원관념은 정했는데 직유 표현으로 만들기 위한 보조 관념을 설정할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 교사가 '친구'에 직유법을 적용하여 문장을 만드는 과제를 제시하면 '햇팩 같은 친구'라는 표현을 완성하지만, 이것이 왜 직유법인지 설명해 보라고 하면 대답하지 못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직유법에서의 원관념과 보조 관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생각하는 '친구'의 어떤 특성이 '햇팩'을 떠올리게 했는지 묻은 후 원관념과 보조 관념 간의 공통 특성이 명시적으로 드러나게 수정하도록 지도하면 됩니다.

❖ 이등중학교 최백경 선생님

청각적 심상 聽覺的心像

연관 청각적 이미지

수업 고민 이렇게 해결해요!

수업 고민

청각적 심상을 파악하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청각적 심상을 느끼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해결 방안

모듬별로 노래 가사에서 청각적 심상 찾기

청각적 심상은 마치 귀로 소리를 듣는 듯한 느낌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인상이다. 그러므로 청각적 심상은 소리와 관련된 표현을 통해 나타난다. “가마귀 가락가락 울며 새엿소”(김소월, 「길」)의 의성어 ‘가락가락’처럼 소리를 직접 표현하는 경우에도 청각적 심상이 떠오를 수 있고, “어데 닭우는 소리 들렸으랴”(이육사, 「땅야」)의 ‘닭우는 소리’처럼 소리가 있다고 표현하는 경우에도 청각적 심상이 환기될 수 있다. 전자에서는 시어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소리를 연상하게 되고, 후자에서는 ‘닭우는 소리’를 독자 나름대로 상상하게 된다는 차이는 있다. 하지만 이 둘 모두 시어나 시구로 유발된 연상 혹은 상상으로 귀로 소리를 듣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점은 동일하다. 나아가 음성이나 음향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도 청각적 심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청각적 심상을 유독 파악하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시어나 시구에 소리가 직접 언급되는 경우에는 청각적 심상을 파악하기 쉽지만, 소리를 스스로 떠올려야 할 때는 이게 소리가 나는 것인지 나지 않는 것인지 구별하기 어렵다고 토로하는 경우를 여럿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김소월의 「초혼」에는 “사슴이의 무리도 슬피 운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슴이 우는 소리가 청각적 심상으로 연결되지만, 사슴이 우는 소리 같은 것을 알 리가 없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단박에 청각적 심상을 느끼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심상에 조금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하면 좋습니다. 저는 심상을 수업할 때 항상 인기 있는 최신 대중가요의 가사를 쭉 훑어보고 심상을 떠올릴 수 있는 가사들을 찾아 학생들과 함께 살피곤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노래의 가사 일부를 보여 주고 거기에서 청각적 심상을 찾아보는 모듬 과제를 부여합니다. 먼저 맞는 모듬에게 소소한 상을 주는 간단한 형태의 활동만으로도 학생들은 평소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청각적 심상을 찾곤 합니다. 노래 가사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노래를 흥얼거리다가 청각적 심상을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사 청각적 심상을 발견하지 못했는지라도 다른 학생이 청각적 심상을 발견하고 모듬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함께 청각적인 느낌을 공유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수업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교사도 발견하지 못했던 감각을 학생들이 받

견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청각적 심상이다.'라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청각적 심상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지 스스로 많이 깨우칩니다.

이런 활동 어때요?

활동 내용

(모방) 시 창작하기

활동 방법

- ① 창작 주제 선정하기(모방 시를 쓰는 경우 모방할 시 선정 포함)
- ② 시가 갖추어야 할 조건 제시하기
- ③ 조건에 따라 시 쓰기

문학 수업 때 난감한 활동 중 하나가 '시 창작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이 평가와 연결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시를 창작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상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각적 심상을 배우는 학생들이 시를 창작해야 한다면, 창의적이고 유려한 시를 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배우고 있는 시의 요소들을 잘 연결해 미숙하더라도 의미 있는 하나의 시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은 학생들이 시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시의 요소입니다. 시 창작을 평가할 때 더 잘 쓴 시, 더 좋은 표현을 쓴 시를 따지고 평가하려고 하면 활동의 의미도, 평가의 의미도 모두 흔들리게 됩니다. 학생들이 배운 시의 요소가 시에 나타났는지를 따지면 평가가 훨씬 수월해지고 창작 수업의 의미도 생겨납니다. 따라서 창작할 시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할수록 학생들의 배움을 확인하기가 더 수월해집니다. 다만, 조건이 구체적이면 창작에서 구현할 수 있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생각에도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평가 목표를 분명히 하고, 적절한 수준의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 질문에는 이렇게!

- Q '소리 없이 고요하다'라는 문장에 청각적 심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까요?

A 네,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리가 없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청각적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고요하다'라는 표현까지 붙었기 때문에 더욱 청각적인 느낌을 줍니다. 소리에 대한 표현이 언급되지 않아 청각적 심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와 소리가 없다고 언급하는 것은 다릅니다. 소리가 없다는 말은 그 자체로 매우 적막하다는 청각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받기 전까지는

‘있는’ 소리만 생각했지 ‘없는’ 소리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뜻깊은 질문이었습니다. 소리가 없다는 말이 왜 청각적 심상을 불러일으키는지 더 확실히 느끼게 하기 위해서 교실 환경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적당한 소음이 있는 국어 시간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때는 선생님이 말하는 소리, 학생들이 장난치는 소리, 펜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등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도 그것을 특별히 의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갑자기 “지금부터 모두 조용히 하고, 어떤 소리도 내지 마세요.”라고 말하면 모두가 소리를 내지 않게 되고 동시에 갑작스러운 조용함을 느끼게 됩니다. 청각이 발휘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학생이 직접 느끼게 해 주고, 소리를 의식하지 않았을 때는 청각을 발휘하지 않았지만 ‘소리 없음’을 의식하게 된 상황에서는 오히려 청각을 발휘하게 되었음을 인지시켜 줍니다. 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시가 소리와 관련된 표현을 꺼내면 독자는 그 전까지는 의식하지 않았던 소리를 의식하고 떠올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설사 들리지 않는 소리일지라도 말입니다.

❖ 불광중학교 이진우 선생님

풍자 諷刺

연관 비판

풍자는 개인 또는 사회의 부정적인 현상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표현 방법이다. 문학에서는 조선 후기 사설시조와 판소리 소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주로 권력자의 횡포를 풍자했다. 당시 민중들은 풍자를 통해 권력자를 비판함으로써 고통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나아가 부정적인 상황을 웃음으로써 극복하면서 고통스러운 현실을 견뎌 내기도 했다. 풍자는 오늘날 블랙 코미디, 신문 만평 등 시사적인 분야로 확장되어 현대까지도 민중의 결속력과 저항 정신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사회 풍자는 문학뿐만 아니라 공익 광고, 일러스트,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데 환경 오염, 성차별, 강자와 약자의 사회 구조, 인간 소외 등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을 주제로 다뤄 수용자에게 해당 문제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역할을 한다.

수업 고민 이렇게 해결해요!

수업 고민

풍자를 할 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해결 방안

조롱과 풍자의 차이점 인식시키기

고전 읽기 수업에서 풍자를 주제로 「춘향전」과 「고서8」을 엮어서 수업한 후 당시 사회를 풍자하는 만평을 창작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물 가운데 대변에 눈, 코, 입을 그린 캐릭터 그림, 영화 속 지적 장애인 캐릭터를 지배 계층으로 표현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대변에 비유하는 것, 지적 장애인이 비판의 용도로 활용되는 것은 풍자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를 시원하게 설명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던 중에 신형철의 칼럼 「해도 되는 조롱은 없다」(『광주일보』, 2016. 2. 11.)를 보게 되었고, 풍자를 수업할 때 가이드라인처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글만 보여 줘도 학생들은 정당한 비판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앞에서 언급한 논란작과 고전 문학 작품을 제시하고 각각을 풍자라고 생각하는지 여부와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봉산 탈춤」에서 양반의 외모를 왜곡하여 형상화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조롱과 풍자의 차이를 이해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런 활동 어때요?

활동 내용

풍자를 활용하여 현대 사회의 문제 형상화하기

현대 사회에는 다양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모둠을 구성하고 모둠별로 신문을 한 부씩 제공한 뒤 마음에 드는 기사를 선정하여 해당 기사에 나타난 현대 사회의 문제를 파악하게 합니다. 그리고 풍자를 활용하여 일러스트, 만화, 공익 광고 등으로 현대 사회의 문제를 형상화하게 합

활동 방법

- ❶ 짝을 짓거나 모둠을 구성하여 기사나 뉴스 수집하기
- ❷ 기사나 뉴스에 나타난 현대 사회의 문제 파악하기
- ❸ 일러스트, 만화, 공익 광고 등으로 풍자를 활용하여 현대 사회의 문제 형상화하기
- ❹ 반 친구들과 공유하기

학생 질문에는 이렇게!

- Q 이 작품은 별로 웃기지 않는데 왜 개인이나 사회를 풍자한 작품이라고 하나요?

니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기사를 읽으며 사회에 만연한 문제들을 파악하고 비판 의식을 기를 수 있으며, 풍자의 기능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의나 토론 또는 프로젝트 수업과 연계한다면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A 풍자에서 말하는 웃음은 코미디를 볼 때 터져 나오는 박장대소의 웃음뿐 아니라 헛웃음, 쓴웃음, 코웃음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두더비 파리를 물고~」의 두꺼비, 「춘향전」의 변 사또가 보여 주는 모습, 즉 권력을 가졌으며 위엄을 보여야 하는 사람이 발을 헛디디고 모른 채하는 모습, 자신보다 높은 권력자가 오니 허둥지둥하는 모습은 마치 슬랩스틱 코미디를 본 것과 같은 웃음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날선한 학생이 휴대폰 화면을 통해 뚱뚱한 자신을 보고 있는 그림, 사진을 신는 칸이 반쪽을 차지한 이력서를 표현한 공익 광고 등은 웃음보다는 외모 지상주의가 만연한 사회라는 주제를 냉소적으로 전달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모두 무엇인가를 비판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국 풍자에서 중요한 것은 웃음보다는 비판이며, 이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웃음과 채치 있는 표현을 활용하여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풍자의 개념을 설명할 때, 웃음을 유발하여 대상을 비판하는 표현 방법을 풍자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풍자가 활용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웃음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며, 웃음을 유발한다 해도 그것이 긍정적인 웃음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풍자는 웃음보다는 비판과 비판의 방법에 초점을 두어 학습하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 원동중학교 권희송 선생님



문법

객체 높임 표현

연관 상대 높임 표현, 주체 높임 표현

수업 고민 이렇게 해결해요!

수업 고민

객체 높임의 특수 어휘와 주체 높임의 특수 어휘를 헷갈려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해결 방안

- 문장의 주어와 바꿔 보기
-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를 바꿔 보기

객체 높임 표현은 우리말에서 사용되는 여러 높임 표현 중 하나로, 한 문장에서 주어의 행위가 영향을 미치는 어떤 대상을 높이는 방법을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어떤 대상'은 문장에서 주로 목적어나 부사어에 해당한다. 중세 국어에서는 동사나 형용사, 즉 용언에 사용되는 선어말 어미에 '-습-, -줍-, -습-' 등을 붙여 대상을 높였으나 지금은 모두 사라졌고, 현대 국어에서는 '말하다, 보다, 주다, 데리다' 등의 어휘 대신 '여쭙다(여쭙다), 보다/뵙다, 드리다, 모시다' 등의 특수 어휘를 사용하거나 부사격 조사 '께'를 사용하여 객체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객체 높임의 특수 어휘와 주체 높임의 특수 어휘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인 '-시-', 주체 높임을 실현하는 특수 어휘인 '계시다, 주무시다, 잠수시다' 등의 어휘와 객체 높임의 특수 어휘인 '모시다'를 헷갈리는 등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을 구분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먼저 주어를 바꾸었을 때 문장이 자연스러운지 확인하게 합니다.

예) 어머니가 할머니를 모셨다. → 동생이 할머니를 모셨다. / 고모가 할머니를 모셨다.

위 문장에서 주어인 '어머니'를 '동생이', '고모가'로 바꾸어도 용언과 자연스럽게 호응을 이룹니다. 이를 짚어 주며 '모시다'는 주어와는 무관하며 객체 높임과 관련 있는 특수 어휘임을 설명합니다.

둘째, 목적어 또는 부사어를 바꾸었을 때 문장이 자연스러운지 확인하게 합니다.

예) 어머니가 할머니를 모셨다. → *어머니가 동생을 모셨다. / *어머니가 누나를 모셨다.

위 문장에서 목적어인 '할머니'를 '동생'이나 '누나'로 바꾸면 문장이 어색해지므로 이때에는 용언을 '데려왔다' 등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를 짚어 주며 '모

시다'는 행위의 대상, 즉 목적어를 높이는 객체 높임과 관련된 있는 특수 어휘임을 설명합니다.

이런 활동 어때요?

활동 내용

공통된 담화 상황을 주고 여러 가지 높임법이 적용된 예문을 직접 만들어 보는 수행 평가

활동 방법

- ① 주제, 객체, 상대 높임법 수업 진행하기
- ② 공통된 담화 상황에서 조건에 맞는 높임법 구현하기
 - 예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와 주격 조사 '께서' 사용, 객체 높임의 특수 어휘 '여쭙다, 드리다' 사용, 상대 높임 격식체 사용 등
- ③ 채점 기준에 맞게 평가하기

수업을 해 보면, 학생들이 처음에는 높임법을 어려워하지만 원리를 알려 주고 예문을 통해 여러 차례 반복하여 학습하게 하면 대부분 잘 이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사가 수업 시간 혹은 (지필) 평가 때 제시한 예문에서는 어떤 높임 표현이 쓰였는지 큰 어려움 없이 찾아내지만, 스스로 예문을 만들거나 친구가 만든 예문을 고쳐 보게 하면 배운 내용을 헛갈려하는 모습을 종종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통된 담화 상황을 토대로 수행 평가를 치르면 채점하기도 쉽고, 학습 깊이의 차이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백화점 할인 판매를 시작하는 날이다. 할머니, 아빠, 영희, 동생이 백화점에 갔다. 5월은 어린이날, 아버지날, 그리고 영희의 생일이 있는 달이다. 엄마는 30분 늦게 도착한다고 영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상황이나, '할머니, 아빠, 엄마, 영희, 동생, 백화점, 선물, 도착, 약속, 점심' 같은 어휘를 동일하게 제시하고 다양한 높임 표현을 사용하여 대화 혹은 담화 상황을 구성하게 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평가 진행 전에 채점 기준을 정하고 평가를 마친 후 이 기준에 근거해 점수화합니다.

학생 질문에는 이렇게!

Q "동생은 할아버지를 잘 모신다."라는 예문의 경우 모시는 행위를 하는 주체가 화자보다 낮은(나이가 적은) '동생'이라서 객체 높임이 쓰인 것이 이해됩니다. 그런데 "고모는 할머니를 잘 모신다."라는 예문의 경우 모시는 행위를 하는 주체가 화자보다 높은(나이 많은) '고모'라서 자꾸 주체 높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A 학생은 모시는 행위를 하는 주체를 기준으로, 즉 주체가 화자보다 낮으냐(나이가 적으냐) 높으냐(나이가 많으냐)를 기준 삼아 객체 높임을 판별하고 있어요. 하지만 '모시다'는 '좋다 - 좋으시다'나 '있다 - 있으시다'처럼 기본형 '모다'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결합한 단어가 아니랍니다. '모시다'는 객체 높임을 나타내는 특수 어휘예요.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주체 높임이 아닌 객체 높임이 쓰였다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요.

❖ **승신여자중학교 윤삼성 선생님**

거센소리 되기

연관 격음화, 자음 축약, 된소리
되기

거센소리되기는 예사소리 ‘ㄱ, ㄷ, ㅂ, ㅅ’이 ‘ㅎ’을 만나 거센소리 ‘ㅋ, ㅌ, ㅍ, ㅊ’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하며, 음운 변동 가운데 축약에 해당한다. ‘종다’의 ‘ㄷ’이 ‘ㅎ’을 만나 거센소리 ‘ㅌ’으로 바뀌어 [조타]로 발음되거나, ‘일지’의 ‘ㅅ’이 ‘ㅎ’을 만나 거센소리 ‘ㅆ’으로 바뀌어 [일치]로 발음되는 것이 그 예이다.

거센소리되기를 규정하고 있는 표준 발음법 제12항 1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ㅎ(ㄷ, ㄸ)’ 뒤에 ‘ㄱ, ㄷ, ㅅ’이 결합되면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져 [ㅋ, ㅌ, ㅆ]으로 발음한다. ‘농고[노코], 종던[조턴], 쌓지[싸치], 많고[만코], 양던[안턴], 닳지[달치]’가 이에 해당한다. 받침 ‘ㄱ(ㄷ), ㄷ(ㅌ), ㅅ(ㅆ)’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결합될 때도 두 음을 합쳐 [ㅋ, ㅌ, ㅍ, ㅊ]으로 발음한다. ‘먹히다[머키다], 밝히다[발키다], 만형[마형], 좁히다[조피다], 넓히다[널피다], 꽃히다[꼬치다], 앉히다[안치다]’가 그 예이다. 즉 ‘ㄱ, ㄷ, ㅂ, ㅅ’이 ‘ㅎ’과 만나면 그 전후 위치와 관계없이 ‘ㅋ, ㅌ, ㅍ, ㅊ’가 운데 하나의 소리로 줄어드는 것이다.

수업 고민 이렇게 해결해요!

수업 고민

구개음화와 거센소리되기의 구분을 어려워하는 학생은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해결 방안

- 한 단어 안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기
- ‘ㄱ, ㄷ, ㅂ, ㅅ’ 앞에 ‘ㅎ’이 오면 무조건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고, ‘ㄱ, ㄷ, ㅂ, ㅅ’ 뒤에 ‘ㅎ’이 오면 구개음화의 환경을 제외한 경우에만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고 설명하기

구개음화는 끝소리가 ‘ㄷ’ 또는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 또는 반모음 ‘ㅣ [j]’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구개음 ‘ㅅ’ 또는 ‘ㅆ’이 되거나, ‘ㄷ’ 뒤에 형식 형태소 ‘히’가 올 때 ‘ㅎ’과 결합하여 이루어진 ‘ㅌ’이 ‘ㅆ’이 되는 현상입니다. 즉 ‘견이’를 [거지]로, ‘같이’를 [가치]로 발음하는 것은 구개음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닫히다’는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음운 환경(‘ㄷ’ 뒤에 형식 형태소 ‘히’가 올 때 ‘ㅎ’과 결합하여 이루어진 ‘ㅌ’이 ‘ㅆ’으로 발음되는 현상)이기에 처음에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다티다]가 되었고, 그 후 구개음화가 일어나 최종적으로 [다치다]로 발음됩니다. ‘맞히다’는 ‘ㅅ’ 뒤에 ‘ㅎ’이 온 경우로,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마치다]로 발음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구개음화는 해당 음운 환경에서 다른 음운으로 교체되는 현상이고, 거센소리되기는 두 개의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축약임을 분명히 언급해 주어야 합니다. [다치다], [마치다]의 발음이 유사하여 이를 헷갈리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지만, 음운 변동이 발생하는 환경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면 됩니다. 특히 ‘같이하다, 묻히다’처럼 구개음화와 거센소리되기를 함께 겪는 단어를 언급해 주면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 어때요?

활동 내용

음운의 변동 요소가 반영된 평가 문항 만들기

활동 방법

- 1 음운의 변동 관련 기출문제 풀이하기
- 2 A4 혹은 B4 크기의 평가지 양식에 따라 문항(2문제 내외) 만들기
- 3 짝끼리(혹은 원으로 둘러앉아) 문제 바꾸어 풀고 채점하기

학생 질문에는 이렇게!

- Q** ‘ㄴ, ㄹ, ㄹ, ㅁ, ㅂ, ㅅ, ㅇ’은 왜 ‘ㅎ’과 만나도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나요?

함께 보면 좋은 자료

『학교 문법과 문법 교육』(임지룡 외, 박이정, 2008)

수업을 마무리하며 거센소리되기 학습 요소가 들어간 평가 문항 만들기 수업을 하면 자연스럽게 학습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문항은 사지선다형 혹은 오지선다형으로 구성하게 합니다. 이 수업은 문제를 만드는 내내 이것이 왜 정답이고, 저것은 왜 오답인지 생각하고 다듬으며 자신의 배움 과정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양질의 문제를 제작하기 위해 교사와 함께 수능 혹은 평가원 기출문제를 먼저 풀어 보고, 그 문제를 따라 만들어 보게 하면 학생들도 꽤 근사한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교과서 외 추가 자료까지 모두 참고하게 하면 더 좋습니다. 문항을 제작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끼리 서로가 낸 문제를 풀어 보게 하면 효과가 배가되는데요, 설혹 잘못된 문제가 있다면 친구들과 오류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학습을 잘하면 이런 수준의 문제도 만들 수 있다는 효능감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A 이유는 무척 간단합니다. ‘ㄴ, ㄹ, ㅁ, ㅂ, ㅅ, ㅇ’은 각각 비음(ㄴ, ㄹ, ㅇ)과 유음(ㄹ), 마찰음(ㅅ)으로, 이에 대응되는 거센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파열음과 파찰음에 해당하는 자음에서만 소리의 세기에 따라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나타납니다. 즉 예사소리 ‘ㄱ, ㄷ, ㅂ, ㅈ’이 ‘ㅎ’과 만나면 크고 거친 느낌의 거센소리인 ‘ㅋ, ㅌ, ㅍ, ㅊ’이 발현됩니다. ‘ㄴ, ㄹ, ㅁ, ㅂ, ㅅ, ㅇ’은 아무리 성대의 근육을 긴장시켜 강하게 발음해도 나올 수 있는 거센소리가 없습니다.

교체의 한 현상인 구개음화와 축약인 거센소리되기의 개념과 예문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어 교사가 미리 공부해 두면 수업 때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 **수신여자중학교 윤삼성 선생님**

겹문장

연관 이어진문장, 안은문장

하나의 문장에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만 나타나면 홑문장, 두 번 이상 나타나면 겹문장이라고 한다. 겹문장은 여러 개의 홑문장이 서로 이어져 있는 이어진문장과 한 개의 홑문장이 다른 문장 속에 하나의 성분처럼 들어간 안은문장으로 나뉜다.

- ① 하늘은 맑다.
- ② 하늘은 맑고, 바다는 깊다.
- ③ 하늘은 구름도 없이 맑다.

①에서 주어는 '하늘은'이고 서술어는 '맑다'이다. 이렇게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을 홑문장이라고 한다. ②에서 주어는 '하늘은', '바다는'이고 서술어는 '맑다(맑고)', '깊다'로, 주어와 서술어가 각각 두 번 나타나는데 이를 겹문장이라고 한다. 이때 '하늘이 맑다(맑고)'라는 홑문장과 '바다가 깊다'라는 홑문장이 나란히 놓여 마치 기차처럼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져 있는데 이를 겹문장 중에서도 이어진문장이라고 한다. ③에서 주어는 '하늘은'과 '구름도'이고, 서술어는 각각 '맑다'와 '없다(없이)'이다. 이렇게 주어와 서술어가 두 번 나타나 있기에 ④ 또한 겹문장인데, '하늘은 맑다'라는 홑문장 안에 '구름도 없다(없이)'라는 홑문장이 들어가 안겨 있으므로 이를 겹문장 중에서 안은문장이라고 한다.

수업 고민 이렇게 해결해요!

수업 고민

보어를 주어로 착각하여 겹문장으로 인식하는 학생은 어떻게 지도하나요?

해결 방안

- 문장 성분의 개념과 용례 다시 설명하기
- 보어가 들어간 홑문장과 서술절을 비교하여 설명하기

일반적으로 홑문장은 길이가 짧고 겹문장은 길이가 긴 편이라, 다소 긴 홑문장에서 주어 찾기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습니다. 특히 보어가 들어간 문장을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는 과감히 문장 성분에 관해 다시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주성분과 부속 성분, 독립 성분을 언급하고, 주 성분 가운데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를 언급하며 보어의 개념과 용례를 상기시킵니다.

- ① 별이는 이제 유치원생이 아니다.
- ② 나는 드디어 과학자가 되었다.
- ③ 동생은 목소리가 우렁차다.

①의 '별이는'과 '유치원생이', ②의 '나는'과 '과학자가'가 모두 주어로 보일 수 있지만, 서술어 '아니다'와 '되었다'의 의미를 보충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문장 성분임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①, ②와 달리 ③에서는 주어

가 ‘동생은’이고, ‘목소리가 우렁차다’가 서술절임을 비교하여 설명해 주면 좋습니다.

이런 활동 어때요?

활동 내용

동화나 그림책 속 문장의 짜임 살피보기

활동 방법

- ❶ 도서실에서 좋아하거나 마음에 드는 동화 또는 그림책 고르기
- ❷ ①에서 고른 책을 천천히 읽고 홀문장과 겹문장 각각 선택하기
- ❸ 선택한 문장의 짜임 분석하기
- ❹ 채점 기준에 맞추어 평가하기

우리가 익히 아는 동화나 유명한 그림책은 예상 독자의 연령이 낮기 때문에 문장이 비교적 깔끔하고 명확합니다. 짜임이 명확하게 보이는 겹문장과 홀문장이 많이 쓰여 수행 평가 또는 마무리 수업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소 딱딱한 분위기에서 낯선 예문으로 진행되는 문법 수업의 마무리를 문학과 버무려 부드럽고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장점입니다.

학생 질문에는 이렇게!

Q 글을 쓸 때 문장이 길면 글이 복잡해 보인다고 되도록 문장을 짧게 쓰라는 조언을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긴 문장은 대부분 겹문장인데, 겹문장은 ‘내용을 논리적이고 집중력 있게 전달할 수 있으며, 사건의 연결 관계나 글의 흐름을 파악하기 쉽다’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겹문장을 쓰는 걸 왜 피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A 보통 겹문장은 길고 홀문장은 짧지만, 그렇다고 긴 문장이 곧 겹문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 ❶ 우리 학교 운동장에 잡초가 듬성듬성 올라온다. 그리고 학교의 화단에 해바라기가 활짝 피었다.
- ❷ 다람쥐는 몸집이 작다. 반면 코끼리는 몸집이 크다.

위의 두 문장을 한번 보세요. ❶의 두 문장은 홀문장이지만 길이가 길고, ❷의 두 문장은 겹문장이지만 길이가 짧지요. 긴 문장과 겹문장을 동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몇 번 나오는지를 중심으로 문장의 짜임을 파악해야 해요.

함께 보면 좋은 자료

『말과 글을 살리는 문법의 힘』(정재운, 시대의창, 2016)

이어진문장과 안은문장의 개념이 잘 설명되어 있는 책입니다. 특히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을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볼 수 있는나에 관한 논란을 함께 언급하고 있어 교사가 사전에 공부하고 교수 설계를 하면 좋습니다.

❖ **승신여자중학교 윤삼성 선생님**

을 배우고 나서도 기존의 습관대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해 보며 잘못된 발음을 완전히 고치게 되었다고 말한 학생들도 꽤 있었습니다.

이런 활동 어때요?

활동 내용

겹받침 카드 게임

활동 방법

- ❶ 겹받침이 사용된 단어 카드(대표음이 같은 단어 10장씩)와 찬스 카드(10장) 제작하기
- ❷ 한 사람당 7장의 카드를 받고, 남은 카드 중 한 장을 뒤집어 단어가 보이게 올려놓기
- ❸ 차례대로 같은 대표음으로 발음되는 카드 내려놓기. 내려놓을 카드가 없으면 새로운 카드 한 장 가져가기

겹받침의 발음을 설명하기 위해 예시 카드를 여러 장 만들어서 수업에 활용하다 떠오른 수업 방법입니다. ‘뿔’이라는 단어 카드 위에는 ‘흠’과 같이 대표음이 ‘ㄴ’인 단어 카드만 내려놓을 수 있고, ‘없다’라는 단어 카드 위에는 ‘없다’와 같이 대표음이 ‘ㅂ’인 단어 카드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대표음을 바꾸려면 찬스 카드를 활용하면 되고, 모든 카드를 먼저 내려놓는 사람이 나오면 게임은 끝납니다. 참여 인원의 수에 따라 카드의 수량은 조정할 수 있고, 겹받침뿐만 아니라 여러 문법 파트에서 활용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다른 성취기준 수업을 할 때에도 카드를 제작해 게임을 진행했는데, 수업 내내 학생들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학생 질문에는 이렇게!

- Q ‘싫다[설:따], 할다[할:따]’는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면 [설:다], [할:다]가 됩니다. 이는 된소리되기의 적용 환경이 아닌데 왜 된소리로 발음하나요?

A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는 자음군 단순화보다 먼저 적용됩니다. 따라서 ‘싫다 → [설:따] → [설:따]’로 된소리되기, 자음군 단순화 순서로 적용되고, ‘할다 → [할:다] → [할:따] → [할:따]’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자음군 단순화의 순서로 적용되어 발음됩니다.

하나의 단어에 여러 음운 규칙이 적용될 경우 그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혼란을 겪는 경우를 보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된소리되기보다 자음군 단순화를 우선 적용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 단어를 발음하는 과정에 적용되는 여러 음운 규칙 중 어떤 것을 먼저 적용시켜야 할지 탐구하는 활동을 진행했더니 음운 규칙에 관한 이해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 김해임호고등학교 조혜영 선생님

높임 표현

연관 주제 높임 표현, 객체 높임 표현, 상대 높임 표현

높임 표현은 말하는 사람이 어떤 대상에 대해 높이거나 낮추는 태도의 정도를 표현하는 방법 및 체계를 의미한다. 우리말은 다른 언어에 비해 높임 표현이 세분화되고 아주 잘 발달한 언어로, 흔히 높이는 대상에 따라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으로 분류한다.

주체 높임법은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방법이다. 매우 흔히 쓰이는 높임 표현 중 하나로, 보통 선어말 어미 ‘-(으)시-’가 서술어에 붙거나 주격 조사 ‘께서’로 표현된다. 더불어 ‘잡수시다, 편찮다’ 같은 특별한 어휘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 특별한 어휘들은 “할머니께서 편찮으시다.”와 같이 주어를 직접 높이는 직접 높임에서만 사용하고, “할머니께서 다리가 아프시다(“편찮으시다.”)처럼 주어와 관련된 대상을 높이는 간접 높임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객체 높임법은 문장에서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방법이다. 보통 부사어에 붙은 조사를 ‘께’로 바꾸어 쓰며 ‘뵙다, 드리다, 여쭙다’ 등의 특별한 어휘로 표현된다는 점에서는 주체 높임법과 비슷하다. 중세 국어에서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따로 있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없어지고 특별한 어휘 몇몇으로만 객체 높임법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상대 높임법은 대화 상대인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이다. 종결 어미를 통해 나타내며, 어미에 따라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눌 수 있다. 격식체에는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 네 가지가 포함되며, 형식과 격식을 갖춘 용법으로 정중한 느낌이 있으나 심리적인 거리감을 줄 수 있다. 비격식체는 해요체, 해체로 구분되며, 격식을 덜 치려 친밀감을 줄 수 있다. 상대 높임법의 체계 분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나, 대체로 높임과 낮춤의 대립을 중심 견해로 보는 경우가 많다.

이밖에 압존법이라는 높임 표현도 있다. 문장의 주체가 말하는 사람보다는 높지만, 듣는 사람보다 낮은 경우에 말하는 사람이 주체를 낮춰 말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할아버지, 어머니가 아가 집에 왔어요.”와 같이, 할아버지 앞에서 어머니는 높이면 안 되는 사람이므로 비록 화자가 어머니보다 낮지만 어머니를 높이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 언어생활에서는 이렇게 사용하기가 번거롭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 최근에는 압존법을 따르지 않도록 하는 추세이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실제로 압존법은 규정어 아니기 때문에 폐지된 바도 없으며, 전통적으로 가정 내, 사제 간에서 쓰였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에서 압존법을 쓰는 것은 우리 전통 예절이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다.

수업 고민 이렇게 해결해요!

수업 고민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높임 표현을 바르고 꾸준히 사용하게 도울 수 있을까요?

높임 표현을 가르치는 목적은 일상생활에서 높임 표현을 바르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높임 표현 가운데 잘못된 예문이나 상황 등을 많이 보여 주고 그것을 고쳐 보게 함으로써 올바른 높임 표현을 체득하도록 하는 편입니다.

해결 방안

- 실제로 사용하는 잘못된 예문들을 바르게 고치는 활동하기
-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의 쓰임을 문장에서 정확히 찾기

주로 잘못 사용하는 높임 표현은 주체 높임법 내 '사물 높임'일 것입니다. 즉 높여야 할 대상의 신체나 마음, 소유물이 아닌, 높일 필요가 없는 물건에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로는 “주문하신 치킨 나오셨습니다.” 등이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직종에서 고객에게 정중함, 친절함을 표현하기 위해 사물을 잘못 높이는 경우가 많음을 알려 주고, 오류를 직접 고쳐 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높임법의 개념은 알고 있으나 문장에 어떤 높임법이 쓰였는지 찾기 어려워하는 학생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어가 생략된 문장에서 부사어를 높였을 때 이것이 주체 높임법이 아닌 객체 높임법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예문을 보여 주어 높임법을 바르게 파악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이런 활동 어때요?

활동 내용

높임 표현을 활용하여 상황극하기

활동 방법

- ① 모둠별로 높임 표현이 조건으로 달린 상황극 상황 정하기
- ② 모둠별로 상황극하기
- ③ 상황극 피드백하기

상황극을 활용하여 높임 표현을 직접 사용해 보는 활동입니다. 먼저 모둠별로 “주체 높임법 중 특수 어휘를 사용한다.” 혹은 “상대 높임법 중 ‘하계체’를 사용한다.” 등의 조건과 함께 상황극으로 표현할 상황 설명이 적힌 쪽지를 뽑게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상황극을 준비할 시간을 잠시 준 후, 모둠별 상황극을 진행하면 됩니다. 수업 참여도가 높은 반은 상황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직접 상황극을 하지 않고 상황극 대본을 쓰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2~3분 정도의 짧은 상황극을 진행하며 학생들이 높임 표현을 바르게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다른 모둠의 상황극을 보며 높임 표현을 바르고 상황에 맞게 사용해야 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 활동의 목표입니다. 모든 상황극이 끝나면 모둠별로 상황극 속 높임 표현에 대해 간단히 피드백을 하게 합니다. 상황극에 높임 표현의 오류가 있었다면 이 과정에서 함께 고쳐 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퀴즈를 하며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학생 질문에는 이렇게!

Q “미래를 바르게 보게 하라.”와 같은 ‘하라체’는 언제 쓰어나요?

A 상대 높임법의 6가지 종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하라체’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라체는 상대 높임법의 일종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한 청자가 있을 때 사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 높임의 등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대화할 때 하라체를 쓸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라체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쓰이며, 명령적인 느낌을 주는 구호 표현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라체’는 불특정 다수에게 쓰이기 때문에 명령법이 아니라 구호 표현에서만 제한적으로 쓰이며, 신문 기사나 광고문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형태가 비슷한 ‘해라체’와 구분할 수 있도록 그 특징을 제시하고 청자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높이거나 낮추는 느낌이 없다는 점도 함께 설명해 줍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안녕 우리말 2022: 사물 높임말 (1회)』(KBS, 2022. 9. 13.)

4분 내외의 짧은 영상으로, 다양한 상황극을 통해 사물을 높이는 잘못된 높임 표현을 다룹니다.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예시를 들고 있어 높임 표현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활용하기 좋습니다.

• 『높임말을 다시 생각한다: 이른바 ‘사물 존대’ 현상에 대한 상념』, 『새국어생활』 27권(목정수, 국립국어원, 2017, 31~50쪽)

높임법 오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물 존대’ 현상에 대해 다양한 예시를 들고 있는 논문으로, 어렵지 않아 고등학교 수준의 학생들과 함께 읽고 생각을 나누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의 기본 기능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예와 잘못 쓰인 예를 상세히 보여 주어 ‘-시-’의 용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해 줍니다.

❖ 서울 신앙중학교 권화영 선생님

다의어

多義語

연관 동음이의어

다의어는 한 단어 안에 유사성이 있는 여러 의미를 가진 단어를 뜻한다. 다의어는 하나의 의미가 확장되어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를 가진다. 중심적 의미는 단어가 가진 여러 의미 중 기준점이 되는 핵심적인 의미이고, 주변적 의미는 중심적 의미에서 의미가 확장된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관계는 중심적 의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는 한 단어로 등재되어 있다. 사전에서 어떤 다의어를 찾게 된다면, 대부분 기본 의미인 중심적 의미가 가장 먼저 나온다. 더불어 중심적 의미가 주변적 의미에 비해 의미 자체가 쉽고 단순하기 때문에 제약을 덜 받아 사용 빈도가 높다. 다의어의 예시로 '가다'를 들 수 있는데, '이동하다'라는 뜻에서 의미가 확장되어 '다니다, 옮기다' 등의 유사한 뜻도 포함하는 한 단어로 등재되어 있다. 즉, 다의어의 의미들 간에는 서로 관련성이 있다.

다의어는 동음이의어와 다르다. 동음이의어는 사전에 아예 다른 표제어로 각각 실려 있는 데 반해, 다의어는 하나의 표제어 아래에 각각의 의미가 나뉘어 실려 있다. 또한 동음이의어는 단어들 사이에 의미적 관련이 없지만, 다의어의 여러 의미는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도 다르다.

수업 고민 이렇게 해결해요!

수업 고민

다의어의 다양한 의미를 활용하는 방법을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해결 방안

- 사전을 활용하여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의 차이를 이해하게 하기
- 사전을 활용하여 다의어의 여러 가지 뜻을 파악하고 직접 활용하게 하기

다의어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동음이의어와 함께 다루어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동음이의어와 다의어를 혼동하는 학생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먼저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의 개념을 각각 설명한 후, 사전에서 각 표제어를 찾아보며 형식적으로 동음이의어와 다의어를 구분하는 활동부터 진행했습니다. 개념 설명만으로는 이해에 어려움을 겪던 학생들도 직접 사전을 찾으며 동음이의어와 다의어가 표제어의 형식에서부터 다르다는 점을 알고 생각보다 빠르고 쉽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후 문장 속 다의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활동을 진행했는데 이 역시 인터넷 사전을 활용하게 했습니다. 몇 가지 예문을 제시하고 예문 속 다의어가 사전에서 몇 번째에 등재된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파악하게 합니다. 이 활동은 사전 활용법까지 익히는 일석이조의 방법으로, 수업 때 꼭 한번 이상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의어를 활용한 관용 표현이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사전 속 예문을 활용하도록 도와주면 어렵지 않게 수업을 이끌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 어때요?

활동 내용

그림의 상황을 보고 다의어를 활용하여 이야기 창작하기

활동 방법

- 1 사전을 활용하여 그림 속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다의어 찾기
- 2 다의어를 활용한 문장 만들기
- 3 그림과 문장을 나열하여 나만의 이야기 창작하기

상황이 잘 드러난 사진이나 그림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사전에서 그 상황에 사용할 다의어를 찾아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한 문장으로 쓰게 하는 활동입니다. 그림은 학생 수의 5배수 정도로 넉넉히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종이 사전보다는 온라인 사전을 활용하면 평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치가 넘치는 학생들은 그림 속에서도 재미있는 부분을 찾아 기발한 문장을 쓰기도 합니다. 문장을 모두 완성하고 나면 참고한 그림을 위쪽에 두고, 아래에는 자신이 쓴 문장을 배치하여 그림이 있는 한편의 짧은 이야기로 구성하게 합니다. 친구들과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간단한 피드백도 주고받으면 더욱 알찬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 질문에는 이렇게!

- Q 다의어의 뜻을 모두 외우는 게 좋을까요?

A 다의어의 뜻을 모두 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단어의 다양한 의미를 알고 상황에 맞게 자주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단어의 중심적 의미를 기억한다면 그것과 연관된 주변적 의미는 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연상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어생활 속에서 다의어를 자주 활용하면 그 뜻은 저절로 익숙해질 거예요.

학생들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동음이의어와 다의어를 혼동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영어 단어를 암기할 때 편의상 하나의 단어 아래 여러 의미를 나열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의어가 사전에 등재된 형태와 유사하기 때문에 헷갈린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의어와 동음이의어의 개념 자체를 헷갈리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한 질문이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외국인들이 헷갈리기 쉬운 한국어 표현 - 다의어」(국립외교원 국민외교아카데미, 2023. 5. 8.)

외국인들이 헷갈리기 쉬운 다의어의 개념을 다룬 짧은 영상입니다. 다의어의 기본 개념을 가르칠 때 동기 유발을 위해 가볍게 보여 주기 좋은 유용한 영상입니다.

❖ 서울 신양중학교 권화영 선생님

단어의 의미 관계

연관 유의 관계, 반의 관계, 상하 관계

단어가 다른 단어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내는 의미를 '단어의 의미 관계'라고 한다. 단어의 의미 관계는 크게 의미 대치가 종적인지 횡적인지에 따라 나뉜다. 중학교 수준에서 다루는 의미 관계는 크게 유의 관계, 반의 관계, 상하 관계가 있으며, 이 셋은 의미가 종적으로 대체되는 관계에 해당한다.

먼저 유의 관계는 의미가 서로 비슷한 단어 간의 관계를 말하며, 유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을 '유의어'라 한다. 유의어라고 해도 그 의미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으므로 문맥에 따라 대체하기 어려운 때도 있다. 유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의 예시로는 '메아리-산울림', '길-도로', '여자-여인' 등이 있다. 동일한 의미를 지닌 두 단어는 동의어라고 하는데, 실제 상황에서 완전히 교체될 수 있는 동의어는 거의 없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반의 관계는 의미상 대립되는 단어 간의 관계이며,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을 반의어라 한다.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은 공통된 기준을 바탕으로 의미가 대립된다. 이들은 하나의 의미 요소만 다르고 다른 의미 요소들은 공통적인 특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반의 관계 중 상보 반의어, 즉 그 의미가 철저하게 대조되는 유형을 가장 많이 다룬다. 예를 들어 반의 관계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여자-남자', '살다-죽다'가 이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상하 관계는 의미상 한쪽이 다른 쪽을 포함하거나 다른 쪽에 포함되는 관계를 말한다. 상하 관계에서 의미를 포괄하는 단어를 상의어 또는 상위어라 하고, 의미가 상의어에 포함되는 단어를 하의어 또는 하위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과일'은 '사과'와 '포도'의 상의어이고, '사과'와 '포도'는 '과일'의 하의어이다. 또한 상하 관계는 상대적이므로 '식물'과 '꽃'의 관계에서 '꽃'은 '식물'의 하의어이지만, '해바라기', '장미'에 대해서는 '꽃'이 상의어가 된다.

수업 고민 이렇게 해결해요!

수업 고민

학생들이 의미 관계에 맞는 단어를 직접 찾아보게 하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해결 방안

- 학생들이 사전을 이용하여 직접 유의 관계와 반의 관계 찾기
- 상하 관계는 한 단어를 시작으로 계속 이어 나가게 하기

단어의 의미 관계를 가르치는 수업에서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하는 점은 학생들의 어휘력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어휘력이 부족하면 단어의 의미 관계를 이해한다고 해도 실제로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 학생들은 디지털 기기를 손쉽게 활용한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어의 의미 관계에 맞는 단어를 조사하는 활동이 예전에 비해 어렵지 않은 활동이 되었습니다. 단어의 의미 관계에 대한 이론 설명 후, 학생들에게 온라인 사전에서 의미 관계에 맞는 단어를 찾아보게 하면 되니까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직접 유의 관계와 반의 관계를 찾게 하면, 아는 단어가 많지 않은 학생도 어휘력을 향상시키고 수업 활동에도 쉽게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 처음에

기준이 되는 단어들은 교사가 제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소에 자주 쓰는 단어나 쉬운 단어의 의미 관계만 찾고 활동을 종료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하 관계 역시 교사가 상의어도 될 수 있고 하의어도 될 수 있는 단어를 제공하는 편이 좋습니다. 아이들이 계속해서 상의어, 하의어들을 찾아 나가도록 지도하면 즐거운 활동식 수업이 됩니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도 좋고, 큰 종이에 단어를 쓰고 학생들이 직접 써 보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단어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서로 틀린 것을 수정해 주기도 하고, 모르는 것을 알려 주기도 하면서 단어의 의미 관계 개념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활동 어때요?

활동 내용

나만의 '단어의 의미 관계 사전' 만들기

활동 방법

- 1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 중 나만의 사전에 등재할 단어 찾고 쓰기
- 2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단어의 의미 관계 사전 만들기
- 3 예쁘게 사전 꾸미기
- 4 자신이 만든 사전을 전시하고 친구들 사전에 감상평 남기기

앞서 이론 수업 및 활동까지 진행했다면 수행 평가로는 정리하는 활동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사전을 충분히 활용해 보고, 평소 어휘력이 부족한 학생들도 스스로 어휘를 보충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수행 평가 역시 종이를 활용할 수도 있고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두 방법은 거의 동일하고 실물로 된 창작물의 유무 정도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학생들에게 교과서나 책 등에서 단어를 몇 가지 고르게 합니다. '단어의 의미 관계'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경우가 많으니 너무 어렵거나 많은 단어를 고르게 하기보다는 사용 중인 교과서 등에서 직접 고르게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포기하는 학생이 적고 시간 내에 평가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단어를 골랐다면 디지털 기기로 사전에 접속하여 해당 단어의 유의 관계, 반의 관계, 상하 관계를 검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어의 의미 관계 사전'을 만들도록 합니다. 사전을 다 만든 후 예쁘게 꾸미는 활동까지 하면 학생들이 스스로 만든 사전에 애착을 가질 수 있겠지요. 또 잘 만든 작품은 학생의 동의를 얻어 다음 해 선배의 예시 작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두 완성하여 제출하면 사전 전시회를 여는 것도 좋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사전에 감상평을 남기는 것도 평가 요소에 포함하면 상호 작용까지 포함된 평가가 됩니다. 학생들에게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고 즐길 거리가 많은 평가입니다.

학생 질문에는 이렇게!

Q 선생님께서 동의어는 거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아버지'와 '아빠'는 동의어라고 할 수 없나요?

A 네. 물론 이 두 단어의 개념 자체는 동일합니다. 치환 가능한 문맥이나 상황도 많고요. 그렇지만 어감이 아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을 때가 있기도 하지요. 어린 아이가 "아빠, 까까 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아버지, 까까 쥐!"라고 말한다면 좀 어색하겠죠?

학생들에게 생각보다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동의어가 유의어와 무엇이 다른지 잘 와닿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아빠-아버지'와 비슷한 예시로 '엄마-어머니', '누나-누님' 등을 활용해서 설명했습니다.

만약 학생들이 고유어, 한자어 개념을 배운 후 단어의 의미 관계를 배운다면, 국어에서는 고유어와 한자어가 대응될 때 완벽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는 동의어 체계를 이룬다는 점도 언급할 수 있습니다. '키-신장(身長)' 등이 그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 문맥, 어감 등 많은 것을 고려한다면 완벽한 동의 관계는 존재하기 어렵다고 정리해 줍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EBS 국어 3분 문법: 단어들의 의미 관계』(EBS, 2015. 5. 26.)
- 『한국어 의미론』, (박철우 외, 사회평론아카데미, 2023)

단어의 의미 관계에 대한 개념 설명 후, 정리용으로 간 단하게 보여 주기 좋은 짧은 영상입니다.

수업을 준비하면서 단어의 의미 관계를 이론적으로 정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 서울 신앙중학교 권화영 선생님

대명사

代名詞

연관 체언

사람이나 사물, 장소 등의 이름을 대신하는 말을 대명사라고 한다. 대명사는 명사, 수사와 더불어 체언에 해당한다. 대명사에는 지시 대명사, 인칭 대명사, 재귀 대명사 등이 있다. 지시 대명사는 사물이나 장소를 가리키는 대명사를 말한다. 사물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에는 '이것, 그것, 저것'이 있고, 장소를 가리키는 대명사에는 '여기, 거기, 저기가 있다. 인칭 대명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인칭과 단·복수, 근·중·원칭에 따라 다시 구분된다. 1인칭 대명사 중 단수형에는 '나, 저'가 있고, 복수형에는 '우리, 저희'가 있다. 2인칭 대명사 중 단수형에는 '너, 자네, 당신, 그대'가 있고, 복수형에는 '너희'가 있다. 3인칭 대명사는 근·중·원칭에 따라 나뉘며 근칭에는 '이, 이분', 중칭에는 '그, 그이, 그분', 원칭에는 '저, 저분'이 있다. 재귀 대명사는 한 문장 안의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로, 선행하는 명사가 3인칭 유정 명사일 때 사용할 수 있다. '자기, 저, 당신, 저희' 등이 재귀 대명사에 해당한다.

수업 고민 이렇게 해결해요!

수업 고민

대명사를 강의식 수업이 아니라 학생 중심 수업으로 가르치는 방법이 있을까요?

해결 방안

- 짝 활동으로 '대명사 짝 맞추기' 카드 게임하기
- 대명사의 유형, 기능 등 학습하기

교사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학생들이 문법 수업을 지루해하거나 어려워하지는 않을까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문법이라는 과목의 특성상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그 개념이 예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하는 교사 주도의 수업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이에 저는 다음의 학생 중심 탐구형 수업을 추천합니다.

우선, 대명사가 포함된 문장 카드를 주고 공통적인 역할을 하는 대명사 단어들끼리 묶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그것은 어제 내가 산 책이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내가 책임질게.', '당신이 잘못된 것이 확실합니다.'라는 문장 카드에서 '그것', '이것'을 사물을 지시하는 대명사로, '나', '당신'을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명사들의 묶음이 문장에서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보고 대명사의 유형과 기능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이런 활동 어때요?

활동 내용

대명사로 게임하기

활동 방법

- ① 대명사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담

문법 수업은 딱딱하고 지루하다는 학생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고민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문법 수업이 아니라 활동 중심으로 학생들이 즐겁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음의 수업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대명사의 개념과 종류, 간단한 예시들을 7분

은 7분 내외의 영상 시청하기
② 대명사 할리갈리 게임하기

내외의 영상으로 설명합니다. 이후 ‘대명사 할리갈리’ 게임을 합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 등 다양한 품사의 단어가 적힌 카드를 준비합니다. 모둠별로 카드를 나누어 준 뒤 각자 돌아가며 카드를 한 장씩 뒤집어 대명사 카드가 나오면 종을 치고 뒤집혀 있는 카드를 모두 가져갑니다. 마지막에 카드를 제일 많이 모은 사람이 승리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대명사의 예시를 자연스럽게 내면화할 수 있습니다.

학생 질문에는 이렇게!

Q ‘그’라는 단어는 인칭 대명사로도 쓰이고 지시 관형사로도 쓰이는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A 인칭 대명사 ‘그’는 앞서 언급한 사람을 대신하여 가리킬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철수는 중학생이다. 그는 국어를 제일 좋아한다.’에서 ‘그’는 앞 문장에 나오는 ‘철수’라는 사람을 대신합니다. 한편 지시 관형사 ‘그’는 뒤에 나오는 체언을 수식하는 단어입니다. ‘그 책의 작가는 한국인이다.’에서 ‘그’는 뒤에 나오는 체언 ‘책’을 가리키는 동시에 수식합니다.

단어의 생김새가 같아 품사를 혼동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인칭 대명사와 지시 관형사의 정의와 역할을 상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원문적인 이야기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인칭 대명사와 지시 관형사를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품사적 차이를 들어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인칭 대명사는 기능상 체언이므로 조사가 붙을 수 있습니다. ‘영수는 교사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사범대로 진학했다.’에서 ‘그’ 뒤에 보조사 ‘는’이 결합한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시 관형사는 기능상 수식언이므로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없습니다. ‘어제 본 그 영화를 다시 보자.’에서 ‘그’ 뒤에 보조사 ‘는’이 결합하면 ‘어제 본 그는 영화를 다시 보자.’와 같이 비문이 됩니다.

❖ 영원중학교 유주신 선생님

동사

動詞

연관 용언, 움직씨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의 부류를 동사라고 한다. 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뉘는데, 동사의 종류에 따라 문장의 구조가 달라진다. 자동사는 움직임이 문장의 주어에만 관련되는 동사로,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타동사는 움직임이 다른 대상(목적어)에 미치는 동사로,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철수가 일어났다'라는 문장에서 서술어인 '일어나다'는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은 동사이므로 자동사이다. '철수가 나를 불렀다'라는 문장에서 서술어인 '부르다'는 목적어 '나를'이 있어야 문장의 의미가 온전해지므로 타동사이다. 자동사의 예로 '뛰다, 놀다, 걷다, 가다, 살다' 등을, 타동사의 예로 '잡다, 누르다, 건지다, 태우다' 등을 들 수 있다.

수업 고민 이렇게 해결해요!

수업 고민

형용사와 동사 구분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 수 있을까요?

해결 방안

- 동사에는 결합할 수 있지만 형용사에는 결합할 수 없는 말 구분해 보기
- 학생들이 스스로 형용사와 동사를 활용한 문장을 만들어 보며 구분하기

형용사와 동사는 용언에 속하는 품사로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형용사와 동사를 구분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고, 사실 학교 문법과 학문 문법에 차이가 있어 '있다' 같은 단어는 형용사로 볼지 동사로 볼지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지도 학생들에게 문법을 어느 수준까지 가르쳐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명확히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친 후, 학생들이 스스로 동사와 형용사의 활용 형태를 이해하도록 지도하는 방법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용사는 동사에 비해 활용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용사 '짧다'와 동사 '늙다'는 의미가 반대인 반의 관계의 단어이며 품사가 다릅니다. 이들의 차이점으로는 첫째, '짧다'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현재를 나타내는 어미 '-는'이 붙지 못하지만, 동사인 '늙다'에는 붙을 수 있습니다. 둘째, '짧다'는 명령형(짧으라)과 청유형(짧자)으로 활용하면 어색해지지만, '늙다'는 명령형(늙으라)과 청유형(늙자)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형용사는 현재를 나타내는 어미 '-는'이 붙을 수 없고, 명령형과 청유형으로 쓰일 수 없다는 특성으로 동사와 구분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런 활동 어때요?

활동 내용

동사로 표현하는 '열네 살 마음 사전' 만들기

활동 방법

- ① 마음의 상태를 용언으로 표현한 그림책 『아홉 살 마음 사전』 읽기
- ② 중학생의 성장 과정과 마음 상태를 표현하는 동사 생각하기
- ③ 선정한 동사와 어울리는 삽화로 그림책 내지 구성하기
- ④ 완성한 그림책 둘러보기

문법 수업을 할 때마다 설명식 수업에 그치지 않도록 학생들의 활동을 고안하느라 고민이 많아집니다. 매주 한 시간씩 책 읽는 시간을 가지며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학생들이 스스로 책을 만들어 보는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9살의 순수한 마음을 표현한 그림책 『아홉 살 마음 사전』(박성우 외, 창비, 2023)을 중학교 1학년 학생들도 즐겁게 읽는 것을 보고 14살의 마음은 어떠할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동사로 표현하는 '열네 살 마음 사전'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며 학생들의 창의적인 경험과 학교생활을 담은 이야기들로 그림책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그린 그림책 내지를 인쇄하여 도서관에 전시해 다른 학급, 학년의 학생들도 둘러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 활동 덕분에 학생들이 14살의 성장을 담은 동사 하나만큼은 평생 기억할 수 있을 듯합니다.

학생 질문에는 이렇게!

Q "천천히 늙는다."라는 문장의 서술어 '늙다'는 움직임을 나타내지 않는데 동사라고 볼 수 있나요?

A '늙는다'는 동사의 어간 '늙-'에 어미 '-는다'가 붙은 서술어로 잘못된 문장이 아닙니다. 동사는 사람 또는 사물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이지만, 과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늙어 가는 과정을 나타낸다는 측면에서 이 문장의 서술어는 동사로 분류해야 합니다. "동생이 TV를 본다.", "꽃이 진다."라는 문장의 서술어 '보다'와 '지다'도 문장의 주체인 '동생'과 '꽃'의 움직임을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과정으로 나타내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사가 '과정'을 나타낸다고 설명하는 교과서는 혼치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개념을 설명할 때 동사가 사람이나 사물의 '과정'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심화 설명을 해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과서의 예문은 한정적이어서 호기심 많은 학생은 표제어의 개념에 어긋나는 사례들을 찾아 올 수 있습니다. 문법 영역의 특성상 교과서로 모든 내용을 학습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과서를 통해 이러한

경우에는 문법 개념이 정리된 학습서를 추천하고 심화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동사의 맛』(김정선, 유유, 2015)

우리말에서 중요한 서술어인 동사들의 개념과 뜻풀이, 활용형을 다루는 책입니다. 특히 예문을 통해 동사의 기본형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 수 있어 동사 활용을 학습하기에 좋은 책입니다.

- 『우리말 어감 사전』(안상순, 유유, 2021)

우리말에는 미세한 차이를 나타내는 어감이 다른 단어가 많습니다. ‘허전하다’와 ‘공허하다’, ‘감사하다’와 ‘고맙다’ 등 의미는 비슷하지만 다르게 써야 하는 단어들을 익힐 수 있는 책으로, 동사를 학습하며 읽어 보면 좋을 것입니다.

❖ 양곡중학교 노다영 선생님

동음이의어

同音異義語

연관 단어

수업 고민 이렇게 해결해요!

수업 고민

'배'가 다의어인지 동음이의어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학생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해결 방안

- 다의어와 동음이의어의 구분 기준을 참고하며 구분해 보기
- 국어사전에 단어를 찾아보며 학습하도록 지도하기

이런 활동 어때요?

활동 내용

동음이의어 사전 제작 수업

활동 방법

- 1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의 개념 학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단어를 동음이의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단어 '배'는 선박을 의미하는 '배[舟]', 가슴과 골반 사이의 신체 부위를 의미하는 '배[腹]', 배나무의 열매를 의미하는 '배[梨]' 등 각기 다른 의미를 갖는다. 동음이의어와 함께 다루어야 하는 개념인 다의어는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경우를 말한다. 동음이의어와 다의어는 모두 하나의 소리에 여러 의미가 결합한 단어이며, 문맥과 상황을 고려하여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동음이의어 관계의 단어들은 의미적 관련성이 없는 반면, 다의어는 의미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다. 어원의 측면에서도 동음이의어는 단어의 어원이 서로 다르지만, 다의어는 어원이 동일하다는 차이가 있다.

동음이의어와 다의어는 사전에서의 처리 방식이 다르다. 동음이의어는 어원이 다르고 의미적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각각 다른 단어로 등재되지만, 다의어는 어원이 동일하며 의미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하나의 단어로 등재됩니다. 따라서 다의어와 동음이의어를 구분하게 하려면 문장에 쓰인 단어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고, 단어의 의미를 어떤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파악하게 하는 학습 방법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어사전 활용법도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동음이의어와 다의어를 구분하는 기준이 간단하지 않아 사전에 따라 세부적인 처리 방식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음이의어와 다의어를 구분하는 기준을 충분히 설명한 후 사전을 통해 학습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참고로 다의어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알아보는 기준으로는 기본 뜻에서 파생된 뜻이 있는지, 한자 기원이 같은지, 비유적인 뜻이 있는지, 공통적이고 중심적인 의미가 있는지 등이 있습니다.

동음이의어와 다의어를 수업할 때 항상 국어사전 이용 방법을 함께 가르칩니다. 동음이의어 관계에 있는 단어들은 각각의 표제어로 실려 있지만 다의어 관계에 있는 단어들은 하나의 표제어로 실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사전을 통해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을

습하기

- ② 국어사전 이용 방법 학습하기
- ③ 동음이의어 사전 제작하기
- ④ 완성된 사전 둘러보기

이해하도록 지도합니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이 수업 시간이 아니더라도 인터넷 사전을 찾아보며 어휘력을 기를 수 있도록 인터넷 사전 이용 방법도 함께 안내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전에서 찾은 동음이의어를 모아 모둠별 사전 만들기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표제어를 모듬별로 나누고, 사전을 찾아 학급 전체의 동음이의어 사전을 만들어 학습하는 활동을 추천합니다.

학생 질문에는 이렇게!

Q '소고기'와 '쇠고기'는 동음이의어라고 할 수 있나요?

A '소고기'와 '쇠고기'는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동음이의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소고기'와 '쇠고기' 모두 소의 고기를 의미하며, '쇠고기'는 '소고기'의 옛말로 '쇠'는 '소의'를 줄인 말입니다. 그래서 소의 몸이나 소에 포함된 것을 이야기할 때 '쇠'라는 말을 붙여 썼습니다. 예전에는 '쇠고기'만 표준어로 인정했지만, 사람들이 '소고기'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함에 따라 '소고기'도 복수 표준어로 사전에 등재되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이처럼 똑같은 뜻을 가진 단어가 여러 개 있는 예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다르지만 뜻이 같은 단어를 이음동의어라고 합니다. '청산가리-청산칼리-사이안화 칼륨', '닝쿨-덩굴'의 관계가 그러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한국인의 99%가 헛갈려하는 동음이의어』(송호순, 페이스메이커, 2020)
- 「우리말 나들이: 알려 줘! 동음이의어(5294-5313회)」(MBC, 2022. 10. 17~11. 18.)

헛갈리기 쉬운 동음이의어를 모아 놓은 사전으로, 문맥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동음이의어 목록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헛갈릴 만한 부분을 수업 때 발췌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문법, 어휘 등과 관련하여 헛갈리기 쉬운 내용을 1분이라는 짧은 영상에 담아 알려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동음이의어와 관련된 내용이 여러 편으로 방송되었는데, 수업 도입부에서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양곡중학교 노다영 선생님

목적어

目的語

연관 문장 성분, 주성분

수업 고민 이렇게 해결해요!

수업 고민

학생들이 목적어를 찾을 때 '을/를'에 의존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해결 방안

- 목적어 뒤에 '을/를'이 생략된 문장을 제시하고 목적어를 찾게 하기
- 문장에서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학생 스스로 설명하게 하기

이런 활동 어때요?

활동 내용

다양한 매체에 쓰인 문장에서 목적어 분석하기

문장에서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을 목적어라 한다. 주로 문장에서 '무엇을' 또는 '누구를'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철수가 밥을 먹는다.', '철수가 영화를 보았다.'라는 문장의 목적어는 각각 '밥을'과 '영화를'이다.

문장에서 목적어를 찾으라고 하면 기계적으로 '을/를'이 붙은 단어를 고르는 학생들이 종종 있습니다. 목적어가 무엇인지 물으면 '을/를이 붙은 것'이라고 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목적어 뒤에 '을/를'이 생략된 문장을 보여 주곤 합니다.

'밥 먹을래?', '모자 써라.'라는 문장에서 두 서술어 '먹을래'와 '써라'의 대상인 목적어는 '밥'과 '모자'로 명확히 드러나지만 이 문장에는 목적격 조사 '을/를'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목적어가 명확히 드러나면 목적격 조사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시를 통해 학생들에게 목적격 조사 '을/를'이 목적어를 판별하는 만능열쇠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 줍니다.

이후 서술어를 바탕으로 목적어를 찾는 방법을 알려 줍니다. 서술어가 표현하는 의미의 대상이 되는 것이 목적어라는 것을 주지시키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문장에서 서술어를 먼저 찾게 하고, 그 서술어가 표현하는 의미의 대상이 되는 것을 찾게 하면 학생들이 쉽게 목적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목적어의 개념을 학습한 뒤에는 학생들이 직접 책, 신문 기사, 드라마 대사 등에 쓰인 문장에서 목적어를 분석하는 활동을 구성합니다. 분석 대상이 될 문장은 교사가 선정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다양한 형태로 목적어가 나

활동 방법

- ① 책, 신문 기사,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매체에서 문장 선정하기
- ② 모둠을 구성하고 모둠원 각각이 목적어 분석하기
- ③ 모둠 구성원들끼리 분석 내용 공유하고 발표하기

학생 질문에는 이렇게!

- Q**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은 문장도 있고, 목적어를 생략할 수도 있는데 목적어는 왜 주성분인가요?

타나는 문장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에는 우리말 문법 체계를 배우기 전에 영어 문법 체계를 먼저 배워 영어 문법에 더 익숙한 학생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어의 개념을 처음 배운 학생들이 '철수가 나에게 꽃을 주었다.'라는 문장의 문장 성분을 분석할 때 '나에게'를 간접 목적어, '꽃을'을 직접 목적어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가 문항으로 이러한 문장 형태를 제시하면 학생들이 우리말 문법 체계에서는 목적어를 둘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서술어의 의미상 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이 목적어임을 명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모든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를 반드시 포함해야 완전해 집니다. 그러나 목적어와 보어는 서술어에 따라 필수적일 수도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어 또는 보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가 쓰인 문장은 목적어 또는 보어가 있어야만 완전해지므로 이들을 주성분으로 분류합니다. 완전한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 주어 하나만 필요로 하는 '달리다, 자다' 등의 서술어는 자동사, 주어와 목적어 모두를 필요로 하는 '먹다, 보다' 등의 서술어는 타동사라고 합니다. 목적어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문맥상 유추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목적어를 생략할 수도 있고, 이는 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목적어의 생략은 담화의 앞뒤 맥락에 따라 목적어가 분명하여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므로 이는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 명호중학교 임현민 선생님

미래 시제

未來時制

연관 시간 표현

시제는 기본적으로 발화시(말하는 시점)와 사건시(사건이 일어나는 시점)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데, 미래 시제는 화자가 말하는 시점, 즉 발화시 이후의 시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타난다. 이를 문법에서는 '사건시가 발화시 이후인(나중인) 시제'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현재의 시점에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 시제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미래 시제는 주로 선어말 어미 '-겠-'에 의해 실현되고, '내일'과 같은 시간 부사를 통해서도 표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일 시험에서는 실수를 하지 않겠다.'라는 문장에서 서술어인 '않겠다'는 동사 '않다'에 선어말 어미 '-겠-'이 결합되어 미래 시제를 표현한 것이다. 또한 미래 시제는 관형사형 어미와 의존 명사 '것이' 결합한 '(으)ㄹ 것'으로 실현되기도 한다. '내일 손님이 올 것이다.'라는 문장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ㄹ'과 의존 명사 '것이' 결합하여 미래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여 미래 시제를 실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겠-'이 미래가 아니라 현재나 과거의 일을 나타내는 데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겠-'이 미래뿐만 아니라 추측이나 의지와 같은 화자의 태도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언니는 벌써 학교에 도착했겠지?', '엄마는 시장에 가겠다고 말씀하셨다.'에서 '-겠-'은 미래의 사건을 나타내기보다는 화자의 추측이나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와 관련된 선어말 어미들이 시제를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두고 일부 학자들은 국어에 시제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 학교 문법에서는 시제 표현을 문법 개념으로 가르치고 있으므로,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들이 시제 이외의 의미를 나타내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좋다.

수업 고민 이렇게 해결해요!

수업 고민

시제 표현에 예외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수업해야 할까요?

해결 방안

- 과거, 현재, 미래 시제의 예외에 해당하는 다양한 예 확인하기
- 시간 부사를 통해 시제 파악하기

문법은 비교적 수학처럼 답이 딱 떨어지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도 존재해서 학생들이 혼란을 겪곤 합니다. 시제와 관련해서는 선어말 어미가 시제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예외에 해당하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앞서 설명한 선어말 어미 '-겠-'의 경우 '지금쯤이면 아빠는 회사에 계시겠다.'나 '어제 늦게까지 일하셨다고 들었는데, 많이 피곤하셨겠어요.'와 같이 현재 시제

나 과거 시제에 쓰여 추측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수업을 준비하며 이와 같은 예외 표현들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지요.

예외를 가려내는 또 다른 방법은 문장에서 시간 부사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판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간 부사를 확인하면 시제 선어말 어미가 예외적으로 쓰인 상황에서도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일 프랑스에 간다.', '버스가 곧 출발한다.'에 쓰인 선어말 어미 '-ㄴ-'은 보통 현재를 나타내지만, 제시된 문장에서는 말하는 시점보다 나중에 벌어질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내일'이나 '곧'과 같은 시간 부사는 사건이 발생하는 시점을 판단하는 좋은 단서가 됩니다.

이런 활동 어때요?

활동 내용

노래 가사를 활용하여 시제 표현 이해하기

활동 방법

- ① 노래 선정하기
- ② 가사에 표현된 시제를 분석하며 과거, 현재, 미래 시제 파악하기
- ③ 다른 노래 가사에서 시제 표현 발견하기(모둠 활동)
- ④ 찾은 시제 표현을 발표하고 시제 이해하기

학생들과 즐겁고 가볍게 시제를 수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학생들에게 친숙한 노래 가사를 시제 수업의 예시 문장으로 활용하면 학생들의 흥미를 돋울 수 있고, 자연스럽게 수업 도입 단계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노래 가사에서는 다양한 시제 표현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사는 PPT로 제작하여 학생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제시하면 좋습니다. 노래 가사에 나타난 시제를 찾는 활동을 진행한 후에는 다른 노래의 가사 속에 나타난 시제 표현 분석을 모둠별 과제로 부여하는 등 모둠 활동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동방고등학교 최경일 선생님**

반모음 첨가

半母音添加

연관 음운의 변동

수업 고민 이렇게 해결해요!

수업 고민

반모음 첨가, 나아가 음운의 변동을 왜 배워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수업에 참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 방안

- 단어를 실제로 발음해 보게 하기
- 발음의 편의성을 설명하면서 음운 변동이 나타나는 친구의 이름을 발음해 보게 하기

반모음 첨가는 모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올 때 반모음이 첨가되는 현상을 말한다. 모음의 교체나 탈락과 마찬가지로, 발음할 때 두 개의 단모음이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나타난다. 그러나 모든 단모음과 단모음 결합에서 반모음 첨가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반모음 첨가의 사례를 살펴보면, 어간이 ‘ㅣ, ㅓ, ㅜ’로 끝날 때 어미에 반모음 ‘ㅣ [j]’가 첨가되는 경우 표준 발음으로 허용한다. ‘되+어[되어/되여], 피+어[피어/피여], 뛰+어서[뛰어서/뛰여서]’처럼 용언 어간과 어미가 결합할 때에는 반모음 ‘ㅣ [j]’의 첨가가 일어난 발음과 일어나지 않은 발음을 모두 표준어로 허용한다. 단, 이처럼 어간과 어미 사이에서 나타나는 반모음 첨가는 발음으로는 허용하지만 표기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또 ‘여기는 공항이오.’처럼 ‘ㅣ’ 뒤에 ‘ㅇ’가 올 때 [ㅁ]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여 ‘공항이오’를 [공항이오/공항이요]로 모두 발음할 수 있다. ‘철수+아(야)[철수아], 영희+아(야)[영희아]’처럼 체언 뒤에 조사가 결합할 때에도 반모음 첨가가 일어날 수 있다. 체언과 호격 조사가 결합할 때 반모음이 첨가되는 것은 표준 발음으로도 인정하고 표기에도 반영하나 ‘학교+에’처럼 체언과 부사격 조사가 결합할 때 반모음을 첨가한 발음([학교예])은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문법 수업을 하다 보면 가끔은 왜 이걸 배워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음운의 변동 부분은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예외 현상이 있어서 학습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는 단어를 선정해서 글자 그대로 발음해 보게 한 다음, 다시 평소대로 발음해 보게 한 후 두 개의 발음 중 어느 것이 더 편한지 물어봅니다. 아이들은 그제야 음운의 변동을 적용해야 발음하기 편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즉 직접 발음해 보게 함으로써 음운의 변동이 나타나는 이유가 발음의 편의성을 추구하기 위해서임을 이해시키면 학생들의 수업 태도가 조금은 달라집니다. 또 학생 중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의 이름을 불러 보게 합니다. ‘곽+비음, 박+비음’과 같은 구성의 이름에서 음운의 변동이 나타나는데 음운의 변동 수업 첫 시간에 이렇게 구성된 친구들의 이름을 발음하게 하면서 동기를 유발하면 학생들이 흥미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활동 어때요?

활동 내용

실생활에서 음운의 변동 현상 사례 찾고 분석하기

활동 방법

- ① 다양한 자료에서 음운의 변동 현상 찾기
예 신문 기사, 노래 가사 등
- ② 자료에 나타난 음운의 변동 현상의 특징과 개념, 발음 분석하기
예 김광석의 노래 「먼지가 되어」에서 '되어'에 일어나는 반모음 첨가: 모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올 때 반모음이 첨가되는 현상 → 되어[되어/되어]
- ③ 음운의 변동 현상이 일어나는 까닭에 관해 탐구하기

학생 질문에는 이렇게!

- Q** 반모음 첨가는 음운의 개수가 늘어나는 현상인가요?

음운의 변동을 배우고 나서 실생활에 적용해 보는 활동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음운의 변동을 발견할 수 있는 자료는 워낙 다양하므로 학생들이 쉽게 찾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신문 기사, 광고문, 버스 정류장 이름 또는 본인의 관심사와 관련 있는 자료에서 음운의 변동을 찾아도 됩니다. 스스로 또는 친구들과 토론하면서 음운 변동을 탐구하게 하고, 땀겨벨이나 패들릿을 활용해 자신이 찾은 자료와 그에 관한 생각을 친구들과 공유하게 하면 더욱 좋습니다. 수행 평가로 진행할 경우 학생들이 찾은 자료에서 음운 변동을 분석하여 카드 뉴스나 광고문처럼 팸플릿을 만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은 지하철 노선표와 노래 가사를 주고 음운의 변동을 찾게 하는 서술형 수행 평가를 진행했는데 학생들에게 익숙하고 또 좋아하는 자료를 제시하니 평소 공부에 흥미가 없던 학생들도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A 이중 모음을 하나의 음운으로 볼 것인지 두 개의 음운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다르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반모음 첨가는 없던 반모음이 생기는 현상이지만 학교 문법에서는 이중 모음을 하나의 음운으로 취급하여 모음의 개수를 21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학교 문법에 따르면 반모음 첨가는 단모음이 이중 모음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음운 개수는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즘은 반모음 자체도 하나의 음운으로 인정하여 음운 개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 안양여자고등학교 김혜리 선생님

비분절 음운

非分節音韻

연관 음소, 분절 음운

수업 고민 이렇게 해결해요!

수업 고민

음운 중 자음과 모음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분절 음운의 사례를 찾기는 쉬운데, 비분절 음운의 다양한 사례를 찾기 어려워요.

해결 방안

- 음의 장단, 고저, 억양, 강세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미리 조사하여 발표하기
- 바꿔서 표현할 때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시키고, 음의 장단에 해당하는 문장을 만들어 크게 소리 내어 여러 번 읽게 하기

비분절 음운이란 경계를 뚜렷하게 나눌 수 없는 음운을 뜻한다.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인 음운 중 경계를 뚜렷하게 나눌 수 없는 분절 음운은 '음소'로, 자음과 모음이 이에 해당한다. 반대로 경계를 뚜렷하게 나눌 수 없는 비분절 음운은 '운소'로, 소리의 장단, 고저, 강약(강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밤[夜]과 '밤[葉]은 각각 자음과 모음의 소리는 같지만 모음을 발음할 때 그 길이가 다르다. 시간대를 나타내는 '밤'(앞엿것)은 단음, 열매를 나타내는 '밤'(뒤엿것)은 장음으로 발음하고 이에 따라 의미를 구별한다. 즉 '밤]에 [밤]을 먹는다.'라고 해야 의미 전달을 올바르게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예로는 '눈[目]과 '눈[雪], '말[馬]과 '말[言] 등이 있는데 모두 앞엿것을 단음으로, 뒤엿것을 장음으로 발음한다. 즉 '눈]에 [눈]이 들어갔다.'나 '말 없는 [말]이 [말]보다 빠르다.'라고 발음해야 정확하게 의미가 전달된다.

음의 고저에 의한 의미 구분은 중국어의 성조를 예로 들 수 있다. 중국어에는 음의 높낮이에 따라 4가지 종류의 성조가 있으며 이들은 의미를 구분하는 기능을 한다. 우리나라 또한 중세 국어에는 성조가 존재했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음의 길이에 의한 의미 구분만 가능하다. 음의 강약, 즉 강세는 연속된 음성에서 특정 부분을 강하게 발음하는 것을 말한다.

비분절 음운과 관련한 수업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다양한 사례를 찾는 것입니다. 현대 국어에서는 비분절 음운의 의미 구분 기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수업 현장에서 학생들이 사례를 바로 찾기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인터넷이나 다양한 자료를 통해 비분절 음운인 음의 장단, 고저, 강세에 해당하는 사례를 미리 조사하고 발표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조사해 온 사례를 활용하여 비분절 음운의 의미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줍니다. 예를 들어 비분절 음운 중 소리의 장단으로 의미가 구별되는 단어로 '눈[目]과 '눈[雪]을 찾아왔다면 '눈에 눈이 들어갔다.'라는 문장에서 어떤 단어를 길게 발음하느냐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얼마나 크게 변할 수 있는지를 그림으로 비교해 보여 주면 소리의 장단이 갖는 의미 구별 기능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이런 문장들을 창의적으로 만들어 제시하고, 이 문장들을 크게 세 번 정도 반복하여 읽게 하면 해당 사례들을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장음은 보통 단어의 첫째 음절에서만 나타나고,

둘째 음절 이하에 오면 짧게 발음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즉, 장음으로 발음되는 ‘눈[雪]’은 ‘눈사람’에서는 장음으로 발음하지만 ‘함박눈’에서는 세 번째 음절에 쓰였기 때문에 짧게 발음합니다.

이런 활동 어때요?

활동 내용

언어별·시대별 비분절 음운의 종류 조사하기(모둠 활동)

활동 방법

- ① 모둠별로 특정 언어나 특정 시대 선택하기
- ② 해당 언어에 대한 다양한 사례 조사하기
- ③ 모둠별 발표하기

영어 외에도 제2 외국어를 배우면서 다양한 언어의 차이를 느끼고 있는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수업 방법입니다. 비분절 음운인 장단, 고저, 강세에 대해 학습한 후 장단에 따라 의미가 구별되는 한국어, 고저를 나타내는 성조가 있는 중국어 및 베트남어, 강세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영어 등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관심 언어별로 모듬을 구성한 후 모듬별로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PPT 자료로 만들어 발표하게 합니다. 비분절 음운은 시대에 따라 달라졌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대에 따른 비분절 음운의 변화를 조사하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중세 국어에서는 ‘말(상성, 言)’, ‘말(거성, 斗)’을 구분했으나 현재는 장단에 의한 의미 변화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조사 발표를 통해 언어의 다양성과 시대에 따른 언어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학생 질문에는 이렇게!

- Q ‘밥 먹었어?’와 ‘밥 먹었어.’는 억양에 의해 의미가 달라지는데 이것도 비분절 음운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A 보통 비분절 음운은 단어 단위에서 의미의 변별을 가져오는 요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의문문 ‘밥 먹었어?’와 평서문 ‘밥 먹었어.’에서 나타나는 억양에 따른 의미 차이는 문장 단위에서 나타납니다. 일부 학자들은 억양도 비분절 음운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엄밀히 말해 억양은 단어가 아닌 문장 단위에서의 의미 변별을 가져오는 요소이므로 비분절 음운에 포함시키기 어렵습니다.

❖ 잠실고등학교 김수현 선생님

비음화

鼻音化

연관 자음 동화, 음운 교체

인접한 두 자음 중 장애음(구강 통로의 폐쇄나 마찰에 의해 나는 소리.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등)이나 유음을 비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비음화라고 한다. 비음화는 음운이 수적인 변화 없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것으로, 음운 교체 현상에 속한다.

비음화에는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하는데, 우선 장애음이 비음 앞에서 비음으로 바뀌는 경우이다. 유대부분 역행 동화 작용으로 발생하며 앞의 장애음이 비음으로 바뀐다. 입술소리 파열음인 ‘ㅂ’이 동일 위치 비음인 ‘ㅁ’으로 바뀌거나, 잇소리 파열음 ‘ㄷ’이나 마찰음 ‘ㅅ’ 등이 동일 위치 비음인 ‘ㄴ’으로 바뀌거나, 연구개소리 파열음인 ‘ㄱ’이 동일 위치 비음인 ‘ㅇ’으로 바뀐다. 예를 들어 ‘밥맛’은 입술소리 파열음 ‘ㅂ’을 동일 계열 비음 ‘ㅁ’으로 발음하는 비음화 현상에 의해 [밤맛]으로 발음한다. ‘만머느리’는 [만머느리]로, ‘먹는’은 [멍는]으로 발음하는 것도 그 예이다. 다른 하나는 유음인 ‘ㄹ’을 제외한 자음 뒤에서 ‘ㄹ’이 ‘ㄴ’으로 바뀌는 경우이다. ‘ㄹ’ 비음화의 예로는 ‘독립 → 독닙 → [동닙]’, ‘음운론 → [음운논]’ 등이 있다.

수업 고민 이렇게 해결해요!

수업 고민

학생들이 비음화를 이와 유사한 유음화뿐만 아니라 여러 음운 변동 현상과 헷갈리기도 하고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해요.

해결 방안

- 음운 변동 현상의 기초가 되는 자음과 모음의 체계를 확실하게 이해시키기
- 음운 현상의 큰 분류를 먼저 이해하게 하고 각각의 다양한 사례를 설명하기

음운 변동 현상의 다양한 규칙들을 하나씩 따로 공부하다 보면 너무 많아서 쉽게 포기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음운 변동의 이유가 발음상의 편의 때문이라는 점과, 그 기초가 되는 자음과 모음 체계의 특성을 확실히 이해하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음화라고 하면 비음에는 어떤 자음이 있는지, 조음 위치가 다른 비음에는 무엇이 있는지, 울림소리 중에서 다른 것과 유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변동되는 음운 개수에 따른 음운 변동의 분류를 알려 줍니다. 한 음운이 수적인 변화 없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대치, 한 음운이 사라지는 탈락, 없던 음운이 새로 생기는 첨가, 두 음운이 만나 제3의 음운으로 바뀌는 축약이라는 큰 틀을 먼저 제시한 후 다양한 음운 변동 현상을 가르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비음화의 경우는 비음이 아닌 음들이 비음으로 바뀌기만 하고 수적인 변화가 없으므로 대치와 관련된 다양한 음운 현상을 설명할 때 함께 다루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비음화와 유사한 음운 변화인 유음화를 함께 설명하고 둘의 차이점을 보여 주면 비음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이런 활동 어때요?

활동 내용

음운 변동 현상에 대해 발표하기

활동 방법

- 1 변동되는 음운 개수에 따라 음운 변동 현상을 분류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하기
- 2 분류에 따라 모둠별로 발표할 음운 변동 정하기
- 3 동일 지문을 바탕으로 발표할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부분 조사하기
- 4 모둠별 발표를 통해 음운 현상이 일어난 부분들을 모두 정리하기

학생 질문에는 이렇게!

- Q** 비음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음이 어떤 비음으로 변화하는지 자음 변화를 모두 외워서 알고 있어야 하나요?

모둠별로 학습하고자 하는 음운 변동 현상을 스스로 설정하고 똑같은 지문을 읽으며 음운 변동이 발생한 부분을 찾아보는 활동입니다. 우선 교사가 음운 변동 현상을 설명하고, 다양한 음운 현상이 나타나며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지문을 교사가 사전에 준비하여 제시합니다. 이후 모둠별로 상의하여 각각 해당 음운 변동이 나타난 부분을 찾고 어떻게 변동되는지 발표하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발표하는 음운 현상뿐 아니라 다른 모둠에서 발표한 음운 현상까지 동일한 지문에 정리하며 다양한 음운 현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A 자음들의 변화 각각을 모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따라 구분한 자음 체계 표를 복습한 후, 장애음이 같은 조음 위치의 비음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다양한 사례들을 발음해 보고 자음 체계 표를 참고하여 변화하는 자음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입술소리 파열음인 ‘ㅁ, ㅂ, ㅍ’이 입술소리 비음인 ‘ㅁ’으로 발음된다는 것을 자음 체계 표를 통해 이해하면 ‘입맛’이 [임맛]으로, ‘했는데’가 [헨는데]로 변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장애음	파열음	ㅂ, ㅍ, ㅃ	ㄷ, ㅌ, ㄸ		ㄱ, ㅋ, ㆁ	
	파찰음			ㅈ, ㅊ, ㅉ		
	마찰음		ㅅ, ㅆ			ㅎ
공명음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함께 보면 좋은 자료

『국어의 음운 제약과 음운 변동 현상』(김태경, 한국학술정보, 2005)

음운 변동 현상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전문 학술 도서입니다.

❖ **잠실고등학교 김수현 선생님**

사동 표현

使動表現

연관 주동 표현

주체가 제3의 대상에게 어떠한 동작이나 행위를 시키는 표현을 사동 표현이라 한다.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스스로 하는 주동(主動) 표현과 짝을 이루며,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면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된다.

사동문에는 파생적 사동문과 통사적 사동문이 있다. 먼저 파생적 사동문은 용언의 어근에 사동 접미사 ‘-이-, -히-, -리-, -가-, -우-, -구-, -추-’를 붙여 만든 사동사를 사용한다. 동사 어근에 사동 접미사가 붙으면 주동문의 주어는 부사어가 된다. 예를 들어 ‘아이가 밥을 먹는다.’라는 주동문의 주어는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인다.’처럼 사동문의 부사어가 된다. 반면에 형용사 어근에 사동 접미사가 붙으면 주동문의 주어는 목적어가 된다. 예를 들어 ‘얼음이 녹는다.’라는 주동문의 주어는 ‘아이가 얼음을 녹인다.’처럼 사동문의 목적어가 된다. 그러나 모든 동사에 사동사가 대응되지는 않으며, 사동문이 없는 주동문도 있다. ‘더위를 먹었다.’, ‘소문이 돈다.’ 등이 이에 해당한다. 파생적 사동문은 종의적 의미를 띠기도 하는데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인다.’는 엄마가 아이에게 직접 밥을 먹인다는 직접 사동의 의미와, 아이가 밥을 먹게 한다는 간접 사동의 의미로 해석된다. 통사적 사동문은 주동사의 어미에 ‘-게 하다’ 또는 사동의 의미를 가진 동사 ‘시키다’를 붙여 만든다. 예를 들어 ‘아이가 밥을 먹는다.’라는 주동문은 ‘엄마가 아이가 밥을 먹게 한다.’라는 통사적 사동문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런데 이 통사적 사동문에는 엄마가 아이에게 직접 밥을 먹인다는 직접 사동의 의미는 없다. 즉 파생적 사동문은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 반면, 통사적 사동문은 간접 사동이라는 한 가지 의미만 갖는다.

수업 고민 이렇게 해결해요!

수업 고민

문법 표현 중 가장 헷갈리는 것이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인데 두 가지를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해결 방안

- 사동과 피동의 의미 설명하기
- 예문을 바탕으로 두 표현의 공통점과 차이점 보이기

문법 표현 중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을 많이들 어려워 합니다. 사동은 주체가 어떤 대상에게 행위나 동작을 시키는 것이고, 피동은 주체가 다른 힘에 의해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을 가르칠 때 중요한 것은 두 표현의 의미상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우선 서로 짝을 이루는 사동문-주동문, 피동문-능동문의 기본 문형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밥을 먹는다.’(주동문) → ‘엄마가 나에게 밥을 먹인다.’(사동문), ‘고양이가 쥐를 잡는다.’(능동문) → ‘쥐가 고양이에게 잡힌다.’(피동문) 등 기본 문형을 통해 의미상의 차이점을 생각하게 합니다. 두 표현의 차이점뿐만 아니라 사동과 피동 모두 접미사를 이용한 파생적 방법과, 용언 어간에 연결 어미를 덧붙여 만드는 통사적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두 표현 모두 대응하는 문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공통점도 알려 줍니다.

사동과 피동의 기본 특징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졌다면 파생적 사동문에 사용되는 사동 접미사(-이-, -히-, -리-, -기-, -우-, -구-, -추-)와 파생적 피동문에 쓰이는 피동 접미사(-이-, -히-, -리-, -기-)의 차이점, 통사적 사동 표현에는 '-게 하다', 통사적 피동 표현에는 '-어지다'를 사용하는 차이점을 설명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습니다. 또한 접사 형태가 같은 경우 목적어의 유무로 사동과 피동을 구분할 수 있는데, 목적어가 있다면 사동 표현이라는 점을 예문을 통해 설명해 줍니다.

이런 활동 어때요?

활동 내용

일상생활에서 오용되는 이중 사동 표현 조사하기

활동 방법

- ① 일상생활에서 잘못 사용하는 사동 표현 찾아 고치기
- ② 일상생활에서 잘못 사용하는 이중 피동 표현 찾아 고치기
- ③ 활동을 토대로 문법을 배우는 목적에 대한 의견 나누기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을 학습한 후 일상생활에서 잘못 사용하는 사례를 찾아보도록 합니다. '교육시키다, 제외시키다, 구속시키다, 배치시키다, 해고시키다, 금지시키다' 등의 오용 사례들은 모두 주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경우이므로 '교육하다, 제외하다, 구속하다, 배치하다, 해고하다, 금지하다' 등으로 고쳐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중 피동 표현의 사례도 찾아 고쳐 봅니다. 마지막으로 문법을 배우는 목적에 대해 친구들과 상호 의견을 나누도록 하면서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학생 질문에는 이렇게!

- Q** '아기가 잔다.'라는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면 '엄마가 아기를 재운다.'가 됩니다. 이때 '자다'라는 동사를 '재우다'로 바꾸어 사동 표현을 만들었는데, 접미사 '-이우-'도 파생적 사동문을 만드는 사동 접미사에 속하나요?

A 사동 접미사 '-이-, -히-, -리-, -기-, -우-, -구-, -추-'만 생각하다가 '재우다'와 같은 동사를 보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일부 용언은 사동 접미사 두 개를 겹쳐서 만들기도 합니다. 문법에는 규칙에 따르는 경우뿐 아니라 언중이 사용하여 예외가 된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중 사동 접미사를 사용하는 동사에는 '자다' 외에도 '서다, 뜨다, 차다, 쓰다, 타다' 등이 있으며 이들의 사동사는 각각 '세우다, 띄우다, 채우다, 썩우다, 태우다'입니다.

❖ 잠실고등학교 김수현 선생님

언어의 특성

언론 언어의 본질

인간은 언어를 통해 자신 또는 타인과 소통한다.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요소 중 하나인 언어는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창조성, 규칙성 등의 특성을 지닌다. 언어의 자의성은 언어의 기호성과 관계가 깊는데, 말소리(또는 문자)와 의미의 결합이 필연적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불'이라는 말에서는 어떠한 불의 속성도 발견할 수 없다. [불]이라는 말소리에 '빛과 열을 내면서 타는 것'이라는 의미가 결합한 것에는 필연적인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 '불[불]'은 영어로 'fire[faɪə(r)]', 중국어로 '火[huǒ]' 등 언어권마다 다르게 표현된다. 이처럼 말소리(또는 문자)와 의미의 관계는 자의적이지만, 이것이 특정 사회에서 하나의 사회적 약속이 되면 개인이 그 관계를 바꿀 수 없다. 이것을 언어의 사회성이라고 한다. 그러나 언어는 시간이 지나면서 모양, 말소리, 의미 등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특성을 언어의 창조성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수박'은 과거에 '수박'으로 표기되었고, '어리다'라는 말은 과거에는 '어리석다'라는 의미로 쓰였지만 오늘날에는 '나이가 어리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또한 인간은 한정된 단어로 무한한 문장을 만들어 낼 수 있는데 언어가 갖는 이러한 특성을 언어의 창조성이라 한다. 이때 인간은 기존에 알고 있는 언어적 지식과 규칙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처럼 각각의 언어가 문법 체계를 가지고 일정한 규칙에 따라 사용되는 특성을 언어의 규칙성(규범성)이라고 한다.

수업 고민 이렇게 해결해요!

수업 고민

언어의 특성을 배워야 하는 까닭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이해시키야 할까요?

해결 방안

- 현실 속에서 언어의 특성을 적용해 볼 수 있는 활동 진행하기
- 언어의 특성에 관한 지식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하기

언어의 특성(본질)을 가르치면서 저는 '아이들이 왜 언어의 특성을 배워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필통'을 '연필'이 아닌 '필통'이라고 불러야 하고, 시간이 지나면 언어도 달라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선생님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배우는 학생들 입장에서서는 오죽할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특성과 관련된 수업을 시작할 때 '특정 상황에서 언어 없이 소통하는 게임'을 진행하여 언어의 중요성을 일깨우면 어떻게 생각하고 진행해 보았습니다. 또한 '일상에서 친구가 맞춤법을 틀리면 알려줘야 한다 vs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 넘어가도 된다'와 같은 흥미로운 토론 주제를 정하고 반드시 언어의 특성을 근거로 들어 토론하게도 해 보았습니다. 이밖에도 언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외국어나 외래어를 순우리말로 순화해 보기, 북한 이탈 주민이 겪는 소통의 어려움 살펴보기 등 언어의 특성과 관련한 내용을 실생활과 연결지어 적용해 보는 활

동 또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활동 어때요?

활동 내용

사진 묘사 게임으로 언어의 창조성 탐구하기

활동 방법

- ① 여러 가지 상황이 담긴 사진과 특정 단어 제시하기
- ② 사진 속 상황을 설명하는 한 문장을 돌아가며 만들어 보기
- ③ 언어의 창조성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개념 정리하기

언어의 특성 중 창조성은 개념 자체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활용해서 무한한 문장을 창조해 낼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구상해 본 활동입니다.

먼저 단순한 상황이 담긴 사진을 보여 주고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단어들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단어들을 넣어서 사진을 설명하는 문장을 만들게 합니다. 학급 혹은 모둠에서 학생들이 차례대로 문장을 만드는데,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문장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탈락입니다. 모둠 안에서 경쟁하게 해도 되고 모둠끼리 경쟁하게 해도 좋습니다.

문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시간에 제한을 두고 다른 친구가 말한 문장과 중복된 문장을 말하면 바로 탈락하도록 규칙을 정하면 조금씩 탈락자가 생기지만, 사실 실제로 게임을 해 보면 문장이 무궁무진하게 만들어져서 탈락자가 쉽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게임 말미에 이러한 현상 자체가 언어의 창조성을 잘 보여 주는 것이라고 덧붙이며 정리하면 됩니다. 간단하지만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효과도 있고, 사고력과 표현력을 기르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게임이므로 수업 중 시간이 남을 때 잠깐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진화하는 언어』(모텐 H. 크리스티안
센-닉 채터, 웨일북, 2023)

언어 인지 과학과 언어의 기원에 대해 연구하는 저자들이 언어가 어떻게 창조되고 진화하며 발전해 가는지 서술한 책입니다. 영어권의 언어를 기반으로 설명한다는 점이 아쉽긴 하지만 언어의 특성과 관련한 깊이 있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어 참고할 만합니다.

❖ 경일중학교 이수빈 선생님

유음화

流音化

연관 동화, 비음화

수업 고민 이렇게 해결해요!

수업 고민

어떻게 가르쳐야 학생들이 유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해결 방안

- 음운 현상의 이름(유음, -화)이 갖는 의미 생각하기
- 유음화 사례와 비음화 사례를 섞은 빙고 판에서 유음화에 해당하는 단어 찾기

유음이 아닌 음운이 유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유음화라 한다. 한글 음운 체계에서 유음은 'ㄹ'에 해당한다. 유음화의 대상이 되는 음운은 'ㄴ'밖에 없다. 그래서 유음화는 'ㄴ'이 앞뒤에 오는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는 현상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유음화에는 순행적 유음화와 역행적 유음화가 있는데, 앞에 오는 'ㄹ'의 영향을 받아 뒤의 'ㄴ'이 'ㄹ'로 바뀌는 유음화를 순행적 유음화라 한다. '설날[설랄]', '칼날[칼랄]' 등이 이에 속한다. 역행적 유음화는 뒤에 오는 'ㄹ'의 영향을 받아 앞의 'ㄴ'이 'ㄹ'로 바뀌는 유음화이다. '신라[실라]', '만리포[말리포]' 등이 역행적 유음화에 해당한다. 유음화는 비음 'ㄴ'이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조음 방법이 바뀌는 조음 방법의 동화에 해당한다.

문법 현상을 설명할 때 저는 우선 학생들에게 문법 현상의 이름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배운 표현과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표현의 차이를 이해하도록 지도합니다. '비음화, 구개음화, 유음화의 공통점이 뭐까?', '우리 반 친구 중에 ○○가 있지? ○○화가 된다면 우리 반은 어떤 모습일까?'와 같은 질문들을 던지면 학생들은 유음화의 '-화'에서 동화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중학교에서 '호름소리'라고 배웠던 'ㄹ'을 고등학교에서는 '유음'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주지시킵니다. 그러면 유음이라는 단어를 생소하게 생각하던 학생들도 호름소리와 유음이 한글과 한자의 차이이며, '유'가 '流(호름 유)'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저는 학생들이 실생활에 음운 현상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음운 현상의 사례가 담긴 빙고 판을 활용하여 유음화 사례 찾기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평소에 수업에 잘 참여하지 않았던 학생들이나 모둠 활동을 어려워하던 학생들도 사례 찾기 게임에는 끈질기게 참여했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비음화와 유음화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법은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이해하는 것이 가장 쉽고 자연스러우므로, 이 활동은 자연스럽게 문법 현상의 실제 사례를 접할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활동 어때요?

활동 내용

문법 현상 사례로 빙고 게임하기

활동 방법

- ① 음운 현상의 개념과 사례 설명하기
- ② 교과서 학습 활동 풀기
- ③ 실생활에서 음운 현상 사례를 최대한 많이 찾기
- ④ 문법 현상의 사례를 바탕으로 빙고 게임하기

고등학교에서 계속 강의식 수업을 진행하는 것 같아 고민하다가 개념 위주의 문법 수업을 학생들의 참여와 관심을 고려한 활동식 수업으로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께 좋은 아이디어가 없느냐고 물었더니 몇몇 선생님들이 학습한 개념을 활용해 빙고 게임을 진행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빙고 게임이라면 차시를 많이 잡아먹지 않으면서도 학생들에게 학습 흥미를 높일 수 있을 듯했지만, 학습한 개념의 이름을 알아보는 정도의 빙고 게임을 진행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교과서를 활용해 음운 현상의 개념과 환경을 설명하고 학습 활동을 푼 다음, 한 차시를 빼서 ‘실생활 유음화 사례 찾기 게임’과 ‘유음화 사례 빙고 게임’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간단한 간식을 준비하고 게임을 진행했더니 평소 수업에 관심이 없던 아이들도 승부욕을 발동해 가며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실생활 유음화 사례 찾기 게임’은 표가 들어간 종이를 주고 가장 많은 유음화 사례를 적은 조가 이기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이 다양한 사례를 접하게 하는 게 중요했기에 오픈 북으로 진행했습니다. 다만 유음화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를 적은 아이들도 있었고 너무 고민을 많이 하느라 시간 안에 사례를 적지 못한 아이들도 있어서 유음화에 대해 충분히 학습이 이루어진 뒤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으로 진행된 ‘유음화 사례 빙고 게임’은 게임 자체의 재미도 재미이지만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에 자신감을 느끼는 게 보여서 더욱 즐거웠습니다. 빙고 판은 아이들이 헛갈릴 수 있도록 비음화 사례와 유음화 사례들 위주로 섞어 구성했고 5×5 표에 단어들을 넣었습니다. 이미 이전 활동들을 통해 유음화의 개념과 환경을 반복적으로 학습했기에 학생들은 복습하는 느낌으로 게임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강의식 수업을 지루하게 생각한 학생들은 색다른 수업에 조금이라도 참여하려고 노력했고, 평소 수업에 열심히 참여해서 유음화의 사례를 꼼꼼히 학습한 학생들은 재미있게 복습할 수 있어 좋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학생 질문에는 이렇게!

Q ‘ㄹ’과 ‘ㄴ’이 같이 있으면 유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인데, 왜 ‘나라’는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나요?

A 유음화는 앞뒤에 오는 ‘ㄹ’이 ‘ㄴ’과 인접하는 환경에서 일어납니다. 여기서 ‘인접’이란 ‘ㄹ’과 ‘ㄴ’ 사이에 어떠한 음운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ㄹ’과 ‘ㄴ’이 인접하려면 ‘설날, 신라’처럼 앞 음절 종성과 뒤 음절 초성에 ‘ㄹ’과 ‘ㄴ’, ‘ㄴ’과 ‘ㄹ’이 연이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나라’는 ‘ㄴ’과 ‘ㄹ’ 사이에 ‘ㅏ’가 있어 ‘ㄴ’과 ‘ㄹ’이 인접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처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나름대로 유음화의 개념과 환경을 열심히 설명했는데 아이들은 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 좌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때 음운 체계를 익히는 데 바빴던 학생들에게 음운 현상의 환경은 헛갈리고 복잡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국어 교과 전공자에게 유음화는 말 그대로 유음이 아닌 음운이 유음이 되는 현상이므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유음화의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 음절의 구성뿐만 아니라 ‘인접’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음운 현상은 실생활에서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하게 일어나므로 이를 의식하기 쉽지 않습니다. 한 학생의 이러한 질문은 너무 당연해서 의식하기 어려운 음운 현상을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데 학생들이 겪는 고충을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시간과 낙엽」, (악동뮤지션, YG PLUS, 2014)

이 노래의 가사에는 상당히 많은 음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학생들에게 이 노래를 들려주고 발음을 그대로 적어 보게 하면 다양한 음운 변동을 접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포천일고등학교 이해림 선생님



**듣기
말하기**

가치 논제

價值論題

연관 논제

논제란 토론의 주제를 말한다. 논제의 종류는 크게 사실 논제, 가치 논제, 정책 논제로 구분할 수 있다. 그중에서 가치 논제는 토론 주제에 관한 토론자들의 가치 판단이 쟁점이 되는 논제로, '~은/는 바람직하다', '~은/는 옳다' 등의 서술어를 사용한다. 즉,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관한 판단을 쟁점으로 한다면 해당 논제는 가치 논제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집단을 위해 개인의 권리를 희생하는 것은 옳다'처럼 찬성과 반대, 옳고 그름으로 입장이 나뉠 수 있는 것이 가치 논제에 해당한다.

수업 고민 이렇게 해결해요!

수업 고민

토론이 과열되어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 방안

- 토론의 목적 지도하기
- 생각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함을 일깨우기

사실 논제나 정책 논제와 달리 가치 논제는 논제에 관한 주장이 '옳다'와 '그르다', '바람직하다'와 '바람직하지 않다'로 나뉘기 때문에 주장이나 근거에 대한 반박이 자칫 토론자를 향한 공격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근거의 내용, 사실 여부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토론자의 가치관, 생각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져 학생들의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많아 토론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토론 진행 전에 토론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자 논리적인 사고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 거치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해 자신과 다른 의견이나 가치관을 존중하며 토론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이런 활동 어때요?

활동 내용

영화나 소설을 바탕으로 한 토론 수업

활동 방법

- ① 학생들과 함께 영화 또는 소설 감상하기
- ② 영화 또는 소설 내용에서 가치 논제 도출하기
- ③ 다양한 논제 후보 중 토론하고 싶

다양한 가치 논제가 도출될 수 있는 영화나 소설을 함께 감상한 후 작품 속에서 학생들이 직접 논제를 도출하고 함께 토론할 논제를 투표를 거쳐 선정하면, 학생들은 직접 선정한 논제인 만큼 애정과 책임감을 지닌 자세로 토론에 참여합니다. 교사가 직접 논제를 제시해 주는 것보다 학생들이 직접 논제를 정하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논제가 도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교실에서 토론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흥미 위주의 논제가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는 논제를 투표하기 전에 협

은 논제를 투표로 결정하기

④ 최종 선택된 논제로 토론 진행하기

이를 통해 토론에 적합하지 않은 논제를 후보에서 제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찬성 측과 반대 측을 나누어 자료를 찾고 준비하는 것보다 양측 입장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는 단계를 거치고 토론 직전에 입장을 정하게 하면, 양측의 자료를 모두 찾아본 상태이기에 자연스럽게 상대측의 반론을 예측하고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조건 자기 입장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 제 나름의 이유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이 존재할 수 있음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학생 질문에는 이렇게!

Q 저는 논제에 대해 찬성 입장인데 왜 반대 입장으로 토론을 해야 하나요?

A 토론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자, 논리적인 사고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 거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토론의 목적을 생각해 보았을 때 나와 다른 입장에서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과정은 생각이 다른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며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기회입니다.

찬반 입장이 어느 한쪽으로 몰릴 경우 제비뽑기로 입장을 정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평소 자기 생각과 다른 입장에서 토론을 하게 된 학생들이 불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왜 자신과 다른 입장의 자료까지 찾아 토론을 준비해야 하는지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과 다른 입장에서 토론해야 할 경우 준비 과정이 두 배로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이럴 경우 교실 토론은 토론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기에 양측 주장의 이유와 목적, 그 근거를 모두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짚어 줍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페인트』(이희영, 창비, 2019)

『페인트』는 학생들이 흥미롭게 읽는 소설이면서도 가치 논제를 도출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한 학기 한 권 읽기로 독서 지도를 하고, '아이가 부모를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등의 가치 논제를 선정하여 토론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배곧중학교 김민정 선생님

공손성의 원리

연관 대화, 정중 어법

공손성의 원리란 대화 참여자들끼리 서로를 배려하며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 대화해야 한다는 원리로, 공손한 표현을 최대화하고 공손하지 않은 표현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정중 어법'이라고도 하는 공손성의 원리는 이익과 부담, 칭찬과 비방, 일치와 차이의 분배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으며, 이는 각각 요령의 격률, 관용의 격률, 칭찬(찬동)의 격률, 겸양의 격률, 동의를 격률로 나타낼 수 있다.

요령의 격률은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이익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하는 것, 관용의 격률은 화자 스스로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주는 표현을 최대화하는 것으로 요령의 격률을 화자를 중심에 두고 말한 것이다. 칭찬(찬동)의 격률은 상대방에게 칭찬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하고 비방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는 것, 겸양의 격률은 자신에게 칭찬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비방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하는 것, 동의를 격률은 상대의 의견과 자신의 의견 사이의 차이점을 최소화하고 일치점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수업 고민 이렇게 해결해요!

수업 고민

실제 대화 상황에서 공손성의 원리를 적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 방안

- 영상을 활용하여 대화 속 공손성의 원리 살피기
- 모둠 수업을 활용하여 대화 상황 구성하기

공손성의 원리는 대화에서 활용하기 위해 제시된 격률입니다. 따라서 개념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대화에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공손성의 원리를 가르칠 때 저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이 원리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지를 가장 고민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학생들에게 익숙한 매체인 유튜브를 활용했습니다. 우선 학생들이 가장 즐겨 보는 유튜브 영상을 골라서 함께 보고 공손성의 원리(격률)가 잘 지켜진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파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떤 기분이었는지 생각해 보고, 공손성의 원리에 맞게 대화를 바꾸어 보게 했습니다. 이때 학생들에게 공손성의 원리는 지식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늘 적용되는 원리이며, 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여 설명했습니다.

또한 공손성의 원리 수업은 실제 대화 상황을 중심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모둠 수업을 활용하여 각각의 격률이 잘 지켜진 대화 상황과 그렇지 않은 대화 상황을 대본으로 쓰게 했습니다. 이때 학생들에게는 실제 자신들이 나눌 법한 대화를 바탕으로 대본을 쓰라고 안내합니다. 대본이 완성된 후 각 모둠별로 발표하게 하고 어떤 부분에서 격률이 잘 지켜졌고, 어떤 부분에서 격률을 어겼

는지 전체 학생들이 이야기를 나누게 하여 학생들이 자신들의 언어 습관을 점검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각각의 격률을 익히게 하였습니다.

이런 활동 어때요?

활동 내용

‘나의 대화 성찰 수업’

활동 방법

- ❶ 자신과 상대방(가족, 친구 등)이 나눈 대화 기록하기
- ❷ 기록한 대화 내용에서 공손성의 원리가 잘 지켜진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파악하기
- ❸ 자신의 대화에서 공손성의 원리가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을 중심으로 고쳐야 할 점과 앞으로의 다짐 작성하기
- ❹ 공손성의 원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카드 뉴스로 만들기

사실 공손성의 원리는 일회성 수업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복잡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한두 개의 예시만으로 학생들이 공손성의 원리를 곧잘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손성의 원리는 화법의 규칙이기에 실제 대화 상황에 적용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학생들 사이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말’이 원인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짧게나마 자신의 실제 대화를 살펴보고 성찰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대화 성찰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수업 전에 학생들에게 친구와 나는 대화의 한 장면을 여과 없이 활동지에 기록해 오게 하였습니다. SNS에서 나는 대화도 그 대상으로 삼았으며 특히 비속어, 유행어도 모두 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록한 부분에서 자신의 대화 습관을 파악하고 공손성의 원리를 적용해 보게 하였습니다. 이후 학생들에게 공손성의 원리가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을 중심으로 성찰한 후 고쳐야 할 점을 발표시켰더니, 많은 학생이 공통적으로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비속어를 썼을 때나 친구를 존중하지 않는 표현을 썼을 때 공손성의 원리를 어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학생들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공손성의 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한 후 학생들이 고쳐야 할 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한 비속어 사용의 문제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비속어를 사용하면 유대감과 친근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서로에게 알게 모르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곁들여 욕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다룬 영상을 짧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못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공손성의 원리를 어김으로써 대화의 가장 큰 목적인 ‘관계’를 해칠 수 있으며, 따라서 실제 대화는 물론 SNS상에서의 대화에서도 공손성의 원리를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수업의 후속 활동으로 공손성의 원리를

왜 지켜야 하는지에 관해 각자 카드 뉴스를 만들게 하고 패들렛에 공유하며 서로 소감을 나누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생 질문에는 이렇게!

Q 요령의 격률과 관용이 격률이 헷갈리는데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A 같은 대화 상황이라도 요령의 격률은 상대방(청자)을 중심으로 한 표현과 관련이 되고, 관용의 격률은 자신(화자)을 중심으로 한 표현과 관련이 됩니다. 따라서 두 격률을 구분하려면 대화 상황에서 상대방의 부담과 이익에 관련된 것인지, 자신의 부담과 이익에 관련된 것인지 살펴 보아야 합니다. 물론 두 격률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공손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대화하면서 상대방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과서에서는 요령의 격률과 관용의 격률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예시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실제 대화에 두 격률을 적용할 때에는 헷갈려하는 학생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본 결과, 대화 참여자 중 부담과 이익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과 때로는 이 둘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학생들에게 상대에게 초점을 맞춘 것인지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였고, 대화에 따라서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때도 있으며, 발화자의 의도에 따라 격률이 정해진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화에는 하나의 격률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격률이 함께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격률을 사용했느냐보다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예의 바르게 대화를 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공손성의 원리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였습니다.

◆ 예산여자고등학교 고영금 선생님

관용 표현

慣用表現

연관 관용어, 속담, 격언

수업 고민 이렇게 해결해요!

수업 고민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다양한 관용 표현과 그 뜻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할 수 있을까요?

해결 방안

- 관용 표현을 사용하여 스토리텔링하기
- 퀴즈와 게임으로 다양한 관용 표현 익히기

어떤 표현이 습관적으로 사용되면서 표현의 표면적인 의미와는 다른 특별한 뜻을 나타낼 때 이를 관용 표현이라 한다. 속담, 격언, 관용어 등이 관용 표현에 해당한다. 속담은 예로부터 민간에 전해 내려오는 쉬운 격언이나 잠언으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처럼 사람들이 오랜 생활 체험에서 터득한 생각이나 교훈을 간결하게 나타낸 어구나 문장을 말한다. 격언은 오랜 생활 체험을 토대로 인생에 대해 얻은 교훈이나 경계 등을 간결하게 표현한 짧은 글로,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처럼 사리에 꼭 들어맞는 훌륭한 말이나 유명인이 말하여 널리 알려진 말을 일컫는다. 관용어는 '손이 크다'처럼 둘 이상의 단어가 합쳐져 원래의 뜻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뜻으로 굳어져 쓰이는 표현을 말한다.

관용 표현 중에는 '국수를 먹다'처럼 학생들이 그 유래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배울 때 학생들은 관용 표현을 매우 고리타분하고 지루한 것이라 여길 수 있고, 이를 영어 숙어나 구문을 외우듯이 기계적으로 암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관용 표현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를 활용하여 상황을 적절하게 잘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실생활과 연결해 관용 표현을 배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스토리텔링으로 단원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상황을 약간 각색하거나 허구이지만 그럴듯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이 경우 나중에 허구와 사실을 명확히 알려 주어야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예컨대 “애들아! ○○○ 선생님께서 이번 주말에 국수를 먹게 해 주신다는 구나.” 같은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서 다양한 관용 표현을 넣어 아이들과 대화를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수업으로 연결됩니다. 눈치가 빨라 선생님의 의도를 눈치채고 자신이 알는 관용 표현을 섞어 말을 주고받아 주는 학생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수업이 진행되며, 그럴 만한 학생이 없다면 미리 대본을 짜서 연출해 보기도 합니다. 또 학생들이 쓰는 말 가운데 ‘뽕을 주다’처럼 관용 표현으로 볼 수 있는 말들을 활용하면 관심과 집중도를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방식을 활용해 아이들과 대화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용 표현의 개념과 구체적 예들이 기억에 남

게 됩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통해 배우는 관용 표현은 그 수가 제한적이니 우선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한 다음 다른 예를 제시하고 게임 형식으로 그 뜻을 확인하면 다양한 관용 표현을 재미있게 익힐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 어때요?

활동 내용

관용 표현 스피드 퀴즈

활동 방법

- ① 모둠별로 퀴즈로 제시할 관용 표현의 의미 찾아보기
- ② 퀴즈로 낼 문제 PPT로 정리하기
- ③ 관용 표현 설명하고 맞히기

관용 표현의 뜻을 학생 스스로 자신의 언어로 설명해 보는 활동입니다. 먼저 퀴즈로 제시할 관용 표현의 의미를 학생들이 찾아볼 시간을 줍니다. 이때 6~8명이 한 모둠이 되도록 나누고 모둠별로 관용 표현을 공부하게 합니다. PPT로 제시어 문제를 준비하고 교실의 학생용 TV 또는 모니터에 문제를 제시합니다. 문제를 설명하는 학생만 모니터를 볼 수 있게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문제를 내는 학생의 설명만 듣고 관용 표현을 맞춥니다. 문제를 낼 때는 해당 관용 표현에 등장하는 직접적인 단어는 말할 수 없게 하고 관용 표현의 의미를 설명하는 말과 행동은 허용합니다. 제한 시간 동안 많이 맞히는 모둠이 우승하는 게임입니다.

활동 내용

패들렛을 기반으로 한 관용 표현 글쓰기

활동 방법

- ① 주제와 관련된 관용 표현 찾고 패들렛에 기록하기
- ② 패들렛 댓글로 관용 표현을 활용한 짧은 글 쓰기
- ③ 체험을 바탕으로 한 짧은 글을 쓰고, 그 글에서 관용 표현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바꾸기
- ④ 친구와 글을 바꾸어 읽고 잘된 점과 고쳐 쓸 부분 등 감상 나누기

관용 표현은 실제로 사용해 보는 것이 중요하므로 패들렛을 이용한 글쓰기 수업을 제안합니다. 전체 4단계로 진행하는데, 1단계에서는 ‘말’, ‘노력’, ‘지혜’ 등의 주제를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관용어와 속담을 찾아보게 합니다. 각자가 주제별로 조사한 관용 표현을 패들렛에 기록해 친구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2단계에서는 친구들이 찾은 관용 표현마다 댓글로 짧은 글짓기를 합니다. 관용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합니다. 3단계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2~3문단의 짧은 글을 씁니다. 글쓰기 소재는 새 학년이 된 소감, 체육 대회를 마치고 느낀 점, 첫 시험을 본 소감 등 학생들이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쓸 때에는 1~2단계에서 익힌 다양한 관용 표현을 활용하게 합니다. 글을 다 쓴 후에 관용 표현을 넣어 고쳐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친구들과 글을 바꾸어 읽고 잘된 부분과 고쳐 쓰면 좋을 부분 등 감상을 나누게 합

니다. 이때 친구가 사용한 관용 표현이 글의 맥락에 적절
한지 살펴보게 합니다.

패들렛을 이용하여 글쓰기 수업을 하면 어떻게 글을 써
야 할지 몰라 막막함을 느끼던 학생들도 다른 친구들이
쓴 글을 참고해 글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
연스럽게 관용 표현을 글에 활용하는 예를 접할 수 있습
니다. 이 활동 자체를 과정 평가로 활용해도 좋고, 이 활동
을 토대로 글쓰기 수행 평가를 해도 좋습니다. 이러한 활
동 이후 관용 표현을 활용한 글쓰기 수행 평가를 진행하
면 관용 표현을 배운 후 바로 수행 평가를 하는 것보다 훨
씬 더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

학생 질문에는 이렇게!

Q 속담과 격언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속담은 누가 한 말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격언은 속담
에 비해 출처가 분명합니다. 책상 앞에 붙여 두고 나의 인
생 좌우명으로 삼고 싶은 말들은 속담보다 격언일 확률이
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둘을 구분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상황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속담 파티」(설하윤, 티에스엠엔터테
인먼트, 2022)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한술 밥에 배 부르랴’ 등 일
상에서 자주 쓰는 관용 표현들을 주요 가사로 한 노래입
니다. 흥미 유발을 위해 노래의 1절을 함께 듣고, 가사에
등장하는 다양한 관용 표현의 의미를 물으면 자연스럽게
관용 표현 수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갈산중학교 홍기연 선생님**

면담

面談

면담 인터뷰

국어사전에서 '면담'의 뜻을 찾아보면 '서로 만나서 이야기함.'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유의어로 '대화'가 있지만, 국어 교육에서 말하는 면담이 일상적인 대화의 개념은 아니다. 학생들이 수업에서 배우는 면담은 '특정 인물이나 주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면담자와 피면담자가 주고받는 대화'이다. 면담의 과정은 면담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데서 시작하는데, 특정 전문 분야나 진로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이 면담 목적의 예가 될 수 있다. 목적을 정하고 난 후에는 적합한 면담 대상자를 정하고, 면담 목적에 맞는 질문을 준비한다. 정보 수집이 목적이더라도 면담 대상자에 대한 사전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깊이 있고 실질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다. 면담을 진행할 때는 면담 내용을 메모하거나 녹음하고 때에 따라 즉흥적으로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으며, 면담 대상자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등의 적극적인 듣기 자세가 필요하다. 면담이 끝나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면담 결과를 정리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이 나 느낀 점을 생각해 본다.

수업 고민 이렇게 해결해요!

수업 고민

면담 수업을 꼭 진로와 관련지어 진행해야 할까요?

해결 방안

- 학급이나 학교의 전문가 학생을 찾아 면담하기
-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짝 면담하기

학교 현장에서는 진로 교육과 관련지어 면담 활동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모든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면담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면담 수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급이나 학교의 학생 중 특정 분야의 수행 능력이 뛰어난 '전문가 학생'과 면담을 하는 것입니다. 학습 능력, 운동 능력, 공감 능력, 사고 능력, 예술적인 표현 능력 등 여러 분야로 나누어 전문가 학생을 선정하고 면담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국어를 잘하는 학생이 있다면 '국어를 공부하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다면?', '평소에 책을 많이 읽는 편인가요?'와 같은 질문을, 상담을 잘해주는 학생이 있다면 '친구가 힘들 때 주로 어떤 말을 해주나요?', '공감하는 말하기의 필수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을 잘하는 전문가 학생'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면 면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짝 활동으로, 서로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하는 식으로 면담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특히 학기 초에 아이스 브레이킹용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이런 활동 어때요?

활동 내용

면담 결과를 발표하는 말하기 수행 평가

활동 방법

- ❶ 면담 과정에 따라 면담 진행하기
- ❷ 면담 결과 정리하고 발표 자료 만들기
- ❸ 면담 결과 발표하기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면담은 대화의 일종입니다. 그렇다면 교사가 모든 학생의 면담 과정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일일이 따라다니며 학생이 면담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평가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보통은 면담 과정을 녹음하고 기록하여 정리한 활동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말하고 듣는 능력을 평가하기보다는 정리된 면담 자료의 평가에만 국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면담이라는 말하기 활동 자체가 수업 시간에만 이루어질 수 없어 학생이 제3자의 도움을 받아 질문이나 답변 내용을 보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평가의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민하던 중에 동료 선생님들과 평가 기준에 대해 협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면담 평가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활동지 자체에 대한 평가 비율을 줄이고, 면담 과정에서 학생 본인이 나오도록 촬영한 영상을 첨부하거나 녹음 파일을 제출하게 하여 평가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의 실제 면담 과정을 간접적으로 관찰하며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면담 결과를 개별적으로 발표하는 말하기 평가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면담 결과를 10개 이하의 슬라이드로 구성된 프레젠테이션으로 정리하여 한 학생당 3분 내외로 발표하게 됩니다. 슬라이드 개수를 10개 이하로 제한한 이유는 면담의 핵심 내용만 추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실제적인 ‘말하기’라는 행위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학생 질문에는 이렇게!

- Q 면담의 첫 시작과 마무리에 무슨 말을 해야 하나요?

A 면담을 시작할 때 바로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먼저 자신이 왜 해당 진로 또는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소개하면 어떨까요? 긴장감도 덜 수 있고 면담에 진심으로 임하는 태도가 상대에게도 전해질 거예요. 면담을 끝낼 때에는 면담 전에 준비하며 들었던 생각과 면담 후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느낀 점, 앞으로의 다짐 등을 말하며 감

사 인사를 드린 후에 마무리하면 됩니다.

면담 대상자와 처음 만나거나 어색한 사이일 때 이와 같은 질문을 많이 합니다. 친교를 목적으로 하는 대화가 아니라 준비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대화이기 때문에, 학생 자신이 대화 도중에 즉흥적이고 재치 있는 답변을 생각하거나 길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면담도 대화의 일종이기 때문에 면담자의 질문 자세, 듣기 태도, 반응 등이 피면담자의 답변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담 수업 때 적극적인 듣기 태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고, 면담 준비 과정에서 질문 목록 작성뿐만 아니라 시작과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미리 생각해 보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신목중학교 배정인 선생님

반대 신문식 토론

反對訊問式討論

연관 주제, 논증, 교차 조사 토론, 정책 토론

반대 신문식 토론은 찬성, 반대가 명확하게 갈리는 논제에 대하여 적합한 근거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집단 의사소통 행위로, 상대측 입론의 논리적 오류를 밝히는 '반대 신문'을 사용하는 것이 다른 토론과의 차별점이다. 찬성 측이 먼저 입론을 통해 현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면, 반대 측은 이에 반해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변화를 시도하는 것보다 유리함을 입증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양측은 반대 신문을 통해 상대방의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는데, 상대측의 주장이 지닌 논리적 오류는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타당성은 주장의 결론 도출 과정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신뢰성은 근거가 믿을 만하고 출처가 명확한지, 공정성은 상대방의 주장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는 않은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논제를 바라보고 있는지 살피는 것이다. 반대 신문 과정에서는 상대측 주장의 오류를 지적하며 토론에서 보다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거나, 상대측에서 토론에 사용한 용어의 개념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다시 정의할 수도 있다. 반대 신문을 할 때는 입론에서 언급하지 않은 새로운 정보나 주장을 끌어와 논점의 범위를 흐려서는 안 되며, 자신의 오류를 시정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답변할 수 있는 개방형 질문보다 주장의 모순과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면 이를 인정해야 하는 폐쇄형 질문을 던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수업 고민 이렇게 해결해요!

수업 고민

학생들이 반대 신문식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해결 방안

- 반대 신문식 토론을 접할 수 있는 영상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흥미 유발하기
- 학생들의 일상과 연관성이 깊고 찬반이 명확히 갈리는 매력적인 논제 제시하기

반대 신문식 토론은 상대측의 주장이 갖는 문제점이나 오류를 날카롭게 지적하는 과정에서 긴장감과 속도감을 느낄 수 있어 학생들이 매우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는 토론 형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화법 수업에서 학생들이 꼭 한번은 반대 신문식 토론을 경험해 볼 수 있게 수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론에서는 정해진 절차를 지키는 것이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찾기 위한 자료 수집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토론 참여자로서의 성숙한 태도를 갖추는 것입니다. 토론에 참여하는 태도를 지도할 때에는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 드라마의 한 장면에서 변호사와 검사가 상대방의 주장을 품위 있게 공격하며 탁월한 논리로 반대 신문을 던지는 과정을 보여 준다든지, 대학생들의 거침없는 토론 과정을 다루는 TV 프로그램 등을 보여 주며 학생들 스스로 좋은 토론 참여자의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지요.

반대 신문식 토론에 대한 흥미 유발 단계를 거쳤다면, 다음으로는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나눌 수 있으면서도

평소 학생들의 관심사와 부합하는 논제를 찾아야 합니다. 저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살펴보고 현재 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논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대학생 토론 대회나 지역에서 주최한 청소년 토론 대회 등 기존 토론 대회의 논제를 참고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의 토론 관련 사이트를 참고하거나 최근 논란이 되었던 뉴스 기사에서 논제를 가져오는 것도 좋습니다. 이후 일차적으로 학생들에게 논제를 쪽 붙여 주며 찬성과 반대를 각각 조사하는데, 가장 팽팽하게 찬반이 대립하는 논제를 선택해야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하게 됩니다. 이번 토론에서는 '전동 키보드를 폐지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진행했는데, 전동 키보드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은 반면 불편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아 토론 내내 치열한 설전을 이어 갈 수 있었습니다.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전동 키보드 관련 기존 정책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여러 정책 아이디어를 내면서 민주 시민 교육까지 이어 갈 수 있어 매우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활동 어때요?

활동 내용

영화 「다크 워터스」를 바탕으로 한 생태 통합 토론 수업

활동 방법

- ① 영화 「다크 워터스」 감상하기
- ② 관련 내용 조사하고 전문적 자료 수집하기
- ③ 논제 '과학 기술 개발을 멈추어야 한다.'로 토론하기
- ④ 토론 후 의견이 달라진 점이나 배운 점이 있는지 공유하기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생태 통합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는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앞으로 함께 지구를 공유하며 살아가야 하는 후속 세대를 위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자연을 대해야 할까요? 생태적 감수성은 환경을 보호하는 것에서 나아가 자연과 인간을 동등한 관계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며 배려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능력입니다. 심각한 기후 위기가 우리의 일상을 뒤흔드는 이 시점에서 과연 과학 기술을 계속 개발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멈추고 환경을 복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지 주장과 근거를 갖추어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만으로도 학습자에게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다크 워터스」(토드 헤인즈 감독, 2020)는 실화를 기반으로 한 영화로, 독성 폐기 물질을 불법으로 유출해 온 미국의 화학 기업 듀폰의 실태를 알게 된 후 20년 동안 대기업을 상대로 용기 있는 싸움을 해 온 미국의 변호사 린

빌렛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함께 영화를 감상하고 인류의 기술 발전이 과연 환경에 도움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에 대한 짙막한 개인 감상평을 남기게 한 다음, ‘과학 기술 개발을 멈추어야 한다.’라는 논제로 찬성 측과 반대 측을 나누는 후 반대 신문식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토론 전 준비 활동으로 직소 협동 학습(과제 분담 협동 학습) 모형을 활용하여 찬성 측 참여자와 반대 측 참여자가 서로 모여 주장에서 활용할 만한 효과적인 근거를 수집했습니다. 기본적인 근거 자료는 교사가 준비하되, 찬성과 반대 측 참여자별로 모둠을 구성하여 자료 수집과 조직 단계를 함께하게 한 후 본격적으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과학 기술의 폐해에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가 담긴 영화를 감상한 후라 찬성 측에 몰리는 학생이 많을 것 같았지만, 오히려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과학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문명의 편리함과 생태계 보전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학생들의 주장도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면서 대등한 토론을 선보였습니다. 토론이 끝난 후에는 토론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며 새롭게 알게 된 사실과 생각이 달라진 부분을 글로 정리할 수 있게 하고, 그 과정에서 배운 점과 사회 발전을 위한 토론의 필요성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며 수업을 마무리했습니다.

학생 질문에는 이렇게!

Q 반대 신문식 토론에서 찬성과 반대는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 것인가요?

A 현재 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개선과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쪽이 찬성 측, 현재 상황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거나 변화를 시도할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반대 측입니다.

간단한 질문 같지만 그 속에는 토론의 본질과 이유가 전부 담겨 있습니다. 분명 토론은 서로의 주장이 옳다, 그르다를 따지며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경쟁식 의사소통 방식인데, 왜 이를 합리적인 의사 결정 방식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토론은 찬성 측, 혹은 반대 측이 이겼다고 해서 끝나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지금의 상황

을 문제 삼고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다른 누군가는 그 변화가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신중하게 접근하기도 합니다. 어느 한쪽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는 건강한 공동체라 할 수 없습니다.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무조건 옳다고 여겼던 내 주장이 사실은 심각한 논리적 오류가 있음을 깨닫게 될 수도 있고,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한 변화의 움직임이 사실은 우리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해결책임을 인지하게 될 수도 있지요. 그렇기에 학생들은 반대 신문식 토론을 통해 토론은 결과보다 그 과정이 중요하며, 토론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공동체 발전을 위한 더 나은 방향을 찾는 것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토론의 힘 생각의 격』(허원순, 한국경제신문, 2022)

실제 수업에서 토론을 해 보고 싶은 선생님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떤 논제를 정해야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까?’일 것입니다. 이 책은 70가지 찬반 토론 이슈를 담고 있어 논제를 선정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쟁과 규제, 고용과 노동, 성장과 복지 등 서로 충돌하는 가치 가운데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입장을 지녀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토론 논제들이 가득합니다.

❖ 논산고등학교 김혜진 선생님

발표

發表

연관 준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연설

수업 고민 이렇게 해결해요!

수업 고민

말하기 불안이 있는 학생들에게 발표 지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 방안

- 말하기 불안의 원인 파악하기
- 말하기 성공 경험 부여하기

발표란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에서 청중의 수준과 흥미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적절한 언어적, 비언어적, 준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말하는 것이다. 발표를 할 때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언어적 표현 외에도 준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준언어적 표현이란 말소리(언어)는 아니지만 말소리에 얹혀 있는 말의 높낮이, 성량, 속도 등으로, 이를 말로 다 전하지 못하는 느낌이나 태도, 감정 등을 전하는 요소로 보아 반(半)언어적 표현이라고도 한다. 비언어적 표현을 언어와는 별개로 영향을 미치는 표정, 손짓, 몸짓, 시선 등을 말한다. 발표를 할 때에는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준언어적 표현을 발표 내용에 어울리도록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발표 수업이나 평가를 진행할 때마다 말하기 불안이 있는 학생들 때문에 고민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공식적인 상황에서 발표를 해 본 경험이 적기 때문에 떨리고 초조한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수준이 과한 학생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경우 말하기 불안으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는 학생들에게 발표를 시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지 고민하게 됩니다. 학생들의 성향이 모두 다른 것처럼 말하기 불안의 원인도 학생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만약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면 해당 원인을 제거할 수 있게 돕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생의 말하기 불안의 원인이 자신감 결여라면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사전에 발표 내용에 관해 피드백하거나, 수업 중 말하기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는 것이지요. 친구들의 시선 집중이 부담스러워 발표를 두려워하는 것이라면 앞자리에서 발표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발표 대본을 보고 읽을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지도할 수 있습니다. 말하기 불안을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 경험입니다. 학생들이 타인들 앞에서 말하기 실패를 경험하지 않음으로써 트라우마를 갖지 않게 하는 것, 성공을 경험함으로써 자신감을 키우게 하는 것이 말하기 불안 극복의 핵심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활동 어때요?

활동 내용

친구 소개 발표하기

활동 방법

- 1 나를 가장 잘 드러내는 키워드 세 가지 작성하기
- 2 친구에게 던지는 질문 세 가지 작성하기
- 3 무작위로 선정된 친구 세 명에게 나의 키워드 세 가지를 소개하고, 내가 던진 질문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기록하기
- 4 2인 1조 짝꿍 친구 정하기
- 5 친구의 키워드 세 가지와 나의 질문에 대한 친구의 답변을 바탕으로 추가 인터뷰 진행하기
- 6 친구 소개 발표하기

학생 질문에는 이렇게!

- Q**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 너무 떨리고 대본을 외우기도 힘든데 미리 영상으로 녹화해서 보여 주면 안 되나요?

학기 초에 진행하기 좋은 발표 수업입니다. 친구들과 친해지기 전에 여러 친구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부담 없이 발표를 경험할 수 있어 자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학기 초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에게 이 활동이 효과적입니다. 나를 표현하는 키워드 세 가지를 적게 하면 자기소개를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연예인, 최근 관심사 등 키워드를 쉽게 작성합니다. 2인 1조로 짝꿍 모둠을 정해 서로를 더 알아 갈 수 있는 인터뷰 질문을 만들어 대화하게 한 후, 그 내용을 바탕으로 친구를 소개하는 발표를 하면 모두가 즐겁게 발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A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이 떨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완벽한 발표를 해야 한다는 부담을 조금 내려놓아 볼까요? 떨리는 마음을 극복해 가며 실제로 발표를 해 보면 그 자체가 훌륭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발표문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말할 내용을 떠올려 가며 발표 연습을 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발표 수행 평가를 위해 발표문을 작성하는 시간에 한 학생이 자신의 발표를 영상으로 녹화해서 틀어 주면 안 되느냐는 질문을 해서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완벽하게 발표해야 한다는 생각에 발표에 대한 부담감이 컸던 학생이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해 보는 경험이 중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시켰고, 실제 발표처럼 미리 연습을 해 보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다행히 그 학생은 제안을 수용하고 발표를 무사히 잘 수행했습니다.

❖ 배곧중학교 김민정 선생님

비언어적 표현

非言語的表現

연관 준언어적 표현, 반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이란 언어 외에 상대방에게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정, 시선, 손짓, 자세 등을 말한다. 비언어적 표현은 보통 언어적 표현만으로 의미 전달이 부족할 때 의미를 보충하거나 강화하기 위해 사용한다. 예를 들면 “화장실은 오른쪽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손으로 오른쪽을 가리킬 때 바로 이 손짓이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한다. 비언어적 표현은 언어적 표현을 보충하거나 강화할 뿐만 아니라 언어적 표현을 완전히 대체하기도 한다. 수업 시간에 떠드는 학생에게 “조용히하세요.”라고 말하는 대신 검지를 입술 앞에 가져다 댄 후 학생과 눈 맞춤을 하여 주의를 주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런데 비언어적 표현이 언어적 표현과 완전히 반대되는 의미를 전달하는 때도 있다. 배고파하는 친구에게 내가 먹으려 했던 맛있는 빵을 건네주며 “나는 이 빵 싫어하는데 너 먹을래?”라고 말하는 상황을 떠올려 보자. 만약 내가 빵을 보며 입맛을 다시는 행동을 하거나 아쉬움이 담긴 눈빛을 보인다면 친구는 나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이해할까? 아마도 비언어적 표현 속에 담긴 진짜 감정이 언어적 표현과 상반됨을 파악하고 나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말지 고민하게 될 것이다.

수업 고민 이렇게 해결해요!

수업 고민

학생들이 친구들 앞에서 발표할 때 계속 대본만 내려다봅니다. 비언어적 표현 가운데 시선도 중요한 요소인데, 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해결 방안

- 짝 발표, 모둠 발표, 학급 발표 등 점진적으로 청중을 확대하여 시선 처리 연습하기
- 체조, 명상 등으로 학생의 말하기 불안 해결하기

이런 활동 어때요?

활동 내용

문학 작품 재구성 단원과 연계한 연극 수업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교사의 눈을 바라보며 발표를 잘하던 학생도 막상 교실 앞에 나가서 다수의 청중 앞에서 서게 되면 시선이 대본으로만 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기 경험이 적은 학생의 경우 같은 내용으로 충분히 예행연습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우선 짝과 시선을 맞추며 발표를 해 본 뒤 적용이 되면 4~5명 정도 되는 모둠 안에서 발표 연습을 합니다. 여러 명과 눈을 맞추며 발표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발표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청중을 확대하면서 시선 처리를 연습시키면 곧 능숙하게 발표하게 됩니다. 한편, 말하기 불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면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체조법, 명상법 등을 알려 주고 서서히 불안감을 낮추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학기 초 비언어적·준언어적 표현 방법과 관련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고민하던 상황이었습니다. 1, 2학기 교과서를 같이 펼쳐 놓고 살펴보던 중 문학 작품 재구성 단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단원에는 황순원의 단편

활동 방법

- ① 해당 학년 국어 교과서 소설 지문 선정하기
- ② 모둠을 구성하여 소설의 한 장면을 연극 대본으로 각색하기
- ③ 비언어적 표현이 잘 드러나도록 연기하기

소설 「소나기」를 드라마 대본으로 각색한 지문이 실려 있었습니다. 순간 해당 학년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는 또 다른 소설인 김유정의 「동백꽃」이 떠올랐습니다. 두 청소년의 오해와 갈등, 풋풋한 사랑이 잘 드러나 있어 연극 대본으로 재구성했을 때 재미있는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또한 연극의 특성상 학생들이 직접 표정 연기와 몸짓 연기를 수행해야 하므로 비언어적 표현도 같이 연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듣기·말하기 단원의 개념 학습이 끝난 후 모둠을 나누어 「동백꽃」의 한 장면을 골라 연극 대본으로 재구성하는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인물의 성격, 대사, 결말 등을 일부 수정할 수 있다고 했더니 학생들이 더 신나게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이 제출한 1차 대본을 읽고 교사 피드백을 진행했고, 그것을 반영한 최종 대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 45분을 연극 준비 시간으로 제공했습니다. 한 모둠의 공연 시간이 10분을 넘기지 않아야 하며, 모든 모둠원이 배우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규칙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연극 공연 당일, 학생들은 제 예상보다도 더 진지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공연에 임했습니다. 연습 때보다 더 실감 나는 표정 연기와 몸짓을 보여 주는 학생도 있었고, 배역에 몰입하다 보니 대본에 없는 비언어적 표현을 자연스럽게 추가하여 연기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특히 친구들이 공연을 보며 손뼉을 치거나 탄식하는 등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 줄 때마다 배우들의 비언어적 표현 역시 더욱 생생해졌습니다.

연극 수업은 대본 작성과 연습, 공연까지 약 2주간의 시간이 필요하기에 비언어적 표현 능력만을 학습하고 평가하기 위해 연극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다른 단원과 연계하여 수행평가로 진행하거나, 기말고사 후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한 기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극 대본 창작 작업이 학생들에게 부담스러운 작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 청소년 연극의 대본을 구해 학생들에게 비언어적 표현을 수정·보완하게 한 다음 공연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

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 질문에는 이렇게!

Q 비언어적 표현과 언어적 표현이 상반되는 경우 화자의 의도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나요?

A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이 상반되는 경우 비언어적 표현이 화자의 의도를 더 잘 드러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어적 표현은 고의로 숨기거나 왜곡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눈빛, 표정, 자세 등의 비언어적 표현은 무의식의 영향을 많이 받아 언어적 표현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도를 숨기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숙련된 연기자이거나 오랜 시간 거짓말을 준비해 온 사람이라면 비언어적 표현 역시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담화가 이루어지는 상황 맥락을 잘 고려하여 화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세상의 모든 법칙: 디지털 소통, 2% 부족한 이유는?」(EBS, 2020. 8. 6.)

4분 정도 분량의 영상으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비언어적 표현이 필요한 까닭과 그 중요성을 다룹니다. 비언어적 표현이 사용되는 다양한 상황을 재미있게 그리고 있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에 좋습니다. 또한 SNS 이용이 늘면서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한 소통 능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어 생각할 거리를 제공합니다.

❖ 원촌중학교 김자영 선생님

상황 맥락

狀況脈絡

연관 사회 문화적 맥락

상황 맥락은 화자와 청자의 관계, 담화가 이루어지는 시간과 장소, 담화 목적과 화자의 의도 등 담화 상황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말이다. 담화의 의미는 어떤 상황 맥락 속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가족 모두가 배고파하는 상황에서 부모님이 밥솥을 들여다보며 “밥이 많이 남았구나.”라고 말한다면 이는 가족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어 다행이라는 안도의 말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 모두가 배불리 식사를 마친 상황에서 “밥이 많이 남았구나.”라고 말했다면 이는 가족들의 식사량을 잘못 계산해 음식이 남아 난감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황 맥락을 고려하지 않으면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울 수 있다. 한어람에 친구가 시원한 음료를 파는 카페를 가리키며 “목마르지 않나?”라고 물어본다면, 이는 걸으려는 질문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 안에는 ‘카페 안에 들어가서 음료를 마시자.’라는 제안이 담겨 있다. 그런데 상황 맥락을 고려하지 못하고 친구의 질문에 “아니, 나는 목 안 마라.”라고 대답한다면 친구는 답답해하거나 눈치가 없다며 화를 낼 것이다. 따라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상황 맥락을 잘 파악해야 한다.

수업 고민 이렇게 해결해요!

수업 고민

문장의 유형과 발화 의도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효과적일까요?

해결 방안

- 한국의 문화적 특성 설명하기
- 하나의 발화 의도를 다양한 유형의 문장(평서, 의문, 청유, 명령, 감탄)으로 표현해 보기

상황 맥락을 수업하다 보면 문장의 유형과 발화 의도가 다른 예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지금 밤 11시 30분이 다.”라는 문장은 단순히 시간을 알려 주는 평서문일 수 있지만 컴퓨터 게임을 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한 말이라면 빨리 컴퓨터를 끄고 자라는 명령의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문장의 유형과 발화 의도가 다른 경우 학생들이 담화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종종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상 원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전달하기보다 간접적으로 돌려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문장의 유형과 발화 의도가 다른 상황이 왜 발생하는지부터 이해시키는 과정입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문장 유형을 직접 활용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연습을 해 봅니다. 바람이 차가우니 창문을 닫아 주면 좋겠다는 의미를 ‘오늘 날씨가 엄청 춥다.’, ‘오늘 춥지 않니?’, ‘바람이 차니 창문을 닫자!’, ‘창문을 닫아라.’, ‘바람이 너무 차구나!’ 등의 표현으로 변형해 본 후 각 표현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학생들이 직접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문장의 유형과 발화 의도가 다른 사례에 익숙해지고 담화 해석 능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 어때요?

활동 내용

상황 맥락 카드 게임

활동 방법

- ❶ 모둠을 구성하여 상황 맥락 정보가 적힌 카드 만들기
- ❷ 모둠원끼리 카드를 나누어 가진 후 자신이 가진 카드 내용을 조합하여 상황 맥락과 그에 어울리는 담화 만들기
- ❸ 순서를 정해 각자 자신이 가진 상황 맥락 카드는 숨긴 채 담화만 공개하기
- ❹ 담화를 듣고 상대가 가진 상황 맥락 카드가 무엇인지 추론하여 맞히기

상황 맥락 카드 게임은 담화의 의미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상황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 고안했습니다. 먼저 상황 맥락이 담긴 카드를 만듭니다. ‘병원’, ‘학교’, ‘집’, ‘놀이터’ 등의 공간 정보, ‘아침 8시’, ‘오후 5시’, ‘수업 시간’, ‘쉬는 시간’, ‘급식 시간’ 등의 시간 정보, ‘엄마’, ‘아빠’, ‘친구’, ‘직원’, ‘가게 사장’ 등의 인물 정보를 하나의 카드에 한 개씩 적습니다. 모둠원끼리 여러 장의 카드를 나누어 가진 후 가지고 있는 카드를 조합하여 상황 맥락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놀이터’, ‘오후 5시’, ‘친구’라는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오후 5시에 놀이터에서 친구와 노는 상황’이라는 상황 맥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화자와 청자가 나눌 만한 담화를 만들어 종이에 적습니다. 모든 모둠원이 담화를 완성했다면 모둠원들이 돌아가면서 한 명씩 자신이 만든 담화를 읽어 줍니다. 나머지 모둠원들은 상대가 가진 상황 맥락 카드가 무엇인지 추론하여 맞힙니다. 상대방이 가진 카드 내용을 맞히면 그 카드는 맞힌 사람이 가져갑니다. 모둠원 모두가 담화를 발표하면 게임을 마무리하고, 카드를 가장 많이 가져간 사람에게 박수를 쳐 줍니다. 세부적인 게임 규칙은 교사가 추가하거나 변형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학생 질문에는 이렇게!

- ❶ 청자가 상황 맥락을 잘 몰라도 담화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화자가 처음부터 잘 말하면 안 되나요?

A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화자와 청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화자는 청자가 자신의 발화를 오해하지 않게 명확한 단어를 사용해 충분한 양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이 동생에게 “틀어 줄까?”라고 물을 때 동생은 형이 에어콘을 틀어 준다는 것인지, TV를 틀어 준다는 것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목적어를 생략하지 않고 정확히 밝히는 것이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겠지요. 물론 화자와 청자가 교류한 기간이

길고 공유한 경험이 많으면 세부적인 내용을 생략해도 소통할 수 있습니다. 매일 오후 4시에 형제가 TV 프로그램을 함께 시청해 왔고 형이 동생에게 질문한 시각이 오후 4시였다면, 동생은 자연스럽게 “틀어 줄까?”에 생략된 목적어가 ‘TV를’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화자는 청자의 나이와 배경지식 등을 고려해서 자신의 발화 의도를 적절하게 드러내야 하며, 청자 또한 상황 맥락을 토대로 화자의 발화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 원촌중학교 김자영 선생님

원탁 토의

圓卓討議

원탁 토의

수업 고민 이렇게 해결해요!

수업 고민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흥미를 가진 만한 토의 주제를 선정할 수 있을까요? 또 발언권이 소수 학생에게 집중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 방안

- 학생의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제 선정하기
- 교사가 일방적으로 하나의 주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여러 주제 중 선택하거나 논의를 통해 주제 만들게 하기

10명 이내의 참가자가 대등한 관계로 정해진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토의를 원탁 토의라고 한다. 원탁 토의는 배심 토의, 공개 토의, 대담 토의, 단상 토의 등과 더불어 토의의 하위 종류에 속한다. 참가자 모두가 둥근 탁자에 둘러앉아 상호 대등한 관계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론할 문제를 선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견을 교환하는 원탁 토의는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과정에서 민주적인 태도를 학습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참가자들이 지나치게 사건만 이야기하면 의사소통에 갈등이 생겨 결론 없는 논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원탁 토의 주제의 예시로는 '합창 대회 참가곡으로 어떤 곡을 선정할 것인가?', '청소년당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등이 있다.

찬반 양측의 입장을 나누어 승패를 확정해야 하는 토론과 달리, 원탁 토의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 학생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상호작용하며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교육적 장치입니다. 수업을 하다 보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발표하는 학생은 한 반에 3~5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학생 대부분이 수업 중 발표하지 않는 까닭은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르거나, 답이 틀릴지도 모른다는 염려, 수업 자체에 대한 낮은 흥미 정도로 쉽게 예측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탁 토의는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정해진 답이 없으므로 학생들이 쉽게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원탁 토의의 주제를 정할 때는 학생들의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과 관련된 흥미로운 주제를 여러 개 제시하여 그 중에서 선택하게 하거나, 학생들이 직접 주제를 만들어 보게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운동회 때 입을 반 티셔츠 정하기' 같은 안건은 원탁 토의 주제로 아주 적합한 예시입니다. 실제로 반 티셔츠 선정 문제는 해마다 학생들의 열띤 토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한 주제로 원탁 토의를 진행함으로써 토의가 어렵고 따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전달하고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수단임을 학생들이 깨닫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그룹 내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지도해도 소극적인 학생들은 의견 표출을 어려워할 수 있습

니다. 이때에는 ‘토킹스틱’ 활용을 추천합니다. 참가자 전원이 둘러앉아 토킹스틱을 각자 3~5개씩 나누어 갖고, 의견을 개진할 때마다 중앙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참가자 전원이 토킹스틱을 소진하면 다시 토킹스틱을 나누어 줍니다. 토킹스틱을 활용하면 소극적인 학생도 자연스럽게 발언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또한 참가자들의 발언 기회가 제한되어 있기에 학생들 역시 발언을 할 때 신중하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는 자칫 산만해질 수 있는 원탁 토의의 분위기를 학생들 스스로가 적절히 조절하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 어때요?

활동 내용

학급 내 문제 상황 해결을 위한 원탁 토의 수업

활동 방법

- ① 원탁 토의 주제 선정하기
- ②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근거 정리하기
- ③ 모둠 내 역할 분담하기
- ④ 원탁 토의하기
- ⑤ 원탁 토의 과정 평가하기
- ⑥ 모둠별 원탁 토의 결과 공유(발표)하기

학생들의 흥미 유발과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해 학급 자치 시간과 통합하여 원탁 토의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학급 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 상황, 예를 들어 ‘학급 내 지각생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학급 생일 파티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까?’, ‘학급 야영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까?’ 등을 원탁 토의 주제로 선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모든 모둠이 하나의 주제로 토의해도 좋고, 모둠별로 서로 다른 주제를 선정해도 좋습니다.

원탁 토의는 상호 동등한 관계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지만, 합리적인 문제 해결 과정이 토의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타당한 근거를 들어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실제로 ‘학급 내 지각생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토의했을 때 무조건 ‘벌금을 걷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특정 학생이 토의를 주도하자 다른 학생들은 그저 수긍하며 빠르게 토의가 종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원탁 토의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때문에 그때 제가 개입하여 벌금을 걷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묻고, 그 근거에 따른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그 주장에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게 했더니, 꺼져 가던 토의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둠 내에서는 사회자와 참여자의 역할을 분담한 뒤 토

킹스틱을 나누어 주고 원탁 토의를 시작합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토킹스틱을 3개씩 배부하였고, 토의 참여자 전원이 3번의 발언 기회를 소진하면 다시 3개의 토킹스틱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모두가 골고루 발언하고, 특정 학생의 주도로 토의가 종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책입니다.

상호 합의하에 토의 주제에 대한 결론을 도출한 뒤에는 자신과 모둠원의 토의 과정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신과 모둠원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는지, 타당한 근거를 들어 주장했는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난하지 않고 경청했는지 등을 스스로 및 상호 평가함으로써 토의 과정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둠별로 어떤 결론을 도출했는지 공유하며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의 모둠과 다른 모둠의 결론을 비교해 보고 그에 대해 질문하고 의견을 제시 하면서 학급 전체의 토의로 확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학생 질문에는 이렇게!

Q 원탁 토의는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것인데, 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명해야 하나요?

A 토의의 본질적 목적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즉, 토의는 특정 주제에 대해 가장 합리적인 해결안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다만 원탁 토의는 그 과정에서 다른 토의 유형에 비해 자유로운 방식으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요. 따라서 원탁 토의에서도 합리적인 해결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을 타당한 근거를 들어 말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토의 및 토론 수업의 프로토타입 연구』(이혜린, 한양대학교, 2010)
- 『토의 토론 수업 방법 99』(정문성, 교육과학사, 2022)

토의·토론 수업의 프로토타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논문입니다. 토의·토론 수업의 다양한 유형과 그 특징을 비교하고, 각각의 절차를 세부적으로 제시하여 토의·토론 수업을 전반적으로 설계할 때 유용한 자료입니다.

토의·토론 수업 적용 모델과 주제 부여 방법, 교사의 역할, 토의·토론자의 역할 등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어 토의·토론 수업 준비 시 도움이 됩니다.

❖ 영원중학교 유주신 선생님

준언어적 표현

準言語的表現

연관 비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준언어적 표현이란 언어 표현과 더불어 상대방에게 의미를 전달하는 작용을 하는 말의 빠르기, 억양, 목소리 크기, 목소리 높낮이, 강세 등을 말한다. 언어적 표현에 덧붙여 같이 사용하며,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거나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크고 높은 목소리로 외친 “어머나!”에서는 놀람과 기쁨의 감정이 느껴지고, 낮고 작은 목소리로 나지막이 읊조린 “어머나…….”에서는 안타까움과 슬픔의 감정이 느껴진다. 언어적 표현이 같다고 해도 준언어적 표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다. 또한 다수의 청자에게 화제가 발생했으니 당장 대피해야 한다고 경고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말의 속도는 빠르게, 목소리 크기는 크게, 높낮이는 높게 해야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같은 메시지를 느린 속도로, 무미건조한 억양으로, 낮은 목소리로 전달한다면 어떻게 될까? 청자가 상황의 긴급함과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여 의미 전달에 실패할 수 있다. 즉, 준언어적 표현은 언어적 표현만큼이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이다.

수업 고민 이렇게 해결해요!

수업 고민

준언어적 표현의 개념과 효과를 가르칠 때 어떤 수업 자료를 제시해야 효과적일까요?

해결 방안

드라마, 영화 등에서 준언어적 표현이 효과적으로 드러나는 장면 선정하여 제시하기

화법 단원을 가르칠 때 제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이 단원을 실생활과 밀접하다고 느끼게 만들 수 있을까?’입니다. 준언어적 표현의 개념과 효과를 이해시키기 위해 저는 당시에 유행하는 드라마나 영화의 명장면을 제시합니다. 갈등이 심화하거나 배우들의 감정이 고조되는 장면 위주로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보여 준 뒤 화자의 감정과 의도를 추론하고, 준언어적 표현이 없었을 때 느낌이 어떻게 달라질지 상상해 보게 합니다. 영상의 길이는 30초 이상 3분 미만으로 선정합니다. 영상의 길이가 너무 짧으면 앞뒤 대화 맥락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의사소통 과정 전반을 관찰하기에 부족합니다. 반면 영상의 길이가 너무 길면 수업이 지루해지거나 학생이 영상 자체에만 흥미를 느끼고 학습 목표 달성에는 소홀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 어때요?

활동 내용

구연동화 오디오북 만들기

활동 방법

- 모둠별로 오디오북으로 제작할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준언어적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준언어적 표현을 의식하면서 말을 해 보라고 하면 어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준언어적 표현을 재미있게 연습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구연동화 오디오북 만들기 수업을 계

- 동화 선정하기
- ② 준언어적 표현이 잘 드러나도록
낭송 연습하기
- ③ 오디오북 만들기

확하게 되었습니다. 구연동화는 보통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목소리를 변조하거나 과장하여 재미있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야기의 길이가 짧고 인물과 사건이 단순하기에 구연하는 화자의 역량에 따라 청중의 이해도와 흥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연동화에서는 준언어적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차시에는 모둠별로 구연하고 싶은 동화를 한 편씩 고르고 모둠원별로 역할을 나눕니다. 2차시에는 준언어적 표현을 다양하게 사용하여 동화를 낭송하는 연습을 합니다. 3차시에는 낭송한 것을 녹음한 후 이를 편집하여 오디오북으로 만듭니다. 4차시에는 다른 모둠 친구들과 오디오북을 공유하고 상호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동화를 낭송하는 수업으로 계획하여 2차시 활동으로 끝낼 수도 있지만, 저는 오디오북을 제작하는 과정까지 진행할 것을 추천합니다. 오디오북으로 제작하면 시간이 지나면 휘발되는 말하기 수업의 결과물을 두고두고 들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서로의 결과물을 비교 평가할 때 도움이 되기도 하며, 수업 후 결과물이 남는다는 점에서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학생 질문에는 이렇게!

- Q 일반적으로 여자의 음역이 남자의 음역보다 높는데, 목소리의 높낮이는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낮은 목소리와 높은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여자도 진지하고 엄숙한 상황에서는 목소리를 낮출 수 있고, 남자도 유쾌하고 즐거운 상황에서는 목소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목소리의 높낮이는 화자의 감정, 발화의 내용, 담화 상황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성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마다 준언어적 표현을 수업할 때면 이와 비슷한 질문을 받고는 합니다. 목소리의 높낮이를 음역으로 잘못 이해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말로만 설명하기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남녀가 높은 목소리와 낮은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영상 자료로 준비해 직접 보여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원촌중학교 김자영 선생님

토론

討論

연관 주장과 근거,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반대 신문식 토론

수업 고민 이렇게 해결해요!

수업 고민

짧은 차시로 토론 수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해결 방안

밸런스 게임과 접목하여 1:1 짝 토론하기

어떤 문제에 대해 사람들의 입장과 생각이 다를 때 논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 상대방을 설득하는 말하기를 토론이라고 한다. 토론은 찬반 측이 승패를 가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토론 과정에서 대립하는 쟁점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며 공감대를 넓혀 가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논제, 토론자, 사회자, 청중이 필요하다. 논제는 찬반으로 명백하게 나뉠 수 있어야 하며, 긍정의 서술문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론자는 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하고 주장과 근거를 마련하며, 토론을 할 때에는 상대방 토론자에 대한 감정적 발언이나 비난을 삼가고 상호 존중하며 예의를 갖추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사회자는 토론 순서와 규칙에 따라 토론을 진행하고, 청중은 토론 내용에 대해 질문하거나 판정에 참여한다.

교육적인 논제를 정하고 규칙과 절차를 지켜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2차시의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1차시 안에 토론을 간단하고 재밌게 진행하고 싶다면? 밸런스 게임을 접목한 1:1 짝 토론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밸런스 게임이란 고민스럽게 만드는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게임입니다. 이를 토론에 접목한 예로 '겨울에 이불 없이 자기 vs 여름에 히터 틀고 자기' 중 하나를 고르고, 고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합니다. 교사는 미리 준비한 제시문을 학생들에게 보여 주고, 서로 다른 선택을 한 친구들끼리 짝을 맺어 줍니다. 단, 이때에도 간단한 규칙은 필요합니다. 말하는 순서, 발언 시간을 정해야 하며,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이름 뒤에 '님'을 붙여 부르고 존댓말을 쓰도록 합니다. 이러한 규칙이 있어야 지나치게 장난스럽거나 의견 대립으로 인해 분위기가 과열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다양한 제시문을 준비할수록 학생들의 참여도도 높아질 수 있으며, 학생들과 함께 논제를 정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깟논쟁'으로 토론했을 때 학생들의 반응이 가장 뜨거웠습니다.

이런 활동 어때요?

활동 내용

국어과와 기술과의 융합 토론 수업

인공 지능 교육 관련 연수를 함께 듣는 기술 선생님께서 토론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정해진 절차가 어떠한지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마침 토론 수업을 준비하고 있던 때라 융합 수업을 제안했고, 함께 구체적인 수업 내

활동 방법

- 1 국어과 수업에서 토론의 개념과 방법 등에 대해 수업하기
- 2 기술과 수업에서 쟁점이 있는 논제 생성하기
- 3 모둠 구성 및 모둠별 주장과 근거 마련하기
- 4 토론하기

학생 질문에는 이렇게!

- Q** 신뢰성, 타당성은 잘 이해가 되는데 공정성은 왜 지켜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토론 자체가 자신의 입장에 더 유리하게 말해서 청중을 설득하는 것이 아닌가요? 공정성을 지키면 불리해질 것 같아요.

용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토론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과 절차를 익히는 수업은 국어과에서 진행합니다. 이와 동시에 기술과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며 찬반이 명백하게 나눌 수 있는 토론 논제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자율 주행 자동차 3단계가 국내에 상용화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인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공지능은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등이 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후 모둠을 구성하여 모둠원들이 논제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며 근거가 될 만한 자료를 정리하고, 이후 국어과 수업에서 본격적인 토론을 실시합니다.

융합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전문적인 교과 지식을 바탕으로 주장과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토론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국어 수업 시간에 여러 차시를 할애해야 했던 논제 선정 및 자료 조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오롯이 토론 진행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꼭 기술과가 아니라더라도 다양한 교과와 융합하여 진행할 수 있으므로 토론 수업을 준비한다면 융합 수업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A 공정성은 '주장과 근거가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에 치우친 내용은 아닌가?'에 대해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쉽게 말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도 고개가 끄덕여 지도록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이 아니어야 하고, 다양한 가치와 문화를 존중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주장과 의견이어야 해요. 토론의 목적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토론의 과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의견 교환 방법을 배우는 것이죠. 단순히 공격적으로 상대측이 제시한 모든 근거를 비판하며 자신의 주장만 계속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논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맞는 반론을 펼치는 것이 토론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상대측이 제시한 근거 중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논리적인 허점과 오류에 대해 반박한다면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거예요.

❖ 신목중학교 배정민 선생님



**읽기
쓰기**

글의 구조

연관 글의 전개 방식

글의 구조란 글쓰기가 글을 쓰거나 조직할 때 사용한 기본 형태 또는 기본 열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글의 구조는 '처음-중간-끝'으로 정리할 수 있지만 글의 종류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설명문은 '머리말-본문-맺음말', 논설문은 '서론-본론-결론', 기사문은 '표제-부제-전문-본문-해설', 이야기나 소설은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 등으로 나타난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글은 글쓰이의 논지 전개 방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구조를 활용한다. 원인-결과 구조, 비교-대조 구조, 문제-해결 구조, 주장-근거 구조, 주지-상세화(상술, 부연, 첨가, 보충) 구조, 원리-적용 구조, 대립 구조, 전제-결론 구조, 나열(열거) 구조 등이 있는데, 글쓰이는 이 구조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글을 쓴다. 아울러 이 구조들은 문단과 문단 간, 단락과 단락 사이, 글 전체와 부분 사이에 활용된다.

수업 고민 이렇게 해결해요!

수업 고민

기사문을 가르칠 때 '전문'과 '본문'을 구별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해결 방안

- 전문과 본문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전문과 본문을 직접 써 보기
- 전문의 의도를 이해하고 읽고 싶은 기사를 선별하기

기사의 구조는 '표제-부제-전문-본문-해설'이지만, 3단으로 정리하면 '표제-전문-본문'입니다. 부제는 표제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표제와 묶을 수 있고, 해설은 기사를 읽을 때 참고가 될 사항이나 독자들에게 알릴 내용을 서술하는 것으로 본문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전문은 본문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한 것으로 실제로 기자들은 공들여 전문을 작성합니다. 긴 본문에서 핵심만 뽑아 작성하는 이유는 독자들이 전문을 통해 해당 기사의 방향과 성격 등을 파악하기 때문이며, 전문을 토대로 표제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독자들은 전문을 읽고 이 기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인지 또는 관심은 없지만 읽을 가치가 있는 기사인지 판단하며, 이런 이유에서 전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문(前文 앞 전, 글월 문)의 사전적 의미만을 고려하여 그냥 위치상 앞에 있는 글이라 생각하고 본문과 구별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즉 전문을 읽는 목적을 모르는 상태로 무작정 기사의 본문을 읽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기사문을 효율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전문과 본문을 구별하고 전문을 왜 읽는지 알아야 합니다. 실제 신문 기사의 본문을 가져와서 학생들에게 핵심을 요약하게 한 뒤 이를 실제 기사의 전문과 비교하는 등의 수업을 하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전문과 본문의 차이를 알게 됩니다. 이후에 전문-본문으로 구성된 기사를 여럿 배부한 뒤 읽고 싶은 기사를 선별하게 하는 활동을 하면 효율적이고도 의식적으로 기사문을 읽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활동 어때요?

활동 내용

설명문, 논설문, 기사문을 중형무진 변환해 보는 수업

활동 방법

- ① 특정 화제를 선정하고, 관련 자료 수집하기
 - ②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설명문 작성하기
 - ③ ②의 본문 부분을 활용하여 논설문 작성하기
 - ④ ②의 본문 부분을 활용하여 기사문 작성하기
 - ⑤ ③ 전체를 변형하여 기사문 작성하기
 - ⑥ ④를 다시 새로운 관점에서 설명문 또는 논설문으로 작성하기
 - ⑦ ⑤를 또 다른 관점에서 설명문 또는 논설문으로 작성하기
 - ⑧ ②와 ③, ②와 ④, ③과 ④와 ⑤를 비교하여 달라진 내용이나 관점을 살펴보고 토의하기
- ※ 같은 모둠(학생)이 계속 글을 변형하는 것도 좋고, 다른 모둠(학생)이 각기 다르게 변형하는 수업도 좋다.

이 수업의 목표는 같은 화제로 설명문, 논설문, 기사문을 작성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학생들 스스로 이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다른 성격의 글을 쓸 때 나타나는 차이점을 인식하면 각 글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설명문을 논설문으로, 설명문을 기사문으로, 논설문을 기사문으로 변형하는 과정을 통해 다른 종류의 글을 쓸 때 관점이나 시각에 차이가 발생하며, 그 차이가 글의 종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기사문을 작성할 때는 어떤 자료를 취사선택하느냐부터 기자의 주관적 판단이 시작된다는 점을 이 수업을 통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학생 질문에는 이렇게!

- Q 설명문 중간 부분은 '본문'이라고 하고, 논설문 중간 부분은 '본론'이라고 하는데 둘은 같은 건가요?

A 설명문의 '본문'은 여러 설명 방법을 사용해서 대상을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와 달리 논설문의 '본론'은 자신의 핵심 주장을 내세우고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는 부분으로, 본론에서 주장을 입증한 뒤 결론에서 이를 요약하고 확인·강조하며 마무리합니다. 즉, '본론'은 글쓴이의 주장을 근거를 들어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반면 '본문'은 글에서 주가 되는 부분이며 머리말과 맺음말이 없어도 완결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본문(本文 근본 본, 글월 문)'과 '본론(本論 근본 본, 논의할

론' 모두 글의 단계 가운데 하나이고, 한자에 '本'이 공통으로 들어가서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글의 종류에 따라 같은 부분을 다르게 지칭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들은 다릅니다. 한자를 보면 본문은 '글 전체의 주가 되는 부분'이고 본론은 '주장의 주가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주장과 입증이 글의 핵심 내용이라면 서론-본론-결론 모두 본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논설문에서 글의 제목은 글쓴이의 의도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제목 자체가 글쓴이의 주장은 아니므로 본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설명문에서는 '머리말-본문-맺음말' 구조 가운데 머리말과 맺음말을 제외한 본문만으로도 특정 대상에 대한 정보 제공이라는 설명문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 논설문은 본문만 가지고는 글쓴이가 왜 이 주장을 펼치고 어떻게 이 주장을 활용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없으므로 서론과 결론이 꼭 필요합니다.

❖ 김포외국어고등학교 허재영 선생님

기행문

紀行文

연관 수필, 여정, 견문

수업 고민 이렇게 해결해요!

수업 고민

학생들이 기행문을 쓸 때 특히 견문을 쓰기 어려워합니다.

해결 방안

여행지와 관련된 정보 검색하기

이런 활동 어때요?

활동 내용

'내 방 기행문' 쓰기

활동 방법

- 1 활동의 모티프가 되는 BTS의 '내 방을 여행하는 법'(FBE., YG PLUS, 2020) 노래를 같이 들으면서 가사 분석하기
- 2 방에서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무슨 활동을 할 수 있을지를 상상해 보며 자신의 방에서 할 수 있는

기행문은 여행하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겪은 것들을 기록한 글이다. 큰 틀에서 수필에 해당하지만 여정, 견문, 감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수필과 구분된다. 여정은 여행의 과정 또는 일정을 뜻하고, 견문은 여정에 따라 여행하면서 보고 들은 것들에 해당하며, 감상은 여행자에게 보고 들은 것들, 즉 견문을 통해 느끼고 깨달은 바를 말한다. 기행문은 독자에게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실용적인 글이 됨은 물론, 글쓰기가 체험하며 깨달은 것들을 표현함으로써 감동과 교훈을 주는 문학 작품으로서의 성격도 띠 수 있다.

학생들이 기행문을 쓸 때 대략적인 여정이나 감상은 비교적 잘 떠올려서 쓰지만, 본인이 보고 들은 것에 해당하는 견문은 쓰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의 여행 경험을 떠올리는 과정에서 그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고 느꼈는지, 그곳이 어떤 문화나 역사를 가졌는지가 잘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저는 본인이 여행 갔던 여행지와 관련한 정보를 검색해 보게 합니다. 만약 여행지가 경주였다면 인터넷에서 경주를 검색해 보게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 관련 자료들과 그곳의 사진 등을 살펴보면서 본인이 여행지에서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좀 더 쉽게 기억을 되살려 견문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여행은 당연히 집을 벗어나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일 보아 무더진 시선을 거두고 낮선 곳을 여행하는 여행자의 시선으로 내 방을 바라보면,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방의 풍경들이 낯설고 새롭게 보이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방 기행문' 쓰기 활동은 발상의 전환을 경험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익숙한 대중가요를 활용함으로써 흥미를 높이고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문화적 체험 활동 마련하기

- ① 앞서 마련한 문화적 체험 활동들을 바탕으로 '내 방 기행문' 쓰기

학생 질문에는 이렇게!

- Q 한 번도 여행을 간 적이 없어서 기행문을 쓸 수 없는데요?

A 꼭 특별한 여행지에 가야만 기행문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이나 학교 주변을 한 바퀴 돌며 동네를 여행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최근에 여행을 다녀오지 못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걸어갈 수 있는 가까운 곳으로도 여행을 떠날 수 있다는 점을 인지시켜 줍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의 방이나 지금까지 익숙하게 다니던 동네 역시 여행지가 될 수 있습니다. 늘 다니던 곳을 다른 시선으로 걸어 보면서 그 길에 무엇들이 있는지 찾아보게 하거나, 이제까지 한 번도 그 장소에 안 가본 사람과 함께 가는 등의 방식으로 여행할 수 있으며, 그 과정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음을 알려 줍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여행하는 소설』(정류진 외, 참비교육, 2022)

여행을 주제로 엮은 7편의 단편 소설을 읽으면서 여행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행문과 소설을 비교하면서 장르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 **항동중학교 이혜인 선생님**

대조

對照

연관 대비, 설명 방법, 표현법

수업 고민 이렇게 해결해요!

수업 고민

대조와 비교를 헷갈려하는 학생들에게 이 둘을 어떻게 이해시키면 좋을까요?

해결 방안

- 대조와 비교의 형식적 특징 알기
- 다양한 텍스트에서 대조, 비교 표현을 직접 찾아보기

이런 활동 어때요?

활동 내용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대상을 다양한 설명 방법을 활용하여 설명하기

대조란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상반되거나 대비되는 점을 밝히는 것을 말한다. 국어 과목에서 대조는 크게 읽기·쓰기에서 사용되는 설명 방법과, 문학에서 사용되는 표현 방법으로 나뉜다. 설명 방법 가운데 하나인 대조는 둘 이상의 대상을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할 때 사용한다. 예컨대 “중국에서는 길이가 긴 젓가락을 사용하지만, 일본에서는 주로 짧은 젓가락을 사용한다.”와 같이 설명하는 것이다. 문학에서 사용되는 표현 방법으로서의 대조는 둘 이상의 대상을 대비하여 작가가 강조하려는 내용을 드러낼 때 사용한다. 문학에서 대조는 여러 대상의 대비 자체를 강조하는 경우도 있고, 대조를 통해 주제와 관련된 하나의 특징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하늘은 맑지만 내 마음은 어둡다.”, “인생은 짧지만 예술은 길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양한 설명 방법을 배우고 나서 몇몇 설명 방법들을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대조와 비교의 차이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는 대조와 비교의 개념을 한 번 더 언급한 후 각각의 형식적인 특징을 설명해 줍니다. 두 개념에 형식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만 알아도 둘의 차이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령 대조는 ‘-지만’, ‘-나’, ‘반면’, ‘하지만’ 등의 연결 어미나 접속 부사를 사용하지만 비교는 ‘와/과’, ‘같이’ 등의 표현을 사용함을 알려 줍니다. 이때 비교 표현은 대조 표현과 달리 유사점과 차이점을 모두 언급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여 줍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특징을 통해 대조와 비교의 차이점을 이해한 학생들은 자칫 형식적 특징에만 주목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한 개념을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조 또는 비교 표현이 사용된 신문 기사, 광고, 책 등의 텍스트를 제시하고, 그 안에서 대조나 비교 표현을 학생 스스로 찾아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명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상대방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체득하게 하고자 이 활동을 계획했습니다. 우선 학생들에게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 가운데 반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소재 한 가지를 고르게 합니다. 발표 주제

활동 방법

- ① 자신의 취미, 관심사 등에서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소재 고르기
- ② 다양한 설명 방법 가운데 3가지 이상을 사용하여, 3분 이내에 발표할 수 있는 대본 작성하기
- ③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고 설명 방법이 적절히 쓰였는지 의견 주고 받기

를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에서 찾으려 하면, 학생들은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를 단순히 소개하는 데서 나아가 친구들도 이를 경험해 보도록 설득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게 마련입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설명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발표 시간(약 3분)에 맞게 대본을 작성하되, 앞서 학습한 설명 방법 가운데 3가지 이상을 활용하게 합니다. 학생들이 대본을 작성하는 동안, 교사는 학생들이 설명 방법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지 최대한 꼼꼼히 살펴보고 피드백하여 학생들이 발표 시 당황하거나 부끄러움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발표 준비가 끝나면 학생들이 한 명씩 나와 자신이 쓴 대본을 바탕으로 발표하게 합니다. 이때 발표자는 설명 방법이 쓰인 문장이 나올 때마다 손으로 1, 2, 3을 표시하고, 청중은 발표를 들으며 발표자가 사용한 설명 방법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적게 합니다. 발표를 마치면 발표자는 자신이 사용한 설명 방법이 무엇인지 말하고, 청중은 그것이 자신이 적은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이후에는 발표자가 사용한 설명 방법과 관련하여 질의·응답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끼리 활동 내용을 점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용인중학교 홍유진 선생님

독자

讀者

연관 독자, 필자

독자는 한 마디로 '글을 읽는 사람'이다. 즉, 글을 쓰는 사람인 필자가 쓴 글을 읽는 사람이 바로 독자이다. 필자와 독자의 소통은 언뜻 보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독자는 필자가 쓴 글을 필자의 의도대로 읽지 않고, 자신의 배경지식과 삶의 경험을 반영하여 읽는다. 즉, 독자는 필자가 전달하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생각, 의견을 필자에게 던지기도 한다. 따라서 필자와 독자의 소통은 상호적·양방향적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독자는 본인의 흥미, 읽기 수준, 읽기 목적, 관심 분야 등을 고려해 책을 선정한다. 독자는 책을 읽을 때 본인의 배경지식을 활용하기도 하고, 책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 인터넷, 도서관 등에서 자료를 수집해 본인의 배경지식을 보충하기도 하며, 자신이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인상적인 점들을 메모하며 읽기도 한다. 책을 다 읽은 독자가 블로그 등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감상평을 올리거나, 독서 모임을 하면서 책에 대한 소감이나 생각들을 타인과 직접 나누는 등 독서 후 활동이 이어지기도 한다.

수업 고민 이렇게 해결해요!

수업 고민

독서 활동을 할 때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해결 방안

- 문해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백과사전을 참고하며 책 읽기
- 글 자체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은 단편 소설이나 만화책부터 읽기

책 읽기 수업을 하면서 갖게 되는 가장 큰 고민은 독서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일부 학생들은 책을 읽는 것 자체를 힘들어해서 다른 친구들과 격차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 때문에 독서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독서에 도저히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무조건 책을 읽으라고 강요하기보다는, 그들이 책을 읽기 힘들어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개별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문해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독서를 힘들어 합니다. 이런 친구들은 대개 어휘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책에 쓰인 단어의 뜻을 몰라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친구들에게는 백과사전을 제공하고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사전을 찾아가면서 읽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할 경우 읽기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으므로 학생이 읽어야 할 글의 분량을 줄이고, 한 장이라도 잘 이해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문해력은 어느 정도 있지만 글 자체를 싫어하는 학생들

은 책 읽기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합니다. 이미 그들에게 글이란 따분하고 지루한 것이기에 이런 유형의 학생들은 독서 활동 자체에 상당한 부담감과 거부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부담감과 거부감을 줄이려면 일단 독서가 쉽고 즐거운 일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편 소설처럼 짧은 분량의 글이나 만화책부터 읽게 하여 독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런 활동 어때요?

활동 내용

관심 주제로 독서 신문 만들기

활동 방법

- ① 1차시: 모둠별로 모둠원들의 관심 주제를 설정하고 관심 주제, 독서 목적, 읽기 수준 등을 고려하여 책 선정하기
- ② 2~4차시: 매 차시마다 독서 일지를 작성하며 선정한 책 한 권 읽기
- ③ 5차시: 모둠별로 본인들이 설정한 주제를 반영한 독서 신문의 제목을 짓고 독서 신문의 틀 구성하기
- ④ 6차시: 개인별로 본인이 책을 읽고 깨달은 점이나 인상적인 부분을 소개하는 독서 기사를 작성하여 독서 신문 완성하기

‘독자’라는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독자는 어떤 방식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지 등 독자에 대한 개념적 지식을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직접 ‘독자’가 되어 보는 것입니다. 특히 독서 활동에 흥미를 갖게 되어 일상생활 속에서도 책을 꾸준히 읽는 일상적인 독자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이에 학생들이 독서 활동이 따분하고 지루하다고 느끼지 않고 재미있게 느낄 수 있도록 고안한 평가가 모둠별 관심 주제 독서 신문 만들기입니다. 서로 관심사가 비슷한 학생들을 한 모둠으로 묶어 각자 본인의 세부적인 관심사를 반영하여 책을 고르게 하고, 모둠별로 같이 책을 읽습니다. 이때 모둠별로 책 한 권을 동일해 읽게 해도 좋고, 각기 다른 책을 골라 읽어도 좋습니다. 읽고 나서 모둠원끼리 독서 나눔을 하며 본인들이 선택한 주제에 대해 더 심도 있게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독서 신문을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학생 질문에는 이렇게!

- Q 자유 독서를 할 때 『명탐정 코난』과 같은 오락 만화를 읽어도 되나요?

A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장면 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오락 만화를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 먼저 만화의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고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이나 폭력적인 장면이 없을 경우 읽을 수 있도록 허용해 줍니다. 독서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학생들이 독서라는 행위 자체에 흥미를 느끼는 것이므로 본인이 가장 읽고 싶은 책을 읽게 해 주

니다. 그러나 너무 폭력적이거나 다소 수위가 높은 장면들이 많은 만화는 왜 이 책이 적합하지 않은지, 이 책이 학생에게 어떤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읽지 못하도록 제재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독자 기르는 법』(메건 데일리, 유유, 2021)
- 『출판하는 마음』(은유, 제철소, 2018)

.....

좋은 독자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제시한 책으로, 학생과 책이 더 친밀해지도록 유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보여 줌으로써 책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책입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책이란 독자에게 보내는 선물임을 깨닫게 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항동중학교 이혜인 선생님**

독해

讀解

연관 문해력

수업 고민 이렇게 해결해요!

수업 고민

학생들의 독해 능력과 속도가 모두 다릅니다. 한정된 수업 시간 안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수업할 수 있을까요?

해결 방안

- 모둠별로 수업하기
- 배경지식 활성화하기

이런 활동 어때요?

활동 내용

국어과와 사회과 통합으로 실시

독해는 글자나 단어의 의미를 읽어 내는 것에서 더 나아가 문장과 문장 간의 연결을 파악하고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해독'이 글자나 단어 수준의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인 반면, '독해'는 독자가 자신의 경험과 배경지식, 가치관을 토대로 글과 상호 작용함으로써 글의 의미를 구성하는 적극적인 행위이다. 독해를 하려면 문장과 문장의 관계, 문단과 문단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의 주제 및 의도를 파악해야 하며, 글의 내용을 공감적·비판적으로 살펴야 한다. 이때 글은 문자 언어 외에도 이미지, 표, 영상 등 다양한 기호나 매체로 표현될 수 있으며, 독자는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글에 담긴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마다 독해 능력과 속도가 달라 난감했던 적이 많 습니다. 아마 학생들 입장에서든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벌써 글을 다 읽고 지루해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3~4줄 읽기도 버거워합니다. 다양한 독 해 자료를 준비하여 학생 개개인의 속도에 맞게 개별 수 업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교사 혼자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피드백까지 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는 모둠별로 수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학생들이 각자 글을 읽으면서 생긴 질문을 메모하고, 그 질문의 답을 모둠 안에서 찾게 합니다. 모둠원이 함께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에서 혼자서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고, 독해 능력이 부족한 학생 은 다른 친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사가 각 모둠의 읽기 수준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 모 둠 간 격차를 고려하여 특정 모둠에는 배경지식이 될 만 한 짧은 영상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독해 속도가 느린 학생들에게는 글의 구성을 미리 안내하거나 등장인물에 관해 더 자세히 소개해 주는 등 교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독서 행위에 관여할 수도 있습니다.

능숙한 독자가 되기 위해서는 능숙한 독자들이 사용하는 읽기 전략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읽기 전략이라고 하면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실제로 글

하는 수행 평가

활동 방법

- ❶ 사회 과목에서 '사회 문제'에 대해 학습하기
- ❷ 국어 과목에서 읽기 전략 익히기
- ❸ 읽기 전략을 활용하여 사회 문제와 관련된 텍스트 읽기

을 읽는 과정에 적용하며 그 기능을 익히면 효과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재미를 붙이기가 쉽지 않으므로 타 교과와의 통합 수업과 모둠 수업을 활용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사회과와 협력하였습니다. 사회 과목에서 쓰는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사회 문제를 다룹니다. 국어과에서 읽기 전략 수업을 하기 전에 사회과에서 인구, 노동, 환경 문제 등을 포함한 사회 문제를 다루도록 사전에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국어과에서 사회 문제에 관한 텍스트 8개를 준비했습니다.

읽기 전·중·후에 적용할 수 있는 읽기 전략을 '사회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룬 글 1, 2'로 시범을 보이고, 능숙한 독자로서 교사의 읽기 전략을 구술하고 이를 학생들이 습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 학생들이 스스로 읽기 전략을 적용하여 글을 읽어 보게 합니다. 교사는 인구, 노동, 환경에 관한 글 6편을 6차시에 걸쳐 제시하고, 학생은 읽기 전·중·후 과정당 필요한 전략을 2가지씩 사용하여 글을 이해합니다. 이 과정은 독해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기에 모둠 활동을 함께 진행합니다. 모둠 안에서 각자 읽기 전략을 사용한 경험을 공유하고,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는 활동을 합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6차시 동안 개인 학습지를 완성하고, 모둠 친구들과 읽기 전략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읽기 전략을 반복적으로 익히며 독해 능력을 키웁니다.

학생 질문에는 이렇게!

- Q 어떻게 하면 독해 능력이 좋아지나요?

A 많이 듣고(다문 多聞), 많이 읽고(다독 多讀), 많이 생각하세요(다상량 多商量). 쉽고 빠르게 독해 능력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지만, 독해 능력을 기르는 데 왕도는 없습니다. 충분히 많은 글을 읽고, 읽은 내용에 대해 깊이 생각하다 보면 독해 능력은 향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글쓴이는 자신이 글을 쓴 의도를 독자가 파악해 주기를 바라며 독자의 이해를 돕는 여러 장치를 글에 심어 둡니

다. 많은 글을 읽다 보면 글쓴이가 사용하는 다양한 장치를 점점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점점 더 빠르고 정확하게 독해를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천천히, 꾸준히 글을 읽으면서 글쓴이가 사용한 장치들이 무엇인지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다시, 어떻게 읽을 것인가』(나오미 배런, 어크로스, 2023)

우리는 이제 종이책을 넘어 오디오북,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 속 메시지를 읽어 내야 합니다. 활자뿐 아니라 다양한 텍스트를 읽는 방법에 대해 참고하기 좋은 책입니다.

- 「당신의 문해력+」(EBS, 2022. 7. 7.~2022. 10. 6.)

최근 문해력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문해력과 독해는 때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죠. 문해력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전략과 관련 사례를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 **공릉중학교 전향 선생님**

분류

分類

연관 설명 방법

수업 고민 이렇게 해결해요!

수업 고민

학생들이 분류를 배우는 과정을 딱딱하고 재미없게 느낄까 봐 고민입니다. 좀 더 재미있게 수업할 방법이 없을까요?

해결 방안

- 과학과나 기술과 등 분류를 많이 쓰는 타 교과와 교과서 살펴보기
- 책에서 분류가 쓰인 부분 찾아보기

이런 활동 어때요?

활동 내용

분류 등 다양한 설명 방법을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짧은 글 쓰기

활동 방법

- 1 다양한 설명 방법이 사용된 글을 읽으며 설명 방법 파악하기
- 2 제비뽑기로 내가 소개할 설명 방법 고르기
- 3 내가 고른 설명 방법을 웹툰을 활용하여 소개하기
- 4 친구들이 그린 웹툰을 감상하며 설명 방법 이해하기

분류는 글을 전개할 때 사용하는 설명 방식 가운데 하나로, '대상을 공통적인 특성이나 기준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시는 형식에 따라 정형시, 자유시, 산문시로 나뉜다."는 시를 형식에 따라 분류하여 설명한 것이다.

2022 과학과 교육 과정에는 '[9과02-04] 중의 개념과 분류 체계를 이해하고, 생물을 계 수준에서 분류할 수 있다.'라는 성취 기준이 있습니다. 과학 교과서에서 해당 부분을 찾아 국어 시간에 익힌 분류의 개념을 바탕으로 적용해 보면 학생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국어 교과서가 아닌 다른 책에서 분류가 쓰인 부분을 찾아보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교사는 도서실 또는 개인 책을 활용하여 분류가 쓰인 텍스트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학생들은 텍스트를 보면서 분류 방법을 찾아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개념을 정확하게 내면화할 수 있습니다.

설명 방법은 다 이해한 것 같으면서도 헛갈릴 때가 많죠. 그럴 때는 개념을 학습한 후 자신의 언어로 충분히 내면화하는 작업을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친구들에게 설명 방법에 대해 소개하는 활동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교사는 다양한 설명 방법이 쓰인 글을 전체 학생들과 읽으면서 설명 방법에 관한 이해를 돕습니다. 학생들은 4인 내외로 모둠을 구성하고, 제비뽑기를 하여 서로 다른 설명 방법(분류, 예시, 구분 등)을 하나씩 고릅니다. 그런 다음 앞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이 고른 설명 방법을 소개하기 위한 4컷의 웹툰을 그립니다. 물론 반대

⑥ 또 다른 설명 방법을 활용하여 짧은 글 쓰기

시 4컷이라는 양식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을지 구상하는 단계를 거쳐 짙막한 한 편의 웹툰이 완성되면 작품을 칠판이나 벽 한쪽에 게시합니다. 이때 전체 모듈에서 같은 설명 방법을 다른 웹툰끼리 모아서 게시합니다. 혹시 손이 느린 친구들이 있다면 게시된 작품을 참고할 수도 있겠죠. 반 친구들의 작품이 모두 완성되면 다 함께 감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웹툰으로 자신이 고른 설명 방법을 소개하는 활동이 끝나면, 이번에는 다른 설명 방법을 활용하여 글을 써 보게 합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자신이 고른 설명 방법 외에 다른 설명 방법에 관한 설명도 적극적으로 이해하게끔 지도합니다. 글쓰기는 수행 평가로 반영할 것임을 초반에 안내하여 적절하게 동기를 부여합니다.

학생 질문에는 이렇게!

Q 분석과 분류가 헷갈려요. 이 둘은 무엇이 다른가요?

A 분석(分析)과 분류(分類)에 공통적으로 쓰인 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분(分)’이죠! 이 한자의 뜻은 ‘나누다’입니다. 즉, 두 단어 모두 무언가를 나눈다는 뜻을 담고 있어 헷갈릴 수 있어요. 분석과 분류는 모두 대상을 나누지만, 분석은 대상을 이루는 요소들을 쪼갭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즐겨 마시는 레모네이드는 탄산수, 레몬, 설탕 시럽,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각각의 요소들이 합쳐졌을 때 비로소 레모네이드라는 정체성을 완성합니다. 레몬이 레모네이드가 될 수는 없죠. 반면 분류는 나뉘어도 각각의 정체성을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음료는 탄산 유무에 따라 탄산음료와 무탄산음료로 나뉜다.”라고 할 때, 음료에서 나뉜 탄산음료도 여전히 음료라는 정체성을 유지합니다. 이밖에도 분류의 경우 나누는 기준이 제시된다는 점에서 분석과 다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린네가 들려주는 분류 이야기』
(황신영, 자음과모음, 2010)

분류는 사실 과학 교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설명 방법입니다. 다양한 생물종을 분류해 둔 책을 읽으며 좀 더 깊고 체계적인 분류에 관해 알아 볼 수 있습니다.

❖ 공릉중학교 전향 선생님

서간문

書簡文

연관 편지글

수업 고민 이렇게 해결해요!

수업 고민

서간문 쓰기 활동을 어떤 단원에서 진행할 수 있을까요?

해결 방안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쓰기’ 단원에서 서간문 쓰기 활동 진행하기

서간문은 특정한 상대방에게 안부나 용건을 전달하기 위해 쓰는 글이다. 안부나 축하, 감사나 사과를 전하기 위해 쓰는 사교적인 목적의 서간문과 특정 내용을 안내하거나 상대방을 초대하기 위해, 혹은 일 등을 의뢰하거나 물건 등을 주문하기 위해 쓰는 실용적인 목적의 서간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서간문은 특정 독자를 정하여 쓰는 글이므로 상대방의 연령, 계층, 글쓰이와의 관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예의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 ‘서간문 쓰기’를 직접적으로 염두에 둔 성취 기준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서간문은 친교적 글쓰기라는 인식 때문에 굳이 그 형식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서간문은 ‘특정한 독자’를 염두에 두고 쓴다는 점에서 쓰기 맥락(주제, 목적, 독자, 매체)의 개념과 중요성, 쓰기 전 단계(계획하기, 내용 마련하기, 내용 조직하기)의 중요성, 독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글쓰기 방법을 학습하기에 좋은 갈래라고 생각합니다. 예상 독자의 나이, 계층, 글쓰이와의 관계, 공식적·비공식적 상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내용과 표현을 가다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생들의 학습 수준이나 흥미가 낮은 학교에서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쓰기’ 단원을 가르칠 때 서간문 쓰기 활동을 해 보시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사춘기 학생들은 자신의 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을 민망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서간문 쓰기 활동을 하면 ‘무슨 내용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며 백지 앞에서 망연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보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단문 문자 메시지처럼 인사말이나 안부를 생략한 채 용건만 간단히 쓰고 긴 여백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글을 쓰다 보니 장황해져서 횡설수설하다가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문제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획하기 단계에서 쓰

기 맥락을 설명하고 이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마련한 뒤 '처음-중간-끝'의 내용을 확실하게 조직하고 나서 글을 쓰게 해야 합니다. 다행히 서간문은 어느 정도의 형식이 정해진 글이므로 '처음(수신인 호칭, 인사, 문안과 자기 안부), 중간(용건), 끝(축원과 끝인사, 작성 일시, 발신인)'의 형식에 따라 내용을 조직하되, 형식에 치우치기보다 진솔한 내용으로 글을 쓰게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활동 어때요?

활동 내용

5월 편지 쓰기

활동 방법

- ① 편지 쓰는 방법을 담은 영상 시청하기
- ② 아이돌 가수가 쓴 편지 읽어 보기
- ③ 편지 쓰기
- ④ 친구들과 편지 나누기

저는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이 있는 5월쯤 국어 학습 활동으로 편지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2016년부터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교육부 및 전국 시·도 교육청이 함께하는 '전국 감사 편지 공모전'을 활용하면 학생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전국 감사 편지 공모전 누리집(www.thankletter.or.kr)에서는 편지 배송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편지지를 촬영하여 이미지를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간편하게 공모전에 작품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감사 편지를 쓰는 방법에 관한 30분 내외의 영상도 제공하고 있어 편지 쓰기 전 활동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감사 편지를 쓰기 전에는 좋은 글을 먼저 읽어 보는 것도 필요하지요. 저는 가수 김세정 양이 고등학교 때 어머니께 쓴 편지, 연예인이 팬 카페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린 손 편지를 예시 자료로 사용합니다. 연예인들의 편지에서는 팬에 대한 감사 표현, 결혼 등 일신상의 중요한 정보 전달,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사과와 해명 등 그 목적과 주제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다양한 편지를 대상으로 글쓴이가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어떤 목적으로 글을 쓴 것인지를 모둠별로 분석하게 하면 아이들의 눈에 생기가 돕니다.

학생 질문에는 이렇게!

- Q 직접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면 전화를 하거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

A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화 통화와 모바일 메신저가 보편화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편지는 숙고하는 과정을 거쳐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손으로 직

(SNS) 메시지를 보내면 되는데 왜 편지를 써야 하나요?

접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의사소통 수단으로서가치가 있습니다. 단문으로 그때그때 보내는 모바일 메신저 보다는 전자 우편이, 전자 우편보다는 손으로 쓴 편지가 더 정성스럽게 느껴지듯, 편지는 진실한 마음을 전하거나 격식 있는 방법으로 소통하고자 할 때 유용합니다. 공인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을 때, 직접 고개 숙여 사과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손으로 쓴 사과문을 사진으로 찍어서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리는 것 역시 손 편지의 특별한 기능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함께 보면 좋은 자료

『반 고흐, 영혼의 편지』(빈센트 반 고흐, 위즈덤하우스, 2017)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 중 한 명인 빈센트 반 고흐가 자신의 동생이자 후원자인 테오에게 보낸 편지를 엮은 책입니다. 살아 있는 동안에는 화가로서 성공하지 못했으나 끊임없이 그림을 그리며 치열하게 살다 간 그의 편지는 큰 시험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학생들의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 마전중학교 주희선 선생님

설득 전략

說得戰略

연관 광고, 논설문

글쓴이가 독자의 신념, 태도, 행동 등을 변화시키려는 목적으로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쓰는 전략을 설득 전략이라고 한다. 설득 전략에는 이성적 설득, 감성적 설득, 인성적 설득이 있다. 이성적 설득은 논리적으로 주장을 뒷받침하여 설득력을 높이는 방법이고, 감성적 설득은 독자의 욕망과 분노, 자긍심, 동정심 등과 같은 감정에 호소하여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이다. 인성적 설득은 사람의 됨됨이를 바탕으로 독자가 글쓴이의 주장을 신뢰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성적 설득 전략의 예시로는 귀납이나 연역 등과 같은 논증 방법 활용하기, 통계 자료나 사실적 근거 제시하기, 권위 있는 견해나 자료 활용하기 등을 들 수 있다. 감성적 설득 전략으로는 유머를 사용하여 즐거움 제공하기, 문제 상황에 대한 분노와 동정심 유발하기, 독자의 자긍심을 일깨워 양심에 호소하기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인성적 설득 전략에는 글쓴이의 도덕성이나 인품이 드러나는 말과 행동, 고민 등을 제시하는 방법이 있다.

수업 고민 이렇게 해결해요!

수업 고민

교과서에 실린 글이 딱딱하거나 어려워져 학습 동기를 부여하기가 어려워요. 본문 학습 전에 학생들이 설득 전략을 즐겁게 배울 수 있을 만한 제재가 있을까요?

해결 방안

- 설득 전략의 개념과 종류를 배운 후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광고에 드러난 설득 전략 찾기
- 홈쇼핑 내용 중 일부를 활용하여 설득 전략 찾기

중학교 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는 설득 전략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교과서에 제시되는 제재도 주로 연설문, 논설문 등 딱딱한 글이 많으므로, 교과서 본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광고를 보면서 설득 전략을 찾아보는 활동을 하면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습니다. 상업 광고의 경우 물건을 팔기 위해 다양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소비자를 설득합니다. 저는 홈쇼핑 내용 일부를 활용해 설득 전략을 찾는 활동을 진행하였는데 학생들이 매우 흥미로워했습니다.

특히 화장품이나 건강식품 광고의 경우 흥미로운 요소가 많아서 학생들이 즐겁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 광고에서는 화장품의 화학 성분이나 임상 실험 결과 등을 제시하면서 해당 화장품을 바르면 얼마나 피부가 좋아지고 예뻐질 수 있는지를 밝히는 이성적 설득 전략과, 화장품을 바르고 있는 광고 모델처럼 예뻐지면 행복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감성적 설득 전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활동은 모둠을 짜서 진행하면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여 더욱 즐겁게 수업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몇 개의 광고를 제시할 수도 있고, 시간이 된다면 모둠별로 직접 광고를 찾아서 설득 전략을 분석해 보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활동 어때요?

활동 내용

다양한 설득 전략을 활용한 글쓰기 수업

활동 방법

- ① 설득 전략의 개념과 종류 알기
- ② 교과서 본문에서 설득 전략의 구체적 예시 찾기
- ③ 자신의 글쓰기 주제와 목적 선정하기
- ④ 세 가지 설득 전략을 적절히 활용하여 글쓰기
- ⑤ 친구의 글에 쓰인 설득 전략 찾고 설명하기

국어 교과서의 설득 전략과 관련한 단원에서 다루는 글은 대부분 연설문이나 강연이 많습니다. 이러한 제제를 통해서 학생들은 설득 전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파악하게 됩니다. 세 가지 설득 전략의 개념만으로는 막연하고 어렵게 생각했던 학생들도, 글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 나타난 설득 전략의 예시들을 찾아보고 각각의 개념을 좀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지요. 설득 전략을 제대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성적 설득, 감성적 설득, 인성적 설득이라는 각각의 전략을 직접 활용하여 자신의 글을 써 보는 것이 가장 완벽하게 설득 전략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세 가지의 설득 전략을 모두 활용하여 글쓰기 활동을 할 때는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주제를 몇 가지 제시하고 학생들이 직접 주제를 선택하여 글을 쓰도록 합니다.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던 주제로는 ‘학교에 건의하는 글쓰기’, ‘학급 규칙 제정하기’, ‘청소년의 올바른 스마트폰 활용’, ‘학교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유튜브의 올바른 활용법’ 등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들 중 하나를 선택하고 세 가지 설득 전략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글을 쓰게 한 후 완성된 글을 발표하고 글도 공유하게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글을 돌려 읽어 가면서 글의 어떤 부분에서 어떤 전략이 쓰였는지 찾고 설명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들은 세 가지 설득 전략의 개념과 효과를 제대로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학생 질문에는 이렇게!

- Q 이성적 설득, 감성적 설득, 인성적 설득 전략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을까요?

A 세 가지 설득 전략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설득하는 내용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이성적 설득 전략이, 어떤 경우에는 감성적 설득 전략이, 또 어떤 경우에는 인성적 설득 전략이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글을 읽는 독자나 듣는 청중에 따라서 설득 전략의 효과는 달라질 수 있지요. 독자 또는 청중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주장을 제시하고 통계 자료나 권위 있는

견해 등을 활용한 이성적 설득 전략이,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라면 감정에 호소하는 감성적 전략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용과 상황, 독자나 청중에 따라서 다양한 설득 전략을 활용할 때 설득력 있는 글 쓰기와 말하기가 될 수 있겠지요.

실제로 이처럼 세 가지 설득 전략 중에 설득력이 가장 높은 게 무엇이냐고 묻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고민했지만 글의 내용과 독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세 가지 설득 전략을 골고루 써야 하고, 그렇게 해야 상대방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상대의 마음에 울림을 만들어 내는 설득의 마법사』(지순호·홍지희, 북포스, 2015)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에서는 설득의 개념과 설득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를 이야기하고, 나머지 3개의 장에서 세부 내용을 다룹니다. 이 책에서 설득의 마법사로 소개하고 있는 “에토스(ethos), 파토스(pathos), 로고스(logos)”는 교과서에 소개된 3가지 설득 전략(인성적 설득 전략, 감성적 설득 전략, 이성적 설득 전략)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 음봉중학교 김은아 선생님

예시

例示

연관 설명 방법

수업 고민 이렇게 해결해요!

수업 고민

‘예’를 떠올리기 힘들어하는 학생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면 좋을까요?

해결 방안

- 상위어와 하위어에 대한 질문을 통해 ‘예’라는 개념을 스스로 생각해 보기
- 몇 가지 설명 대상에 대해 다 같이 ‘예’를 떠올려 보고 공유하기

이런 활동 어때요?

활동 내용

예시를 포함하여 다양한 설명 방법이 쓰인 글을 각자 찾고, 모둠 활동을 통해 공유하기(도서관 수업 추천)

예시란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하위 항목을 보기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설명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내용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제시하며, 어떤 개념이나 주장을 명확히 이해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나 상황을 보여 주는 것도 예시에 포함된다. 예시를 제시할 때는 보통 ‘예를 들어, 사례로, 예컨대, 예로서’라는 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예시를 사용하면 설명이 필요한 개념이나 주장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 대상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학생이 ‘예시가 뭐예요?’라고 질문한다면 ‘예’를 들어 보여 주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예’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동물의 예시를 같이 생각해 보자. 네가 아는 동물이 뭐가 있지? 있는 대로 다 말해 봐.”라고 한다면 학생은 동물에 속하는 것들을 열거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라고 말해 주면서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에 대한 설명을 곁들인다면 상위 개념의 구체적인 대상 또는 하위 개념이 ‘예’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시를 떠올리기 힘들어하는 학생에게는 다른 친구들과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교사가 예를 제시해 주거나 학생 개인이 직접 인터넷 검색을 해 보는 것보다 수업을 듣는 학생들 모두에게 특정 대상에 대한 예시를 들어 보자고 한다면, 다양하고 기상천외한 예시까지 공유할 수 있어 예시를 떠올리기 힘든 학생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통 예시는 ‘정의, 비교, 대조, 분석, 분류, 구분, 과정’ 등의 다른 설명 방법들과 함께 다루어집니다. 설명 방법 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읽기 중에 특정 설명 방법이 활용된 부분을 찾아내고, 대상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설명 방법을 탐구하여 글을 쓸 때 적용하는 역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실제 글에서 예시를 포함한 다양한 설명 방

활동 방법

- ① 글에서 설명 방법이 활용된 부분을 찾아 적는 활동지 준비하기
- ② 다양한 글을 찾아 읽으며 활동지에 다양한 설명 방법이 활용된 부분 채워 넣기
- ③ 모둠 활동을 통해 각자 찾은 글 자료를 공유하고 활동지에 적은 설명 방법이 맞는지, 설명 방법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었는지 평가하기
- ④ 패들릿이나 발표를 통해 모둠 활동 내용 공유하기

법을 개별적으로 찾고, 찾은 것들이 맞는지 또 적절하게 활용되었는지를 모둠별로 평가하고 공유해 보는 활동은 이러한 역량을 기르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활동을 할 때는 다양한 자료를 접하기 좋은 도서관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 질문에는 이렇게!

- Q 예시와 사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예시는 어떤 대상을 설명할 때 예를 들어 보인다는 뜻이고, 사례는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난 예’라는 뜻으로 ‘사건의 예’라고 이해하면 수월합니다. 즉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나 일과 관련된 예인 것이지요. 사례보다 예시가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례는 예시에 포함됩니다.

사례라는 말과 예시가 다른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난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글을 읽거나 쓸 때 실제 사건을 예시로 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례라는 개념을 정확히 알아 두면 쓸데없는 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항동중학교 주다연 선생님**

진로 탐색 독서

進路探索讀書

연관 한 학기 한 권 읽기, 자발적 독서

수업 고민 이렇게 해결해요!

수업 고민

학생들에게 어떤 책을 추천해 주는 것이 좋을까요?

해결 방안

- 교사가 읽어 본 책 가운데 학생 수준에 맞는 책 추천하기
- 다양한 독서 목록을 참고하여 책 추천하기

이런 활동 어때요?

활동 내용

관심 분야의 기사를 읽고 관련 도서 찾아 읽기

활동 방법

- 1 관심 분야의 신문 기사를 찾고, 2~3문장으로 간단하게 기사 내용 요약하기
- 2 기사에서 궁금한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분야의 책을 읽으면 좋을지 상의하고 범주 정하기

진로 탐색 독서란 자신의 관심사 또는 본보기로 삼을 만한 대상과 관련된 책을 찾아 읽으면서 진로에 관해 고민해 보는 책 읽기를 말한다. 자신의 진로 탐색과 개발을 읽기 목적으로 설정하고 읽을거리를 스스로 찾아 읽는 자기 주도적 독서 활동이다. 이를 통해 사회의 다양한 진로 및 직업 분야를 다양하게 접하고 탐색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책을 추천할 때는 교사가 직접 읽어 본 책 가운데 학생 수준에 맞는 책을 골라 소개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직접 읽고 수업에 활용했거나, 학생들에게 추천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던 책이면 더욱 좋습니다. 책마세 선생님들의 추천 도서 목록, 전국국어교사 모임 회지에 소개되는 목록 등을 참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사만의 목록을 만들어 갑니다. 처음에는 목록에 포함된 책이 몇 권 안 되지만, 한 학기에 한 권씩만 추가해 보자는 마음으로 정리하면 점차 나만의 노하우가 생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은 학교 국어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읽힐 책을 먼저 읽고 이야기를 나눠 보는 것입니다.

이 활동에는 패들렛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학생들이 각자 활동을 하면서 다른 친구의 활동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함을 느끼는 학생들은 다른 친구들의 활동 과정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관심 분야의 신문 기사와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패들렛에 올리면 관심사가 유사한 학생들끼리 각자가 찾은 내용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심 분야에 관한 시야가 넓어지고 고를 수 있는 책의 선택지도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 ③ 인터넷 서점에서 해당 범주의 책을 검색하여 읽고 싶은 책을 4~5권 정도로 추리기
- ④ 학교 도서관에서 자신이 고른 책을 직접 찾아보고 읽을 책 정하기

활동 내용

책 읽고 북 트레일러 만들기

활동 방법

- ① 함께 읽고 북 트레일러(낭독극 등)를 만들 책 선정하기
- ② 북 트레일러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신의 관심 분야를 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지 정하기

읽은 책의 내용을 토대로 자신의 특기 영역을 살려 책을 소개하는 북 트레일러 만들기 활동을 추천합니다. 차시를 여유 있게 배정하면 훨씬 더 좋겠지만, 읽고 만들기 까지 8차시 정도로도 가능합니다. 같은 문학 작품을 읽었을지라도 학생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북 트레일러를 만드는 과정과 그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음악에 관심 있는 학생은 배경 음악으로, 미술에 관심 있는 학생은 색으로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 갈산중학교 홍기연 선생님

통일성

統一性

연관 응집성

수업 고민 이렇게 해결해요!

수업 고민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글쓰기 수업을 즐겁게 만들 방법은 없을까요?

해결 방안

학교의 정보실을 활용하여 컴퓨터로 작업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

통일성이란 글을 이루는 내용들이 하나의 주제를 향하여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통일성을 갖춘 한 편의 글을 쓰기 위한 과정은 계획하기-내용 선정하기-내용 조직하기-표현하기-고쳐쓰기이며,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주제를 잘 드러내도록 글을 써야 한다.

글쓰기 각 과정에서 통일성 있는 글을 쓰기 위해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다.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글의 주제와 글을 쓰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예상 독자를 분석한다. '내용 선정하기' 단계에서는 다양한 자료에서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선정하며,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주제와 관련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개요를 작성해야 한다. '표현하기' 단계에서는 글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내용이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고쳐쓰기' 단계에서는 글 전체의 주제나 문단의 중심 내용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삭제하거나 적절히 고쳐 쓴다.

매년 글쓰기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운 점은 학생들이 긴 글을 써 본 경험이 별로 없고, 많은 분량의 내용을 필기하는 데 부담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고민하다가 패들렛을 활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짧게 써서 올리는 수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의외로 학생들이 매우 즐겁게 잘 참여하고 결과물도 좋았습니다. 학생들은 종이에 펜으로 무언가를 쓰는 것보다 키보드나 태블릿 피스로 글을 쓰는 것이 더 익숙하고 부담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성 있는 글쓰기' 수업도 3시간 정도 정보실을 빌려서 컴퓨터를 활용하여 진행해 보았습니다. 글쓰기와 관련된 자료도 인터넷을 통해 찾고, 찾은 자료를 토대로 워드 작업으로 글을 쓰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물론 필기구를 챙겨 가서 메모할 부분은 메모하도록 했지만 글쓰기의 시작부터 끝까지 워드 작업을 통해 한 편의 글을 완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글쓰기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도와 흥미도가 올라갔고 수월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업의 결과물을 학급 학생들이 공유하여 보기도 훨씬 편리했습니다. 단 정보실에 가기 전에 통일성 있는 글쓰기 과정을 꼼꼼하게 잘 설명해야 하고, 학생들이 매 시간 어느 부분까지 학습을 진행해야 하는지 세세하게 알려 주고 수업을 진행해야 진도에 쫓기지 않고 제 시간에 학습 내용을 마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 어때요?

활동 내용

통일성 있는 한 편의 글쓰기(글쓰기 과정을 통해 통일성 이해하기)

활동 방법

- 1 통일성의 개념 알기
- 2 통일성 있는 글쓰기의 과정 알기 (글쓰기 5단계)
- 3 자신만의 글쓰기 주제를 선정하여 통일성 있는 한 편의 글쓰기
- 4 완성된 글을 친구와 돌려보고 발표하기

좋은 글쓰기의 기본 중 기본은 글의 모든 내용이 주제와 연관되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통일성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 수업을 진행할 때는 먼저, 교과서의 네 컷 만화나 짧은 글을 통해 통일성의 개념과 글에 통일성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여 학습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통일성 있는 글쓰기 과정 5단계를 차근차근 설명하고 여러 예시를 통해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글쓰기 수업을 해 본 결과, 글의 주제가 학생들의 관심사나 흥미와 관련된 것일수록 수업 참여도가 높고 학습 결과물도 우수했습니다. 따라서 글쓰기의 주제는 학생들 각자가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 경험상 학생들의 참여도와 결과물이 좋았던 주제로는 ‘내가 좋아하는 가수/연예인/드라마/영화/책/웹툰/게임/스포츠 소개하기’입니다. 이러한 주제로 글을 쓰게 했을 때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완성된 글을 발표했을 때 학생들의 호응도 좋았습니다.

각자 자신의 글쓰기 주제를 선정한 후에는 ‘계획하기-내용 선정하기-내용 조직하기-표현하기-고쳐쓰기’ 단계에 따라 글쓰기를 합니다. 이때 ‘계획하기’ 단계에서 주제와 목적, 예상 독자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내용 선정하기’ 단계에서부터는 정보실의 컴퓨터를 활용하여 주제와 연관된 다양한 자료를 찾도록 안내합니다. 다음으로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주제와 관련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개요를 작성하도록 하는데, 이때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을 적절히 구분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개요 쓰기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면 좋습니다. 개요 쓰기가 끝나면 ‘표현하기’ 단계에서는 조직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편의 글을 쓰도록 합니다. 만약 장시간 정보실의 컴퓨터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표현하기’ 전 단계까지는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표현하기’ 단계부터 컴퓨터를 활용해도 됩니다. 컴퓨터로 글쓰기 작업을 할 경우 마지막 ‘고쳐쓰기’ 단계를 수행하기도 훨씬 수월합니다.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통일성 있는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글에 제시되는 모든 내용이 주제와

연관되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주지시키고 각 단계에서 매번 이것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한 편의 글이 완성되면 발표하거나 패들렛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공유하여 읽고 대화를 나누도록 하면 좋습니다.

학생 질문에는 이렇게!

Q '개요 쓰기' 과정은 생각하면 안 될까요? 그냥 찾은 자료를 글을 쓰면서 적절하게 넣으면 될 것 같은데요. 글쓰기 과정이 너무 복잡해요.

A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배운 것은 '통일성 있는 글쓰기'의 과정입니다. 앞서 배웠듯이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글의 모든 내용이 주제를 잘 뒷받침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개요를 쓰는 이유는 앞 단계에서 주제와 관련하여 찾은 다양한 자료를 글 전체 흐름에 맞게 배치하고,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글을 쓰기 위해서입니다. 개요 쓰기 과정을 거쳐야 꼭 넣어야 하는 내용을 빠뜨리지 않을 수 있고,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내용을 뺄 수 있어 흐름이 자연스럽게 통일성을 갖춘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단계별로 글을 쓰는 과정을 귀찮아하거나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이 단원의 학습 목표가 통일성 있는 글쓰기 과정임을 다시 인지시키고, 주제를 잘 드러내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꼭 지켜야 함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청소년을 위한 글쓰기 에세이』 (장선화, 해냄출판사, 2023)
- 『세상은 바뀌는 시간, 15분: 글쓰기를 잘할 수 있는 3가지 비법』 (CBS, 2018. 2. 28.)

청소년기에 글쓰기가 중요한 이유와 글쓰기의 과정을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글쓰기를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들에게 추천할 만한 책입니다. 글쓰기 수업 시간에 글의 내용 일부를 학생들과 함께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글쓰기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는 영상으로, 글쓰기 수업을 시작할 때 함께 시청해 볼 것을 권합니다.

❖ 음봉중학교 김은아 선생님

